2013 보은동학농민혁명

보은취회 120돌

새로운 세상-함께 만들어보세
새로운 사람-함께 모여 꿈꿔보세
새로운 기운-서로 나눠 잘 살아보세

보은동학계승회, 120돌 보은취회 추진위원회

2013 보은동학농민혁명
보은취회 120돌

새로운 세상-함께 만들어보세
새로운 사람-함께 모여 꿈꿔보세
새로운 기운-서로 나눠 잘 살아보세

보은동학계승회, 120돌 보은취회 추진위원회

동학보은취회 120돌을 맞이하며

김종규(보은동학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요즈음 근래 볼 수 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농사일이 걱정됩니다. 그래도 자연의 순리는 풍성한 가을을 약속하듯 산야에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간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본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동학정신을 기리며 몸소 실천하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바쁜 농사일을 멈추시고 보은동학을 기리기 위해 동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이곳 장안들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만 명의 동학농민과 선각자들이 모여 사회 개혁만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외세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혼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함을 일깨워 반상의 차별, 빈부의 차별, 남녀의 차별이 없는 평등 세상을 만들고자 분연히 일어나 강열한 함성을 울렸습니다.

장안 동학보은취회의 역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 장안은 120년 전 동학보은취회가 이루어지기 수년 전부터 해월 최시형 선생에 의해 동학의 지휘부 및 심장이 있던 곳입니다.

동학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이곳 장안은 이제 120년 전의 뜨거운 기운을 받아 희망의 새 장안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장안 동학보은취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하여 이곳을 동학의 성지로 가꾸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동학운동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내빈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념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많은 지원과 후원을 주신 보은군, 보은문화원, 보은농협, 삼림조합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장안면 각 기관 단체 회원, 장소를 제공해주신 속리초등학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기념사에 가름합니다.

동학보은취회 120돌을 기리는 행사 취지문

김태종(목사, 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

다시 그날입니다.

120년 전 보은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역사적 용트림, 그것은 한반도 5천년 역사를 거치면서 쌓이고 엉킨 문제와 한계, 그리고 모순들이 수운 '최재우' 라는 한 인간의 구도자적 열정 안으로 녹아 큰 깨달음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주와 평화의 염원이 뭉쳤던 자리,

그리고 다시 그 날이 되돌아왔습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끝없는 모순과 문제들이 악순환하는 가운데서도 생명의 순환은 거듭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 물음이 끊이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斥洋斥倭盡滅勸鬼(척양척왜진멸권귀)!

서양 세력도 일본의 야욕도 물리치고 탐욕스런 권력자들도 쓸어버리자던 그 의기는

아직도 수면 아래서 꿈틀거리며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동학보은취회 12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다봐야 할 곳은 또 어디인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매몰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도 있음, 그리하여 무엇을 의도하거나 목적을 두기보다는 마음껏 쉬고 관조(觀照)하면서 성찰의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러나 그 쉬고 관조하는 자리가 바로 120년 전의 그 곳이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이번 동학 동학보은취회 120주년이 새로운 미래의 동학을 낳는 소중한 자리,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탄탄한 디딤돌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합니다.

겨레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오늘이라는 이 자리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가 다시 한 번 굽이치는 거대한 용솟음과 소용돌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동학정신의 씨앗이 아직 썩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넉넉하게 의미가 있을 것이

고 마침내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꿈틀거림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터, 돋는 해와 이는 바람결에 묻어있는 동학의 기운이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서 새싹으로 돋아 오르길 바라며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자리 하나를 이렇게 펼칩니다.

목 차

Ⅰ. 사람이 하늘이니 …

- 보은취회와 동학농민혁명

1. 취지문
2. 인사말
3. 행사개요
4. 판거리

Ⅱ. 120년, 우리가 듣지 못한 그들의 노래가 이땅에…

- 120돌동학보은취회의 현장

1. 국제학술대회
2. 120돌동학보은취회 기념식
3. 기념강연
   1) 보은취회와 해월 최시형의 역할 - 박맹수
   2) 위대한 삶의 혁명, ‘동학’의 재발견 - 김용휘
4. 보은민회
   1) 전환,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하여
   2) <2013보은민회> 제안문 :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한 전환의 기획”
   3) 2013 보은민회의 현장, 새로운 전환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4) 전환, 새로운 사회운동의 길 - 주요섭

5. 야단법석

6. 청소년 락樂마당

7. 정화수의례

8. 멋대로 풍류마당

9. 수운과 노자

1) 수운과 노자의 만남 - 김경중

2)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 나순결

10. 제 2회 동학 마당극제

11. 솟대 만들기 체험

Ⅲ. 새로운 기운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세

- 120돌동학보은취회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1. 진달래 꽃길 따라 … 100일간의 순례 - 김창환

2. 들살이가 준 따뜻한 편지

1) 봄밤의 꿈, 들살이 - 하혜영

2) 들살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며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평화의 한마당입니다 - 팔공

4. 120돌동학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1) 인터뷰) 정상혁 보은군수가 꿈꾸는 보은 동학의 역사와 미래

2) 담론) 21세기 수운과 해월을 찾아서 : 김태종 · 김양식

3) 인터뷰) 그래서, 희망입니다 : 소설가 채길순

4) 인터뷰) 생명사상에 깃든 동학운동과 보은취회 : 김용휘

5) 인터뷰) 글씨에 생명과 평화를 입히다

6) 기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큰 숲 - 김진호
7) 기고) 동학의 실천적 탐구와 취회의 전국 네트워크 - 김용우
8) 탐방) 보은취회에서 만난 감동 - 이광호
9) 기고) 기쁘고 감사한 일 - 전철우

편집자의 말 : 보은취회, 보은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 신채원

Ⅳ. 부록

1부

사람이 하늘이니

- 보은취회와 동학농민혁명

▣ 행사개요

120돌동학보은취회

<사람이 하늘이니 - 다시 하늘 여는 길>

'사람이 하늘'이라는 겨레 민중의 참된 얼을 되살리기 위하여 그 얼이 깃든 보은취회와 동학민중혁명의 뜻을 기리며 나와 관계 맺은 모든 것들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심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늘•땅•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생명살림의 두레세상**을 일구어내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상 - 함께 만들어보세
새로운 사람 - 함께 모여 꿈꿔보세
새로운 기운 - 서로 나눠 잘살아보세

▣ **밑흐름**

○ 열린마당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각자 스스로 일을 꾸미고 꾸린다.

○ 내용 있는 실질적인 행사로 참여하는 이들이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보는 보은취회가 갖는 민회의 의미를 드러내어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

▣ **120돌동학보은취회 개요**

○ 일시 : 2013년 4월26일(금)~5월4일(토)

○ 장소 : 보은장안 속리초등학교, 보은북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주최、주관 : 보은동학계승사업회, 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

○ 후원 : 보은군, 보은문화원, 보은농협, 보은군산림조합

○ 함께하는 단체 : 장안동학계승회, 북실청년회, 삶결두레 아사달, 장안면(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 방범대, 새마을남녀협의회, 재향군인회)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평화결사,(사)밝은마을,예술마당 솔,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 개벽하는사람들, 극단 꼭두광대, 극단 연극촌사람들, 연극 자리 소풍, 씨알누리, 광대패 모두골, 아트코어 굿마을, 무위당학교, 청주노자모임, 청주한살림, 괴산한살림,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동학민족통일회, 한울연대, (월간)개벽신문,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충북NGO센터, 충북학연구소, 생명평화교육마당준비위원회(한알학교, 사랑어린학교, 제천간디학교, 선애빌학교, 샨티학교, 래미학교, 밝은마을 마리학교)

▣ **120돌동학보은취회의 의의**

○ 보은집회는 19세기 말 외세에 민족의 자주권이 침탈당하고 탐관오리의 폭정이 이어질 때 1893년 3월 11일(음) 이 땅의 동학민중이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깃발을 내걸고 열었던 집회로 그 동안의 민란적 성격과는 다르게 확실한 조직과 이념을 가지고 사회변혁의 깃발을 높이 든 민족사 최초·최대의 민족·민중집회로서 동학민중혁명의 모태로 한국 근대 민족·민중운동의 벼리이다.

○ 또한, 보은집회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최초의 민회로서 한국형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 보은 북실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난 곳으로 이 땅의 해방을 위해 산화한 동학민중의 넋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 대도주 해월 최시형선생의 대동원 기포령은 의견을 달리했던 남접, 북접 세력이 외세에 맞서 민족대단결을 선포한 것으로 오늘날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 2013년 올해는 동학보은취회 120돌로 2주갑이 되는 해이다. 120년이란 기나긴 민족민중의 역사를 되새기고 1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시대의 현실을 다시 깊이 성찰해야 하는 시점이다.

▣ 판거리(일정)

날짜	시간	판 거 리	장 소	진행단위
4.24(수) ~5.4(토)		동학순례- 진달래 꽃길따라	동학, 동학민중혁명 관련 유적지	참여자 각자
4.26(금) ~5.4(토)		들살이- 하늘땅사람 새봄맞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 위원회
		걸개글씨그림전 - 하늘하늘 생명살림	속리초등학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김진호, 김성장
4.26 (금)	10:30 -	국제학술대회	보은문화원 시청각실	동학학회
	18:30 -	제2회 보은동학마당극제	속리초등학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극단 꼭두광대
	19:00 -	생명평화 야단법석(좌담회)	서원권역도농교류센터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생명평화결사
4.27 (토)	10:30 -	120돌 동학보은취회 기념식	속리초등학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장안동학계승회
	13:00 -	제2회 보은동학마당극제 -생명살림 풍류마당	속리초등학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극단 꼭두광대
	14:00 -	기념강연1- 120년 전 보은취회, 120년 후 보은취회	장안면사무소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충북학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15:00 -	보은민회	장안면사무소	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 위원회 모심과살림연구소
	15:30 -	동학민속한마당	속리초등학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장안동학계승회
	20:00 -	청소년 락樂마당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즐거운가 생명평화교육마당준비위 원회
4.28 (일)	9:30-	솟대 만들기(체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삶결두레 아사달
	10:30 -	북실 정화수의례(위령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 위원회 북실청년회 아트코어굿마을
	13:30 -	기념강연2- 동학보은취회와 동학의 미래가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충북학연구소,한울연대
5.3(금)	19:30 -	수운과 노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 위원회 청주노자모임

▣ 판거리(일정표)

<table>
<tr><th colspan="2">시간</th><th>4.26(금)</th><th colspan="2">4.27(토)</th><th>4.28(일)</th><th>4.29(월)
~
5.2(목)</th><th>5.3(금)</th><th>5.4(토)</th></tr>
<tr><td rowspan="3">오
전</td><td>9:30</td><td rowspan="15">국제학술대회</td><td colspan="2"></td><td>솟대만들기
(체험)</td><td rowspan="15"></td><td rowspan="15"></td><td rowspan="3"></td></tr>
<tr><td>10</td><td colspan="2" rowspan="3">보은취회120돌
기념식
- 길놀이,순례,검무,
취회선언,기념사,
축사,밥굿</td><td rowspan="3">북실정화수의
례
(위령제)</td></tr>
<tr><td>11</td></tr>
<tr><td rowspan="12">오
후</td><td>12</td><td colspan="2">점심</td><td>점심</td></tr>
<tr><td>1</td><td colspan="2">제2회 동학마당극제
- 판놀음'공감',
각설이의 세상풍자,</td><td>기념강연2.
-김용휘</td><td>마무리</td></tr>
<tr><td>2</td><td>동학탈극</td><td>기념강연1
-박맹수.</td><td rowspan="11"></td><td rowspan="11"></td></tr>
<tr><td>3</td><td rowspan="3">동학민속
한마당</td><td rowspan="3">보은민회</td></tr>
<tr><td>4</td></tr>
<tr><td>5</td></tr>
<tr><td>6</td><td colspan="3"></td></tr>
<tr><td>7</td><td colspan="2">제2회동학 마당극제
그림자극
1인극</td><td rowspan="3">생명평화
야단법석</td><td rowspan="3"></td></tr>
<tr><td>8</td><td colspan="2" rowspan="2">청소년
락樂마당</td><td colspan="2" rowspan="2">멋대로 풍류마당</td><td rowspan="2">수운과
노자
-김태종</td></tr>
<tr><td>9</td></tr>
</table>

▣ 들살이

때	참가단체	내 용	장소
4.26~5.4	개별참여자	멋대로 열린마당	기념공원
4.27~4.28	생명평화교육마당 준비위원회	청소년락樂마당 등	기념공원
4.26~4.27	개벽하는 사람들	자유로운 들살이	기념공원

▣ 제2회 보은동학마당극제_ 생명살림 풍류마당

날짜	시간	장소	공연명/단체
4.26(금)	18:30	속리초등학교	**[아름다운 시절], [비 갠 오후], [기억의 길]** - 3개의 옴니버스 형식. 미래에 대한 꿈 - 연극촌사람들 '그리운 탈나무'(경북 성주)
	19:30		**[춤추웠을 뿐인데]_그림자극** - 더 넓은 세상에서 같이 춤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 - 연극 자리 소풍(제주)
4.27(토)	11:30	속리초등학교	**[밥굿]** - 탈굿-조왕굿-평화비나리 - 광대패 모두골 강원 원주
	13:00		**[판놀음_공감]** - 충북도지정예술단 씨알누리
	14:00		**[각설이의 세상풍자]** - 민중각설이
	14:10		**[눈자라기]** - 동학창작탈극(우는 나무를 찾아온 아이가 겪게 되는 동학이야기 - 극단 꼭두광대(청주)

▣ 기타행사

때	참가단체	속알(내용)	장소I
4.27	생태교육연구소 터	어린이역사학교	행사장
4.27	무위당학교	취회참여	행사장
5.3	청주노자모임	수운과 노자	행사장

120돌동학보은취회 판거리 세부내용

<사람이 하늘이니 - 다시 하늘 여는 길>

새로운 세상 - 새로운 사람 - 새로운 기운

▣ 동학순례_ 진달래 꽃길따라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4일(수)~5월4일(토)
동학, 동학민중혁명 관련 유적지

○ 순례자 : 개인이나 단체(예술마당 솔, 한알학교, 사랑어린학교 등)

○ 취지 : 일부 동학보은취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동학관련 유적지등을 순례하며 걸어서 취회에 참여한다.

○ 내용

- 1. 영동 용산, 옥천청산을 거쳐 보은취회지로 들어온다.
- 2. 괴산 청천을 지나 보은취회지로 들어온다.
- 3. 옥천역에서 옥천 안내를 거쳐 보은취회지로 들어온다.
- 4. 기타 참여자들이 자유로이 순례를 하며 걸어 보은취회지로 모인다.
- 5. 2013. 1. 22일 부터 남해에서 출발하여 경상남북도, 순례했다.

▣ 들살이_ 하늘땅사람 새봄맞이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6일(금)~5월4일(토) (9일간)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주관 : 120돌 보은취회추진위원회

○ 취지 : 120년 전 동학보은취회 때 전국에서 몰려온 이들이 야영을 했듯이 오늘날 방식으로 그 모습을 재현한다.

○ 내용 :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나름의 시간을 보낸다.

▣ 걸개글씨그림전_ 하늘하늘 생명살림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6일(금)~27일(토) / 속리초등학교
4월28일(일)~5월4일(토)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주관 : 보은동학계승사업회_ 김진호, 김성장

○ 취지 : 걸개에 쓰인 글씨와 그림으로 보은취회, 동학민중혁명과 생명살림의 의미를 느껴 본다.

○ 내용 : 보은취회, 동학민중혁명과 생명살림과 관련된 내용의 걸개 글씨 그림 전

▣ 생명평화 야단법석(좌담회)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6일(금) 오후7시~9시
/ 서원권역 도농교류센터(장안면 서원리)

○ 주관 : 보은동학계승사업회, 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 생명평화결사

○ 취지 : 120년전 동학보은취회는 그 당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다양한 의견들의 교류의 장으로 민중의 열망이 모였던 것으로 오늘날 생명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한다.

○ 내용

- 좌장 : 김민해(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 120돌 동학동학보은취회 기념식_ 우리의 노래가 이 땅에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7일(토) 오전10시30분 / 속리초등학교

○ 주관 : 보은동학계승사업회, 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 장안동학계승회,

○ 취지 : 120년전 동학보은취회를 되새기며 새로운 생명살림의 새로운 역사의 싹을 틔운다.

○ 내용

- 길놀이 및 동학순례
- 검무
- 취지문 낭독
- 기념사, 축사

▣ 제2회 보은동학마당극제 _ 생명살림 풍류마당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6일(금) 오후 6:30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4월27일(토) 오후 1:00 / 속리초등학교

○ 주최 : 보은동학계승사업회. 극단 꼭두광대

○ 주관 : 극단 꼭두광대

○ 후원 : 보은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충청북도

○ 취지 : 동학의 정신과 같은 의미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구성된 마당극제

▣ **동학민속한마당_ 으라차차 흥겹게**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7일(토) 오후 3시30분~5시 / 속리초등학교

○ 주관 :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장안동학계승회

○ 취지 : 흥겨운 민속놀이로 지역주민과 함께 보은취회를 즐긴다.

○ 내용 : 윷놀이, 투호놀이 등

▣ **102돌 동학보은취회 기념강연1 _ 120년전 보은취회, 120년후 보은취회**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7일(토) 오후2시~3시 / 보은장안면사무소

○ 주관 : 충북학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 취지 : 120년전 보은취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새로운 보은취회 방향을 찾아나간다.

○ 강사 : 박맹수

▣ **보은민회**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7일(토) 오후3시~6시 / 보은장안면사무소

○ 주관 : 120돌보은취회추진위원회, 모심과살림연구소

○ 취지 :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회로 평가되는 보은취회의 120주년에 즈음하여 현대적 민회운동의 계기를 마련한다.

○ 내용 : 문명전환기, 지속 불가능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생명평화사회로의 전환의 열망을 '민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 민회 [民會] 뜻 어떠한 구역 안에 사는 인민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한 모임**

▣ **청소년 락樂마당_ 우리마당 락樂마당**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7일(토) 오후8시~12시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주관 :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생명평화교육마당준비위원회,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

○ 취지 :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보은동학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한다.

○ 내용 :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풍류마당

▣ **솟대만들기_솟대에 올린 살림의 마음**

○ 일시/장소 : 2013년 4월28일(일) 오전9시30분~10시30분/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주관 : 보은동학계승사업회, 삶결두레 아사달

○ 취지 :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보은동학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한다.

○ 내용 : 솟대를 만들기 체험

▣ **북실정화수의례(북실위령제) _ 씻김과 틔움**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8일(일) 오전10시30분~오후1시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주관 : 보은동학계승사업회, 120돌 보은취회추진위원회, 북실청년회, 아트코어 굿마을

○ 취지 :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무거운 분위기의 위령제 형식을 넘어 참여자들의 마음을 모아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로 동학민중군의 영령을 위로한다.

○ 내용 : 120돌을 기리어 120명의 접주가 참여한다.

- 탈굿 큰어미 공연
- 정화수의례 : 정화수 올리기, 소지올리기, 축원덕담
- 흥풀이

▣ **120돌 동학보은취회 기념강연2 _ 보은취회와 보은동학의 미래 가치**

○ 일시 / 장소 : 2013년 4월28일(일) 오후1시~2시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주관 : 충북학연구소/한울연대

○ 취지 : 보은취회의 미래적 가치를 찾아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자산으로 삼는다.

○ 강사 : 김용휘교수

▣ **수운과 노자**

○ 일시 / 장소 : 2013년 5월3일(금) 오후7시30분~9시30분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주관 : 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 청주노자모임

○ 취지 : 동학창시자 수운과 노자의 사상을 공유하여 동학 사상의 인식의 폭을 확대한다.

○ 강사 : 김태종(목사, 생태교육연구소 소장)

▣ **들살이, 접주 모심**

○ 때 : 2013. 4. 26(쇠)~5. 4(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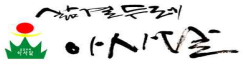
○ 곳 : 보은북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보은장안 속리초교

○ 접주모심 내용

- 접주의 개념 : 생명살림의 삶을 꿈꾸고 120돌동학보은취회에 참여와 역할을 하는 사람
- 접주의 의무 : 등록비로 3만원을 낸다
- 접주의 역할 : 취회 기간 중 1박을 하고 북실 정화수의례에 참여한다.
- 접주모심 상징물 : 보은민회선언문 조형물

○ 모시는 이 : 120돌 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

○ 접주신청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asadala - 페이스북 120돌동학보은취회준비모임 http://www.facebook.com/#!/groups/249595975125489/
- 신청내용: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하고자하는 일
- 손전화 : 봄길하혜영 010-4859-1993/ 아시반박달한 010-3117-5421

○ 들살이 모심

- 동학취회의 의의를 공유하는 사람이나 단체
- 생명살림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나 단체
- 할일 없이 지 멋대로 놀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
- 숙박식 : 각자 알아서 스스로, 야영가능

○ 보은취회 밑천통장 : 농협 301-0124-0461-21 아사달(동학보은취회)

▣ 120돌동학보은취회 준비 경과

○ 지난해까지 15년째 동학보은취회와 동학민중혁명의 뜻을 기리어 기념사업을 해온 삶결두레 아사달은 4년 전인 2009년부터 120돌동학보은취회에 대한 고민을 해왔으며 지난해인 2012년 119돌보은취회는 120돌동학보은취회를 준비하는 성격의 행사를 벌였다.

○ 지난해 11월 순천에서 119돌 보은취회에 참석한 접주들을 중심으로 '120돌동학보은취회준비모임'을 결성하고 행사내용의 대강을 잡았으며, 아사달카페와 페북을 통해서 120돌동학보은취회를 준비할 접주를 모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며 일꾼 꾸리기와 행사준비를 제안해왔다.

○ 2013년 2월 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2013년 3월 보은지역 장안동학농민회, 북실청년회, 삶결두레 아사달이 보은동학계승사업회를 공동구성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내용과 결합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 발자취

1998.	11.21	4331솟대장승굿<하늘이열리고이땅에지킴이가서다>
1999.	11.13	4332보은동학굿<북실진달래-동학으로가는길>
2000.	10.22~29	4333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_동학농민혁명만세>
2001.	1.11	4334북실기림굿
	10.26	4334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서로살림>
2002.	1.29	4335북실기림굿
	8.31	임오년 보은취회_우리쌀지키기
	10.25	4335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사람섬김>
2003.	4.11~13	4336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다시하는동학보은취회"쌀">
2004.	4.24~25	4337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보은동학학교>
	8.27~30	4337동몽접장학교
2005.	1.25 4.16	4338북실기림굿
	~17	4338보은동학굿 <사람이하늘이니-아이들이자라나는것은 생명이 피어나는것이다>
	10.22~23	4338사람하늘굿<사람이하늘이니-살림살이하늘이어라>
2006.	1.14	4339북실기림굿<진달래고운꽃잎으로 다시피어나소서>
	4. 8~9	4339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춤추며놀자>
2007.	4.14~15	4340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생명평화동학보은취회>
2008.	4.26~27	4341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춤추며놀자>
2009.	4.11~12	4342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진달래숨결따라>
2010.	4. 9~10	4343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보은동학학교>
2010.	7.29~12.30	보은동학길 조성사업
2010.	10.16	보은동학 한일 시민교류
2011.	4. 8~16	4344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아이들이 걸어가는 보은동학>
2011.	11.3	보은동학 한일 시민교류
2012.	4.13~21	4345임진년 보은취회
	7.11	4345보은동학 기림굿 120돌동학보은취회워크숍<남도끝자락순천에서 120돌동학보은취회 길을묻다>
	11. 4	
	12.1~2	120돌동학보은취회맞이 동학100일순례 토론회

2부

120년, 우리가 듣지 못한 그들의 노래가 다시 이 땅에 …

- 120돌동학보은취회의 현장

2013년 보은 장내리 동학집회 1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 보은 장내리 동학집회의 종합연구와 전망

보은 장내리 동학취회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역사적 현장인 충북 보은군에서 '보은 장내리 동학집회의 종합연구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은취회의 성격을 규명해 온 지금까지의 연구를 총정리하고 관련 사료를 검토하는 동시에 보은이 한국근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동학도, 천도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세대의 동학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4월 26일 금요일, 120돌동학보은취회의 첫 번째 행사로 치러진 본 학술대회는 동학학회(회장 최민자)가 주최하고 보은군, 보은문화원, 동학학회 후원회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오랜 시간 심도 깊은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장옥이 해월 최시형에게 제기한 신원운동의 발단, 공주와 삼례의 동학집회, 보은 장내리의 대도소 설치, 광화문 복합상소, 1893년 보은 장내리 집회, 그리고 장내리집회 해산 이후의 전국 동향에 이르기까지의 연구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보은취회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큰 의미를 시사했다.

제 1부 학술발표는 서울신대 이길용 교수의 사회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발표로 '장위영 영

관 이두황과 보은 장내리의 파괴(홍일교, 독립기념관)', '보은 장내리집회의 연구와 전망(왕현종, 연세대)', '벽화그림으로 보는 태평천국예술(장철보, 중국 남경 태평천국박물관장)'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채길순(명지전문대), 김선경(규장각), 우성민(동북아재단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지는 제 2부 학술발표에는 국방대 김한식 교수의 사회로 '동학교단 자료의 장내리 동학집회 기록검토(임형진, 경희대)', '『聚語』의 사료가치와 장내리집회 분석(신영우, 충북대)', '충북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존과 활용방안-보은 유적지를 중심으로-(김양식, 충북학연구소)'을 주제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 3부 종합토론에는 동학학회 회원을 비롯한 100여명의 참석자들과 다양한 주제로 동학운동의 역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보은지역의 역사적, 시대적, 정체성 확립을 통해 보은군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동학의 글로컬리제이션' 이라는 의미 있는 과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20돌동학보은취회 기념식

우리의 노래가 이 땅에

120년 전, 척왜양창의를 외치며 외세를 배격하고 신분제도의 철폐와 함께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동학운동을 기념하고자 '120돌동학보은취회' 기념식 행사가 4월 26일 속리초등학교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 및 동학관련 단체 등 500여명이 모여 120년 전 보은취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보은동학계승사업회(상임대표 김종규)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보은취회 120주년을 맞아 장안면 지역주민은 물론 동학관련 시민 및 연구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펼쳐졌다.

이날 보은동학계승사업회 김종규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사람이 하늘이라는 민중

의 참된 얼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20전 보은취회가 이곳 장안에서 펼쳐졌다" 며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보고자 함께 모여 꿈꿔 보고자 새로운 기운 서로 나눠 잘 살아 보고자 이렇게 모였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혁 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120년전 이 곳 장안마을에 모인 동학교인 및 백성들의 고귀한 뜻인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참뜻을 오늘에 되새겨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며 "우리 군민 모두는 정의를 숭상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겸손한 자세로 사람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은군의회 이달권 의장의 축사와 2013 대한민국 민회 박소정 공동조직위원장, 중국 남경대 최지청 교수,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 등이 참석해 보은취회에 대한 현대 사회적인 역할 등에 대한 인사말이 이어졌다.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은 행사 취지문을 낭독하며 '겨레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오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동학정신의 씨앗이 아직 썩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돋는 해와 이는 사람 결에 묻어있는 동학의 기운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서 새싹으로 돋아 오를 것'을 행사의 취지로 밝혔다.

120돌동학보은취회의 뜨거운 현장은 지역 주민과, 행사장을 찾은 후손들에 의해 보은 땅에 웅장하게 울려 퍼진 뜻 깊은 시간이었다.

120돌동학보은취회 기념강연 I

120년 전 보은취회, 120년 후 보은취회

박맹수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강연

보은취회 120돌을 맞이하여 충북학연구소와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공동주관하여 진행된 “120년 전 보은취회, 120년 후 보은취회” 강연의 현장을 찾았다.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맹수 원광대 교수의 강연에서는 보은취회 120주년을 맞이하여 이 시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위기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국에서 모여 든 동학교도들과 시민활동가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실천적 삶의 방향을 지켜보는 자리였다.

(편집자 주)

보은에서 평생 이 땅과 뭇 생명들과 조국의 밝은 앞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현재도 그런 뭇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중진 젊은 시민운동가 여러분들, 그리고 뜻 있는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민중운동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천도교 원로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말씀

을 올리게 되어 엄청난 영광임과 동시에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많은 숙제들, 그리고 새로운 기운을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120년 전 보은에, 새 세상, 모든 뭇 생명들이 함께 제 삶결대로 어울려 잘 사는 세상을 꿈꿨던 수많은 민초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20년 전 장안에 모였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성별, 나이 지역 직업 모두를 떠나 이 자리에서 소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20년 전 보은취회와 120년 후 보은취회에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제가 1979년에 장교로 임관해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6월 말에 배치를 받은 곳이 바로 이 앞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80년 7월에서 보은에서 근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학에 미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30여년이 지나 여기 이 자리에 동학을 이야기 하게 된 오늘, 저의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홍수도 났었고 이런 저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은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2002년 임오년 보은취회 때도 생각이 납니다.

저와 보은은 운명적으로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이 바로 풀뿌리 백성들이, 억눌렸던 민초들이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이 자각으로 새 하늘을 열기 위해 민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민회라는 말은 보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땅과 제가 운명적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 다음 생애에 태어나도 저는 동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은은 한반도의 허리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많은 동학도들이 모여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모인 거죠. 전통시대에는 전란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보은 마로면 아시죠? 보은과 상주 경계선입니다. 한 번은 마로면 산골로 출동을 했는데 거기 가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 피난 오셨는데, 연좌제라는 것 때문에 감시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주로 살던 곳이에요. 보은이라는 곳이.

그 뒤에 동학을 공부하면서 보은의 지리적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니까 여기가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충주, 보은, 옥천 일대가 동서남북의 중간쯤 되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100년 전에는 두 개 교통로가 있었죠. 걸어 다니는 길과 말이 다니는 역참 로였죠.

바로 상주에서 보은, 서울로 가는 그 길이 통과하는 곳이었어요. 현대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보은은 걸어 다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전봉준 장군도 여기, 보은 앞에 있는 원남역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보은에 삼년산성이 있습니다.

태조왕건이 신뢰하고 믿었던 신숭겸이라는 부하가 삼년산상에서 전투하다가 화살을 맞고 죽어가던 현장이 이 보은이었습니다. 보은이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시대에, 보은은 장악하면 전략적 전투지였습니다.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되죠. 지금과 120년 전의 사정은 달랐던 것입니다.

보은 땅이 갖는 역사적 무게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최제우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죠?

동학, 반란사상, 사이비사상, 이런 시선과 이미지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뜻있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철학을 제대로 알려면 동학을 알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수운선생님이 동학을 창도하시고 깨달은 바를 펼치시는데 1861년 음력 6월,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걸 포덕 이라고 합니다.

1863년 12월에 체포가 되죠. 서울로 압송을 당하십니다. 조사를 해 보니 보은에 오셔서 하룻밤을 묵으시면서 머물던 주막의 주인이 동학에 입도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미 보은은 동학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해에 철종이 승하 하시면서 국상을 치르면서 처형이 미뤄졌죠. 국상이 있으니 중죄인에 대한 처벌을 미뤄진 거지요. 서울에서 다시 감영으로 돌아오시게 되죠. 거기에서 몇 차례 문초를 받으시고 대구 장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해월 최시형 선생께서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아 38년간 전국을 다니시면서 동학을 알리셨죠.

그 긴 세월 단 하루도 발을 뻗고 편하게 주무신 날이 없다고 합니다. 해월 선생의 삶은 동학을 알고 난 다음부터 수배자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1887년, 보은 땅에 법소를 설치하시게 됩니다. 동학의 중앙본부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동학 천도교에서 용담 이상으로 더 중요한 성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전라북도 부안에서 발견된 해월문집에 보면, 전

국의 동학의 핵심 간부들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3교대로 보은에 오셔서 수련을 하셨어요. 수련의 핵심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곧 하늘이라고요. 삼라만상이 모두 하늘임을 해월 선생께서 수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게 그 기록에 있었습니다.

이 법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수련'이었습니다. 자기의 영성을 찾는 공부를 끊임없이 수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성을 밝히는 땅입니다.

그렇게 120년 전에 민초들이 모여 민회를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민회' 라는 표현은 어윤중의 기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윤중이라는 인물은 그 시기에 동학도들을 해산시키라는 명을 받고 내려온 관리입니다. 양오도어사, 양오선무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와서, 보고서에 일찍이 서양에서 말하는 민회와 같은 모습이라고 객관적으로 기술합니다. 장궤를 올렸는데 황해도로 귀양을 가죠. 좌천을 당한 거죠.

민회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정확히 바라본 것입니다. 보은집회에 모였던 다양한 계층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 외국의 침략에 반대하는 사람, 신분제도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120년 전에 모두 보은에 모였는데, 논리, 철학,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어윤중의 보고서 속에 취회의 목적은,

보국안민의 무리들, 보국안민이라는 말은 수운선생이 쓴 1861년 포덕문에 등장합니다. 수운선생께서 최초에 동학을 펼 때의 정신과 일치하는 거죠.

척왜양창의.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깃발을 척왜양창의로 내세운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배척하자는 이야기는 옳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때 제일 많이 모인 날 인원이 약 2만3천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모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속리초등학교 뒤에 돌성을 쌓고, 거기가 아마 지휘본부가 있었던 것 같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이 동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집회가 있으면 모였던 것 같은데, 당시 <보은취어>라는 자료에 의하면 230냥을 모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문씩을 내서 230냥을 모으려면 2만3천명이 있어야 합니다. 최대로 많이 모인 날은 2만3천 명이 모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연인원은 8만에서 10만 명 정도였는데, 이들이 어떤 분위기였는가. 수만 명이 모이면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입는 거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서 보부상이랄까, 요즘 같으면 축제 때 포장마차들 다 오잖아요. 그 시기에는 포장마차들이 주로 떡을 파는 분들이었던가 봐요. 떡장사들이 집회 주위에 다 모이는데, 일일이 다 떡값을 지불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얘기는, 공유되는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폭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그러한 질서와 도덕적인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게 뭐였을까. 그게 동학의 '모실 侍'자. 이것이 갑오년에 이어지면 어떻게 더 발전되고 정리되느냐면,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 목숨만은 해치지 않으며, 행진하며 지나갈 때는 절대로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자는 쫓지 않고 굶주린 자는 먹여주고 다친 자는 치료해주고 항복한 자는 사람으로 대하고. 이게 동학 도인들의 모습이었고 동학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로 가 보자면, 보은 장안에 오면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어윤중과 이두황입니다. 이두황이라는 자는 동학보은취회 때 수많은 민초들이 모여 동학의 성지였던 이곳, 갑오년 10월 이두황이 이곳에 습격해서 보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후 친일파가 됩니다.

12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온고지신 하자.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밑거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 오래된 미래를 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120년 전, 큰 위기는 민초들에게 있었습니다. 큰 이슈는 사람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민초들의 위기. 그런데 120년 후 지금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는 그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생명적, 지구적, 운명적 위기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20년 전에 여기 모이셨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걸 이미 아셨을 겁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울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식탁에서, 출근 버스 안에서 뭇 생명의 위기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이, 우리 후손들의 위기를 장담할 수 없는 시기가 왔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련과 영성을 밝히는 출발을 오늘 보은취회를 통해 새로운 발걸음으로 출발해서 연대해야 합니다.

120년 전 바로 보은취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다시 120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아니면 전 지구적, 생명의 위기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땅의 큰 어른인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해월선생님이 다시 태어나시면 그분처럼 살다 가셨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두환을 사랑해라.”

최근에 그 말씀의 뜻을 이제야 그 뜻을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하려면 상대방과 내가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뭇 생명과 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학의 정신은 바로 그 것이었습니다. 동학의 동은 서의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동은 바로 생명이고 빛이었습니다. 빛을 찾아서 끊임없이 오던 역사의 축적이 수운선생에 의해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한 몸이 되는 것.

가장 저주해야 할 사람까지도 한 몸으로 안고 껴안을 수 있는 정신이 나올 것 같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가 새로운 연대와 소통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20돌동학보은취회 기념강연 Ⅱ

위대한 삶의 혁명, '동학'의 재발견

김용휘(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 한양대)

1. 이 시대 왜 다시 동학인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순하지 못하다. 멈출 줄 모르는 생명과 생태계 파괴, 점증하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의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그 사이의 인간들은 더욱 깊이 병이 들었다. 아니 인간들의 병으로 인해 하늘과 땅이 신음하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동학의 2세 해월 선생(1827-1897, 海月 崔時亨)의 표현처럼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초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의 고기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 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한"[1] 세상이다.

게다가 우리 삶의 풍경은 점점 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모든 부분에서 경쟁만 강조하면서 삶과 진화의 또 다른 원리인 협동과 유대,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삭막하고 숨 막히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그 누구도 미래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무한경쟁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기에 현재의 승자들조차도 양보와 나눔의 마음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 안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속에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서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삶이

1)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 "斯世之運開闢之運矣 天地不安 山川草木不安 江河魚鼈不安 飛禽走獸皆不安 唯獨人 暖衣飽食安逸求道乎 先天後天之運 相交相替 理氣相戰 萬物皆戰 豈無人戰乎."

무너져 내리고 있다.

또한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내전, 분쟁과 갈등, 테러와 대테러, 대량학살, 기아와 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의 중동사태는 물론,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수단의 다이푸르 , 레바논, 팔레스타인, 사라예보, 알제리, 체첸 등 21세기 들어와서도 여전히 분쟁과 갈등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분쟁과 갈등의 반평화적 분위기, 빈곤과 양극화 문제, 특히 이상기후와 생태계 파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일까.

칼 야스퍼스는 1949년 출간한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기원전 8세기에서 2세기까지의 600여년의 기간 동안 각 대륙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사유의 창조적 혁명, 새로운 종교적 에토스의 출현을 '차축시대'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정신문명이 꽃핀 획기적인 시기, 첫 번째 문명의 대전환기를 가리킨 용어이다. 그러나 이 정신문화는 그냥 꽃핀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위에 핀 꽃이었다. 이 시기는 청동기, 철기문화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부족국가들을 합병하여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야말로 전쟁의 시대였다. 철기문명과 관개시설의 발달로 농업생산이 늘자 이에 따라 더 넓은 땅이 필요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폭력과 죽임이 일상화되던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에 그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참된 인간의 길을 제시하면서 나온 것이 그리스문명, 히브리문명, 인도문명, 중국문명이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중엽부터 지금까지는 제2의 축의 시대라고 부를만 하다. 수운(최제우, 1824-1864) 선생은 이 시기를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라고 하여 '다시개벽'의 시기라고 부르짖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는 서양근대의 급속한 팽창과 산업화, 제국주의와 함께 동서가 충돌하면서 근대 물질문명의 혜택을 확장시킨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시기였다. 이 시대는 이전 시기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계급적 평등 문제, 인권, 여성성의 문제, 인간성 상실과 소외,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핵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태계의 문제, 어머니 지구와 뭇 생명의 파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인류 역사에서 두 번째 문명의 대전환점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영적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 시대는 각 문화권으로 분화되었던 인류의 정신적 유산들이 지구촌시대를 맞아 통합적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하다.[2)]

---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렌 암스트롱의 『축의 시대』에 대한 감신대 이정배 교수의 서평 「'축의 시대'의 관점에서 본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서 힌트를 얻었음을 밝힌다.

그런 점에서 수운 선생의 '다시개벽'은 새로운 정신적·영적 도약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그 길을 제시한 획기적 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학은 본래 하나의 종교적 교단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동학은 본래 '동국의 학', 즉 '조선의 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하고 우리 역사를 '동사'라 하고, 우리 의학을 '동의'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학은 서학에 대한 동학이 아니라, 유학과 서학을 포함한 모든 외래 학문에 대해 '우리 학문'을 의미한 것이다. 우리 땅의 우리 백성들에게 맞는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동학의 출발은 비록 그러했지만 동학은 우리 땅의 백성들에게만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근대문명의 주류였던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 한참 변두리로 떨어져 있는, 그러나 지정학적으로는 언제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는 비주류 변방의 별 볼일 없는 제3세계 대다수 힘없는 약소국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 나름대로 동아시아의 높은 문명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지만 서양 문명의 엄청난 충격을 받아 안으면서 동서가 충돌하여 만나는 그 지점에서 19세기 수운 선생의 학문적 사색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그 자신 변두리 경주 출신으로 양반이었지만 평민과 다름없는 신분적 한계 속에서 계급의 문제와 서민들의 고난을 온 몸으로 체험하였다. 게다가 신으로부터 독립한 이성적 주체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근대문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을 모시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민족 역시 조선조에 들어서서 성리학적 합리성이 지배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신비와 경외지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으며 이로 인해 하늘과 인간 삶의 영역이 괴리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19세기 수운 선생의 고민은 동서가 충돌하고 서민들의 삶이 나락에 떨어지고, 하늘과 인간의 삶의 괴리가 심해지면서 생긴 총체적 위기를 떠안고 있다. 그리하여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밑바닥 민중의 고난과 고통에 입각하여 동양의 유불선 삼교를 바탕으로 서학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고, 하늘과 인간의 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차원을 아우르면서 서양의 근대문명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보편성을 이미 그 고민에서 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학은 오늘날 서양의 근대문명이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록 변방의 사상이지만 보편성을 가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동학을 다시 지금의 '우리학문'으로 되살려 깊이 읽어내야 할 이유이다.

2. 수운 최제우의 생애

동학의 성립은 당시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사회적 모순과 서세동점의 국

가적 위기 속에서 조선 백성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나온 치열한 사상적 고민의 결과물이다. 당시는 세도정치 하에 국정의 혼란이 가속되고 지방 수령들의 수탈이 도를 넘고 있었다. 게다가 계속된 가뭄으로 해마다 흉년이 지고, 전국을 강타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가장 큰 위기의식은 천하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서양 제국주의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느낀 좌절감과 이제 서양 오랑캐가 곧 조선에까지 침략해 들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수운 최제우(1824~1864)의 문제의식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즉 어떻게 하면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전하고 고통에 빠진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다. 그러면 수운의 삶을 통해 동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수운은 본관이 경주이고 이름은 제우(濟愚), 자는 성묵(性默)이었다. 1824(갑신) 10월 28일 경주 현곡면 가정리에서 탄생하였다. 초명은 제선이며, 아버지 이름은 최옥(崔沃+玉)으로 근암공(近菴公)이라 불리었으며, 어머니는 한(韓)씨이다. 최옥은 당시 경주에서도 이름있는 학자였으며 그의 학문은 이현일, 이상정을 잇는 퇴계학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은 뛰어났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하고 60이 넘도록 아들이 없이 지내다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한씨를 만나 늘그막에 아들을 낳았다. 한씨가 한번 결혼을 한 재가녀였기에 수운은 비록 서자는 아니었지만 서자와 다름없는 멸시와 차별을 받았다. 그 중에 한 일화가 전한다. 어린 수운의 눈빛이 남달리 번쩍여서 아이들이 놀리면서 ‘너는 자라서 역적이 될 것이다“라고 하자, 어린 수운은 ”나는 역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열 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여의고 늙은 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로부터 유교적 가르침을 받았지만 당시의 유교는 이미 너무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는 서양세력의 침략으로 인해 시대적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태였고, 삼정의 문란과 세도정치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수운은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지만, 정작 자신이 그러한 시대에 뜻을 펼 수 없다는 신분적 한계도 절감했다.

수운은 13세에 울산의 박씨 부인을 맞아 결혼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4년후 17세에는 그동안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버지를 여의게 된다. 그후 갈수록 살림은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19세에 모든 세간과 물려받은 서적들을 화재로 소실하게 된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수운은 문과에 비해 신분적 제약이 덜 한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 무예를 연마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자신의 신분에서 그나마 뜻을 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뭔가 해소되지 않는 답답증으로 인해 얼마 못가서 활과 칼

을 거두고 장삿길에 나서 팔도를 떠돌게 된다. 그후 약 10년 이상 계속된 떠돌이 생활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신동엽 시인은 이때를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짚신 신고
水雲은, 3천리
걸었다.

1824년
경상도 땅에서 나
열여섯 때 부모 여의고
떠난 고향.

修道 길.
터지는 입술
갈라지는 발바닥
헤어진 무릎.

20년을 걸으면서,
水雲은 보았다.
八道江山 딩군 굶주림
학대,
질병,

兩班에게 소처럼 끌려다니는 農奴.
학정
뼈만 앙상한 李王家의 夕陽. (신동엽, 『금강』, 제2장 중에서)

방랑생활을 접고 정착한 것은 1854년, 그의 나이 31세 되던 해였다. 그 때 부인 박씨는 두 아들과 함께 친정인 울산에 머물러 있었다. 수운은 일단 울산으로 내려가서 가족들을 돌보며 멀지 않은 곳에 조용한 거처를 마련하고 새로운 도법을 찾기 위한 수련에 정진할 뜻을 세웠다. 그리하여 마련한 곳이 울산 유곡동 여시바윗골이란 곳이다. 이곳에서 수운은 첫 번째 신비한 체험을 한다. 이인(異人)으로부터 책 한권을 받는 사건으로 일명 '을묘천서(乙卯天書) 사건'이다. 그의 나이 32세 때의 일로 수운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독서와 사색의 방법에서 하늘에 기도하는 종교적 수행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후 그 책에 적은 대로 몇 차례 '49일 기도'를 행한다. 기도 과정에서 백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 듯이 알게 되는 등의 여러 신비체험을 하게 되지만, 여전히 세상을

건질 대도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사이에 집안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수운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철광업에 손을 대기에 이른다. 아마 한번에 큰돈을 벌어 그동안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세우고 또 수도에만 정진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못가 파산하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40이 가까운 나이에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처자도 건사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 처절한 절망감을 안고 그의 고향 경주 용담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겨울에 접어든 음력 11월이었다. 그때의 비참한 심정을 수운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불우시지 남아로서 허송세월 하였구나 인간만사 행하다가 거연 사십 되었더라
사십 평생 이뿐인가 무가내라 할 길 없다 구미용담 찾아오니 흐르나니 물소리요
높으나니 산이로세 좌우 산천 둘러보니 산수는 의구하고 초목은 함정하니
불효한 이내마음 그 아니 슬플소냐 오작은 날아들어 조롱을 하는듯고
송백은 울울하여 청절을 지켜내니 불효한 이내마음 비감회심 절로난다.
(『용담유사』, 「용담가」)

고향 용담으로 돌아온 수운은 이제 도를 통하지 못하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수련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처자를 떠나 조용한 장소를 택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자와 함께 머물면서 지독한 수련을 한다. 이런 비장한 각오 때문인지 다음 해 4월 5일, 그의 나이 37세 되던 해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하게 된다. 이때 몸과 마음이 함께 떨리고 이상한 기운에 휩싸이면서 돌연 바깥에서 신비한 존재의 음성을 듣는다.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고 말로 형언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비한 목소리가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다. 또 묻기를 "그러면 서도(西道)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하였다. 이에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靈符)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仙藥)이요 그 형상은 태극(太極)이요 또 형상은 궁궁(弓弓)이니, 나의 영부(靈符)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呪文)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長生)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고 하셨다. (『東經大全』, 「布德文」)

여기서 그는 한울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칠 도법으로서 '영부(靈符)'와 '주문(呪文)'을 받는다. 이 한울님체험은 약 6개월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 수운은 이 과정에서 삶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체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참된 길(無極大道)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보국안민의 진정한 방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동학 성립은 수운의 경신년(1860) 신비체험으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동학이 완전히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다시 일 년이 지난 후였다. 수운 자신의 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울님 체험 이후 바로 포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해 동안은 닦고 헤아리는(修而度之)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수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체험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결과로 나온 것이 '시천주(侍天主)'이다. 일년여의 반성적 성찰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검증한 수운은 이제 자신의 깨달은 바를 전하기 위한 절차와 도법을 정하고 비로소 포덕을 시작한다. 이때가 1861년 6월경이다.

용담정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를 전해주니 용담에 명인이 났다고 소문이 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9~10월에 이르자 사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났다. 그러자 유생들의 입에서 비난의 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관에서도 이단으로 지목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포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수운은 부득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제자 한 사람을 데리고 11월에 길을 떠나 이곳저곳을 거쳐 12월 하순경에 전라도 남원에 도착했다. 교룡산성 밀덕암(密德庵)에 여장을 풀고 은적암(隱寂庵)이라 이름한 다음 39세 6월까지 여기서 은신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여섯 편의 글을 썼다.

남원에서 다시 경주로 돌아온 것은 39세(1862) 6월 하순이다. 8월이 되자 다시 소문이 퍼져 포교가 늘어났다. 그러자 관에서 수운을 체포하였다. 9월 29일 수운이 경주 영장에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2~3일 후 교도 6~7백명이 모여들어 격렬히 항의하였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관은 5일 만에 수운을 석방하고 말았다.

풀려난 수운은 11월부터 흥해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다가 12월 30일에 최초로 교단 조직을 하게 되었다. 16개 접주를 임명하고 교단의 단위조직으로 접(接)을 조직했다. 접은 도를 전해준 사람과 전해 받은 수도인의 인맥을 30호 내지 50호 단위로 조직한 신앙공동체이다.

1863년 봄이 되자 수운은 다시 용담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교화와 포교에 전념하였다. 경주관아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탄압할 힘이 없어 조정에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진정만 올렸다. 수운은 머지않아 위험이 닥쳐올 것을 예측하고 7월 23일 수제자인 최경상(崔慶翔, 나중에 이름을 시형(時亨)으로 바꿈)에게 북도중 주인으로 임명하고, 8월 14일에는 도법을 물려주었다. 이때 수운의 나이는 40세였고, 최경상(시형)은 37세였다.

조정은 11월에 수운을 체포하기 위해 드디어 선전관 정운구를 경주로 파견, 12월

10일 수운을 체포하였다. 수운은 서울 근교 과천까지 압송되다가 철종의 국상으로 인해 대구로 되돌려져 다음해(1864년) 1월 20일부터 심문을 받았다. 이에 수운은 “등불이 물 위에 밝았으니 의심이 없고,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 있도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좌도난정’의 죄로 1864년 3월 10일 대구 장대에서 참형을 받고 순도하였다.

수운의 사상은 한문경전인 『동경대전』과 한글가사인 『용담유사』의 두 권에 다 들어 있다. 대부분의 종교 창시자들의 경전은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인데 반해 위의 두 책은 모두 수운 자신이 저술한 것이다.

『동경대전』은 해월이 1880년 5월에 강원도 인제에 경전간행소를 세워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동경대전』은 한문 경전이므로 주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자신의 득도체험과 주문 풀이, 참된 경천의 길과 수도할 때의 마음자세 등을 담고 있다. 내용으로는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수덕문(修德文)', '불연기연'(不然其然), '참회문'(懺悔文), '축문'(祝文), '주문'(呪文), '시문'(詩文) 그밖에 운문체의 다양한 문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담유사』는 해월이 1881년 충청북도 단양군 남면 샘골에 있는 여규덕(呂圭德)이라는 도인의 집에 간행소를 차려놓고 간행한 것이다. ‘용담(龍潭)’ 이란 말은 곧 수운을 지칭하는 말이며, ‘유사(遺詞)’는 ‘남긴 노래’라는 뜻으로, ‘용담유사’는 ‘용담 선생께서 남기신 노래’라는 의미이다. 한글 가사체라는 문학적인 형식과 운율적인 음악의 형식을 취한 경전으로서 수운의 생애와 득도시의 상황 또는 한울님과의 문답, 득도 후의 기쁨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자들에게 동학의 핵심 가르침을 전하는 한편 정심수도正心修道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스승의 간절한 심정도 잘 나타나 있다.

3. 동학의 핵심,‘시천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학은 수운의 결정적인 종교체험과 그 체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나온 ‘시천주(侍天主)’의 자각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시천주를 통해 이전 사유와는 전혀 다른 동학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수운은 시천주를 자각함으로써 모든 사람 속에 한울님이 모셔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한울님을 마치 부모님처럼 모시고 공경하는 것이 참된 경천임과,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한울님을 모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 시천주야말로 동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모실 ‘시’ 한 글자에 동학의 요체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수운은 이 ‘모심’(侍)’을 다시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모심이란 안으로 신령(神靈)이 있고 밖으로 기화(氣化)가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각기 그것으로부터 옮기지 않는 것이다.”(『東經大全』,「論學文」, “侍字,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各知不移者也.”)라고 풀이 하였다. 모심을 세 가지, 즉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각지불이(各知不移)’로 풀이하고 있다. 이 의미는 우리는 누구나 몸 안에 한울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성, 영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며(內有神靈), 밖에서는 기운이 들어와 몸을 만들어놓고, 그 몸 안팎에서 기운은 끊임없이 작용, 변화, 생성, 교감함으로써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外有氣化). 그래서 이 안팎으로 존재하는 신령과 기화로 작용하는 생명의 실상을 사무치게 깨달아 그것을 어기지 않고 참으로 모시고 살리는 실천(各知不移)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모심의 세 측면이다.

다시 조금 더 부연하자면, 내유신령은 한울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셔져 있음”의 내재성 강조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용담유사』에서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말가”라고 하였다. ‘사근취원(捨近取遠)’은 가까운 걸 버리고 먼 것을 취한 다는 뜻이니, 한울님을 멀리 저 하늘에서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종교전통에서는 내면의 빛, ‘참나’, 신성한 지혜, 성품 등으로 얘기해 왔던 것이다. 외유기화는 나라는 생명은 나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지극한 기운으로부터 왔고, 지금도 그 기운 안에서 전체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생명의 관계적 실상에 대한 자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각지불이’는 인간의 안팎에서 신령과 기화로 작용하는 존재와 생명의 실상을 잘 알아서 모든 인간들이 그런 신령성에 바탕해서 전체 생명과 교감하면서 모든 생명을 모시고 살려야 한다는 실천적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천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모셔져 있다’는 존재론적인 의미와 내 안에 모셔져 있는 한울님(전체생명)을 마치 부모님 모시듯 ‘잘 모셔야 한다’는 신앙적.실천적 의미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신이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내 안에

영으로 모셔져 있는 거룩한 '님'을 실제로 느끼고(氣化之神), 그 느낌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학은 수운의 시천주 자각으로 탄생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의 사상은 이제 나의 몸이 한울님을 모신 거룩한 성소(聖所)라는 인식과 함께,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한울님을 모신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인식을 낳았다. 이런 몸의 중시와 시천주의 인식의 확대는 인간 개체에 대한 중시로 발전하여 개인 하나 하나가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한울님을 모신 거룩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인식되었다.

시천주 개념이 정립됨으로써 비로소 동학은 전통사상, 서학과 차별성을 띠게 되었고 그 정체성을 찾았다. 수운은 이 시천주 사상을 통해 이기심(各自爲心)에 빠진 당시 사람들에게 참된 인간의 길은, 본래 인간의 내면에 모셔져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한울님을 나의 삶의 주체로 모시고 섬기는 삶임을 밝혔다. 그것은 단지 외재적인 한울님에게 의존하는 타력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신령성과 신성, 또는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길이었다.

4. 동학의 한울님

수운은 명시적으로 우주론이나 신관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그는 우주가 본래 혼원한 하나의 지극한 기운(至氣)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다. 기는 모든 만물을 생하게 하는 근원적 질료이자 우주와 만물이 생성 변화되게 하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것은 성리학의 기 개념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동학의 기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은 기가 곧 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기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실재이기도 하다는 점이 동학의 특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지기의 기운은 나의 몸을 생해놓고 끊임없는 기화작용을 통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내 안에서는 정신활동이 가능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간구함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영이기도 하다. 그 내 안에 있는 영을 동학에서는 내유신령, 한울님(천주)라고 한다. 그러므로 천주는 지기와 따로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지기의 정신적.영적인 속성을 인격화한 용어로 볼 수 있다.

수운의 한울님 관념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수운이 처음 한울님과 문답이 열렸을 때의 신관념은 다분히 인간의 마음에 감응하고 때로는 가르침도 내리는 인격적인 존재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운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 바탕해서 인격적인 의지를 가진 초월적.절대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울님과 수운의 문답은 일회에 그치지 않고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거의 매일 한울님과 문답을 주고받은 수운은 마침내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다. 그는 한울님이 저 옥경대(玉京臺)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는 한울님이

우리의 의식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특정한 장소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는 절대자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특히 결정적인 자각의 계기가 된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울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초월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모셔져(侍)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연히 깨닫는다.

그래서 수운의 신관은 일면적이지 않고 중층적이다. 초월적인 인격신의 모습도 있고, 우주에 편재해 있는 지기의 기운이기도 하며, 내 몸 안에 모셔져 있는 영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한울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는 신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나온 것이다.

신에 대한 이해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신앙의 방법, 또는 수도의 방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수운은 처음에 한울님(천주)를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했지만 체험을 통해 차츰 천주를 초월적 인격체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대신 신을 내면에 모셔져 있는 영(內有神靈)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따라서 동학의 한울님 모심은 내 안에 모셔져 있는 한울님을 체험하고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악(惡)의 문제이다. 신 존재 증명과 관련된 가장 골칫거리가 바로 이 악의 문제이다. 악의 존재가 신의 전지전능함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동학에서는 이 악을 어떻게 보는가?

수운 역시 현실적 악의 존재는 인정한다. 다만, 악의 존재가 신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다. 수운은 한울님을 '불택선악(不擇善惡)'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 묻기를 "도를 배반하고 돌아가는 자는 어째서입니까." 대답하기를 "이런 사람은 족히 거론하지 않느니라." 묻기를 "어찌하여 거론하지 않습니까." 대답하기를 "공경하되 멀리할 것이니라." 묻기를 "입도할 때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으며 도를 배반할 때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대답하기를 "바람 앞의 풀과 같은 것이니라." 묻기를 "그렇다면 어찌 강령이 됩니까." 대답하기를 "한울님은 선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 외에도 '불택선악'하다고 표현하는 구절은 여러 번 나온다. 불택선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구절은 일차적으로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至公無私] 한울님 대한 표현일 것이다. 지공무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악에 관계없이 한울님이 간섭함으로써 생명이 유지되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다(手足動靜)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택선악의 관념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신관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인 관념 속의 신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화를 내리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간섭하고 주재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했을 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수운의 한울님 관념에서 불택선악은 이런 물음을 불식시킨다. 한울님의 간섭과 감응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간구함에 따라서만 행해지는 것이지 그 자체 의지로서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응하는 기운과 존재는 있지만 그 선악과 길흉의 방향성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다.

이는 수운이 이해하고 있는 한울님을, 적극적으로 선을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과 기운에 따라서만 감응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과 악, 성하고 쇠하는 것 모두가 전적으로 인간이 천도의 이치를 알고 순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 된다. 이렇게 수운이 이해한 한울님은 자의적으로 인간사에 간섭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연한 이치와 인간의 의지(마음)에 내맡기는 '불택선악의 한울님'이다. 때문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인간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하늘의 운명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게 된다. 불택선악은 인간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인간이 삶과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 실천과 역사의 창조는 신의 심판이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동학이 가진 인본주의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 개념은 자연히 '무위이화(無爲而化)'의 개념과 연결된다. 수운은 주문 해석에서 '조화정'의 '조화'를 '무위이화'로 해석하고 있다. 조화가 무위이화라는 것은 세상 만물의 생성변화가 한울님의 임의의 간섭과 주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기의 운행원리와 감응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안에서 한울님은 생명으로서, 영으로서, 기운으로서 우주의 운행과 만물의 화생에 참여(參與)할 뿐이다. 그래서 수운은 무위이화를 자연한 이치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그 성품을 거느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요" (『동경대전』, 「,논학문」)

그러므로 이제 인간의 역할은 우주 운행의 자연한 법칙에 따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 때를 알아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해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기의 무위이화와 천주의 조화 사이에서 성인은 그 천도의 이치를 알아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에 순응(敬天命順天理)'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수운이 깨달은 '자연한 이치'가 곧 천도(天道)요, 무위이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천도에 대한 자각을 통해 천지와 더불어 자각적.능동적.창조적으로 동사(同事).동역(同役)함이 인간의 길(人道)이며, 이것을 밝

힌 것이 바로 ‘동학’이라 할 수 있다.

… 중략 …

5. ‘다시개벽’의 새 세상

개벽사상은 시천주와 더불어 동학의 가장 핵심 사상이다. 동학이 급속도로 퍼진 것은 ‘개벽’사상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운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 정해 국태민안 할 것이니”(~~용~~담유사김 「몽중노소문답가」)라고 하여 ‘다시개벽’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천명하였다. 수운은 ‘개벽’의 용어 앞에 ‘다시’를 붙임으로써 당시가 천지창조와 같은 거대한 열림이 다시 한 번 이룩되는 시기라고 파악했다. 이때 개벽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와 그것에 수반하는 엄청난 변혁’을 의미한다.

이후 개벽사상은 동학을 시작으로 증산교, 원불교 등 한국 자생종교들의 공통된 사상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종교의 창시자들은 하나같이 당시가 우주적인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으로 나눠지는 대전환점이라고 보아 이런 대전환의 시기를, 또는 그런 대변혁 자체를 ‘개벽’이라고 했다. 개벽사상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위기의식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염원과 미래의 이상사회에 대한 대망(待望)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벽사상은 항상 종말론으로 해석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개벽사상은 삼정의 문란과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 신음하던 19세기의 민중들에게 곧 세상이 바뀌고 좋은 시절이 도래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특히 개벽사상은 공히 한반도가 앞으로 변혁된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설파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이는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아니었지만, 나아갈 바를 잃고 신음하던 민중들에게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것이 당시 한국 신종교들이 변혁사상으로서 반봉건.반외세의 민족.민중 운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개벽을 우주적인 원리로서 신에 의해서 예비 된 머지않은 시기에 필연적으로 도래할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종교라는 것이 원래 이상향에 대한 열망을 갖기 마련이지만 구체적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것을 우주의 원리상 반드시 도래할 역사의 필연적이고 과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삶의 건강한 토대를 무너뜨리고 종말론으로 빠지게 된다.

때문에 수운의 개벽사상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 사상이라기보다 정신개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즉 시천주적 삶으로의 변혁을 의미한다. 모든 존재가 한울의 신령한 생명의 본성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사람을 한울님처럼 높일 뿐 아니라 뭇 생명마저 신성한 존재로 공경하는 한울마음으로의 전면적 전환, 그로 인한 완전한 인격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운이 받은 '영부'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돈화는 영부를 '창조심'이라고 하여, 한울의 마음과 수운의 마음이 온전히 부합되어 여합부절(如合符節)된 의미를 취한 것이라 하였다. 이 영부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과 사회적 질병의 치유를 포함한다.

영부는 대우주 대생명의 원천을 상징한 것이며, 개체의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 것이다. 한마디로 생명의 상징이며 우주의 약동불식하는 기운의 상징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들어와 있는 신령하고 신명한 마음을 돌이켜 회복하고 나의 기운을 화하게 하여 그 마음과 기운으로 자기는 물론 주변을 모시고 살리는 거룩한 사회적 기화(氣化)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 영부의 의미라고 하겠다. 청빈하되 온화한 마음을 회복하여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생명과 영성의 자각을 통해 모심과 살림의 거룩한 사회적 성화(聖化)를 이루는 것, 이것이 동학이 꿈꾼 후천개벽이다. 그러므로 동학은 수도를 바탕으로 인류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종교운동이며, '개벽'은 시천주의 모심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생활양식의 전면적 전환, 인류문명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치유'인 것이다.

2013 보은민회

“전환,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하여”

120년 전 오늘 충청도 보은 땅에 수만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후천개벽의 열망이 폭포수 같은 함성으로 울려 퍼집니다.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깃발이 거센 파도처럼 펄럭입니다.

보은취회를 두고 조선의 관리는 ‘민회(民會)’라 하였습니다. 폭압과 굶주림 속에서 지금껏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름 없는 민초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칼과 창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창의(倡義)의 깃발을 걸고 백성을 편안케 할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수만명 시천주(侍天主) 주문소리가 산과 들에 메아리쳤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염원이 푸른 하늘에 새겨졌습니다.

2013년 오늘 다시 보은취회를 생각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사회와 동아시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21세기 한국사회와 지구촌은 대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생태계와 경제시스템은 붕괴의 끝을 향해가고 있고, 산업문명 이후 자본주의 이후가 공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대의 개벽은 ‘전환’입니다. 심장을 갉아먹고,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며, 영혼을 파괴하는 현재의 삶과 사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회도, 생태계도, 우리의 삶도 바꾸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합니다. 다른 삶, 다른 세계는 가능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2013년 4월 보은에서 삶의 전환, 사회의 전환, 문명전환의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생명평화의 깃발이 내걸립니다. 문명전환의 열망을 새로운 삶과 사회에 대한 비전과 의제로 만들어냅니다. ‘보은민회’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일시: 2013년 4월 27일(토) 오후 3~6시
■장소: 충북 보은군 장안면 면사무소
■주관: 모심과살림연구소
■진행
○사회: 박소정(2013대한민국민회 공동조직위원장, 순천아름다운가게 이사장)
○제언: “전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민회: 다 함께

2013 보은민회

민회와 생명평화운동

일찍이 생태정치학자 故문순홍 박사는 "민회는 생명운동의 정치형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을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생명공동체에 대한 열망이라 말한다면, 민회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에 대한 비전과 의제, 행동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회는 '백성들의 이야기 모임'입니다

첫째, 민회의 주인공은 백성들입니다. 백성(百姓)이란 백 가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모임, 민회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모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교수와 사무총장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자들만 모이거나 어른들만 모이는 건 참다운 민회가 아닙니다. 동학 보은취회 이전, 프랑스혁명 이전에 백성들은 모이는 것 자체가 '절대불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120년전 보은 땅에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자신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당당히 외쳤던 것은 가히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둘째, 민회는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신권과 왕권이 지배하던 시기에 백성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자체가 불온시 되었습니다. 민회는 사상의 해방공간입니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기반하여 공동체가 갈 길을 의논하고 지혜를 모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셋째, 민회는 모임입니다. 민회는 결사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물코와 그물코가 연결된 연결망(네트워크)과도 또 다릅니다. '마당(場)'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플랫폼입니다. 모이고 흩어짐(聚散)이 자유롭고 들어오고 나가는(出入) 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있고 서울행과 부산행이 있듯이 민의(民意)의 방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유·평등·박애' 혹은 '생명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 말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경청과 배려, 골고루 이야기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민회의 핵심은 '깊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 4월 왜 다시 민회일까요? 우리 시대에 민회는 어디서나 가능하고 백성들의 이야기 모임은 제한 없이 열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대를 넘어 우리공동의 미래를 열 새로운 보편 가치에 대한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 화석화된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보다 깊고 넓은 민주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과 사회의 주인공들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필요성을 관통하는 하나의 열쇠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것입니다. 문명전환기의 민회, 생명평화운동의 민회의 결정적 특징은 바로 '마음'입니다. 근대적 민회의 특징을 한 마디로 '공론(公論)'이라고 말한다면, 문명전환의 민회의 핵심은 '공심(公心)'입니다.

공심은 공감대이기도 하고 보편적 가치이기도 합니다만, 나아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하나 됨,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심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습니다.

민회를 보통 공론장이라고 말합니다만, '공(公)'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신을 모시는 제단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마당을 뜻하는 '장(場)'이라는 글자도 '신을 모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도 운동'장'에도 신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의 마음, 우주의 마음, 천지공심(天地公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안의 신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국안민과 척양척왜라는 그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보은취회 기간 중에는 매일 매일 수만 명의 시천주(侍天主) 주문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보은취회는 시천주의 마음, 모심의 공심에 바탕하여 표출된 열망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서유럽에서는 다수결과 합리성에 기댄 표층 민주주의를 넘어서 '깊은(deep) 민주주의'와 '공감/합의(consensus) 민주주의'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선 화쟁(和諍) 사상과 화백(和白)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요컨대 민주주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공심'입니다.

민회는 생명평화공동체 만들기 과정입니다

2013년 4월의 '보은민회'는 120년 전 '보은취회'의 마음을 '지금 여기서' 이어가면서 또 넘어서야 합니다. 계승해야 할 것이 '공심에 기초한 공론'이라면, 극복해야 할 것은 '요구사항'에 머문 주체성의 한계입니다. 보은취회의 민초들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막 자아를 깨우친 어린이처럼 임금과 왕에게 청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변혁 시민운동처럼 제도와 정책의 변화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민회운동의 주체는 다릅니다. 이미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전환의 주체, 새로운 삶과 사회의 주인공은 바로 나와 우리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

습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안의 천지공심을 바탕으로 이심전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민회는 구조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아내고 키워내고 또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마을에서 지역 안에서, 또 마을과 지역을 횡단하여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모이고 의논하고 또 변화시켜냅니다.

민회운동은 생명평화세상 만들기입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2013 보은민회

전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3보은민회> 제안문: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한 전환의 기획"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몸을 던지기 전 어머니에게 남긴 메시지라고 합니다. 어린 영혼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들의 마지막 편지와 차가운 주검을 접한 어머니의 참혹함은 또 어땠을까요? 최근 잇단 청장년 편의점주의 죽음도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도 힘들었던 형편에서 가장으로써의 책임은 얼마나 곤고하고 무거웠을까요?

우리 시대의 개벽은 '문명전환'

"마치 바람이 일며 조수가 솟구치듯, 구름처럼 메이고 안개처럼 모여들어 뜻밖에 수만이 되었다." 1983년 4월 보은 장내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경기도와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온 2만여 명 백성들이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개벽세상의 열망이었습니다. 폭압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염원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사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으면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사회, 지속 불가능한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한국사회와 지구촌, 우리의 삶과 생명세계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근대 300년 산업문명과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후붕괴와 해양산성화로 지구생명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밥상과 도시를 핵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공동체와 인간성을 파괴하여 영혼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도와 권력의 문제로 보기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문명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문명 그 자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그것을 지지하고 또 지탱하는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불가피합니다. 개벽적 변혁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삶과 사회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후천개벽'은 '문명전환'입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정치개혁'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정책혁신’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삶/생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도 답이 아닙니다.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경제(이코노미)를 품고 있는 생태계(에콜로지)가 회복불능 상태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삶의 전환입니다. 물질생활의 보장이 아니라, 온전한 삶, 즉 웰빙(wellbeing) 혹은 ‘참 삶’을 되살려야 합니다.

전환은 세상을 뒤집어엎고 옛 것을 모두 철폐하는 게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무게중심의 이동입니다. 가치의 무게중심, 삶의 무게중심, 체제의 무게중심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전환의 한국적 열쇠 말은 ‘생명평화’

물질개벽에서 정신개벽으로.

양(陽)개벽에서 음(陰)개벽으로.

동세(動世)개벽에서 정세(靖世)개벽으로….

120년 전 시대의 선각들은 후천개벽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세계와 참 삶의 근본을 묻고 또 답하고 있습니다.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을회문명(弓乙回文明)”, ‘궁을(弓乙)’, 즉 ‘생명의 이치’를 깨달으면 문명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깊은 마음의 약동을 알아차리면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초입 우리는 개벽적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 지구촌에서 문명전환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전 지구적 문명전환운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물질주의에서 전일적인 세계관으로.

이성에서 영성으로.

이코노미(economy)에서 에콜로지(ecology)로.

가부장적 공동체에서 가모장적 공동체로.

돈벌이경제에서 살림살이경제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홀로 살기에서 더불어 살기로…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20년 전 한국의 개벽운동과 120년 후 서유럽의 문명전환운동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이 거의 똑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 깨달음/영성, 여성, 공동체. 동서를 막론하고 근대문명 이후, 산업문명 이후, 자본주의 이후의 열쇠 말은 '삶' 혹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생명의 근본자리 '깊은 마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적 표현이 '생명평화'입니다. 온 생명의 평화, 평화로운 생명공동체입니다. 균형있고 조화로운 생명세계의 복원입니다. 삶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힐링 신드롬과 협동조합 신드롬, 귀농귀촌 신드롬은 전환의 한국적 신호들입니다. 분열과 분리의 극단은 죽음입니다. 그때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기 전 치유가 절실합니다. 고단한 영혼, 상처 입은 생명을 치유하는 힘은 생명의 근본자리로 '돌아감'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문명에 의해 찢겨지고 갈라진, 나와 이웃, 나와 자연, 자아(ego)와 자기(self)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을 통해 더불어 삶을 일구고, 귀촌귀농을 통해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고 세계를 치유해야 합니다. 자본, 경쟁, 속도에 의해 파괴된 영혼을 치유하고, 사회와 경제와 국가를 치유해야 합니다.

전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0년 전 보은취회의 사회적 열망은 '보국안민'과 '척양척왜'로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6개항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① 일본과 서양세력을 배척할 것, ② 민씨척족세력을 축출할 것, ③ 호포(戶布)를 혁파할 것, ④ 악화인 당오전을 혁파할 것, ⑤ 찧지 않은 벼로 세금을 수납할 것, ⑥ 외국산 면직물을 유통시키지 말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 오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120년 전에 6대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2013년 오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2013년 4월 27일 보은민회의 의제입니다.

120년 전 보은취회의 민초들은 아직 소극적이었습니다. 임금에게 호소하고 관리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주인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명전환은 누구에게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 의지할 수도 없고, 시장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독재 권력과 맞서 싸우는 '대항운동'도 절실한 때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 정부에 뭔가를 요구하는 '대변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환운동의 본령은 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대안운동'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전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집단지성이라고 해도 좋고, 중지(衆智)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또다시 닥칠지 모를 살 처분이 걱정입니다. '정전(停戰)' 60년을 영속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학교와 노인요양병원도 살펴야겠고, 죽어가는 농업도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전환의 내용은 무엇인지, 혹은 1년 내에 아니면 3년 내에 할 일은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또한 전환의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전환마을을 만들고, 어떻게 전환네트워크를 형성할지 의논해보고자 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사회에서 생명평화공동체로!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보은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전환이 희망입니다."

2013 보은민회의

새로운 전환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 보은 민회의 현장 -

진행 : 박소정(2013 대한민국민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순천아름다운가게 이사장)

백성은 재미있는 곳에 모이고 마음으로 얻은 곳에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하고 손잡고 "꽃동네 새동네" 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뜰아래 반짝이는 햇살같이/창가에 속삭이는 별빛같이/반짝이는 마음들이 모여 삽니다 /오손도손 속삭이며 살아갑니다 /…후략

이제 좀 마음이 풀리시죠? 그동안 참 힘든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는데 참 힘들었겠죠? 보은 민회에서 다시 한 번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서로를 환영합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앉아주세요.

저는 동요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전환을 하려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생명평화 어울림을 생각하면서 냇물아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 넓은 세상 보고 싶어 강으로 간다

우리 모든 존재는 순환으로서 존재해서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노래에서 아름다운 동요말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민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전환에 앞서 조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율이라는 노랫말을 들어볼까요?

2013년 보은 민회 전환,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하여… 딱 맞는 노래 아닌가요?

잠자는 하늘 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 알고 있지 꽃들은 / 따뜻한 오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 알고 있지 철새들은 /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중략…/ 내가 믿고 있는 건 / 이 땅과 하늘과 어린 아이들 / 내일 그들이 열린 가슴으로

자,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 번치시고요.

마음이 열리셨습니까?

그럼 2013년 보은민회 전환,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하여 우리시대의 개벽은 문명전환, 전환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120돌동학보은취회에 참가한 각자가 함께 만들어갈 민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의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은민회 참가의 마음으로 120년 전 이곳에서 보은 민회를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 모여 어떻게 민회를 했을까? 그때 어떤 마음들과 뜻을 세웠을까 보은취회120돌을 맞아

그 정신을 상기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시 민회를 하자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회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고 그 소리를 모아 우리의 뜻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주제를 잘 파악하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회를 열기 위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제 우리마음에 120년 전 우리의 의로운 선조들은 이곳에서 어떤 뜻을 모았을까요.

120년 전의 향이라고 생각하고 향을 피우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2분만 명상하고 민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회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지만 정해진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제로 정해진 것에 소주제를 정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토론을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를 말씀해주세요.

(의제를 정하고 각자가 토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를 구성하여 장시간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의제별 토론 결과가 이루어졌다.)

제1주제 : 밥

참여자 : 무위당 학교 학생들

토론내용 : 희생과 배려로서의 밥, 스토리푸드, 먹을거리의 익명성을 극복하고 밥이 하늘이 되는 이야기를 공동체로서 공유. 생명과 무생물 모두가 건강하게 순환해야 한다.

같은 밥(인스턴트), 남의 밥(식량의존), 가짜밥(가공, 첨가물)을 극복하고 올바른 밥을 주체적으로 나누어 먹자.

행동할 계획 : 까치밥을 남겨두던 조선의 마음. 다른 생명을 존중한다. 희생하고 배려

하는 밥.

제2주제 : 휴전협정 60년, 정전에서 종전으로

참여자 : 김단비, 김영재, 임우남, 김용휘, 주요섭, 이한솔, 배우형, 강호석

토론내용 : 60년이 지났는데도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북쪽과 하나로 묶여야 한다. (DMZ평화생명동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여러 단체들과 동참하여 평화를 이루자.

행동할 계획 : 평화교육, 인간 띠 잇기, 대화

여러 가지 평화행사에 참여한다.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알린다.

제3주제 : 탈도시

참여자 : 문병채, 이강록, 임우남, 임진철, 이새보미야

토론내용 : 귀농의 유의사항, 정신자세, 농촌의 이로운 점 등을 이야기함.

행동할 계획 : 전환, 오직 정신의 개조만이 필요. 지금 행복한가를 깊게 명상하자.

제4주제 : 마음공부 어떻게?

참여자 : 김성순, 박맹수, 유정길, 황도근, 박한용, 이현주, 임우남, 이강은

토론내용 : 심화->기화(내유신령 -> 외유기화)

기화의 힘(순환, 연기, 깊은 자각)

갈등의 시대에 해결의 지혜. 나를 내려놓고 놀아보기 ->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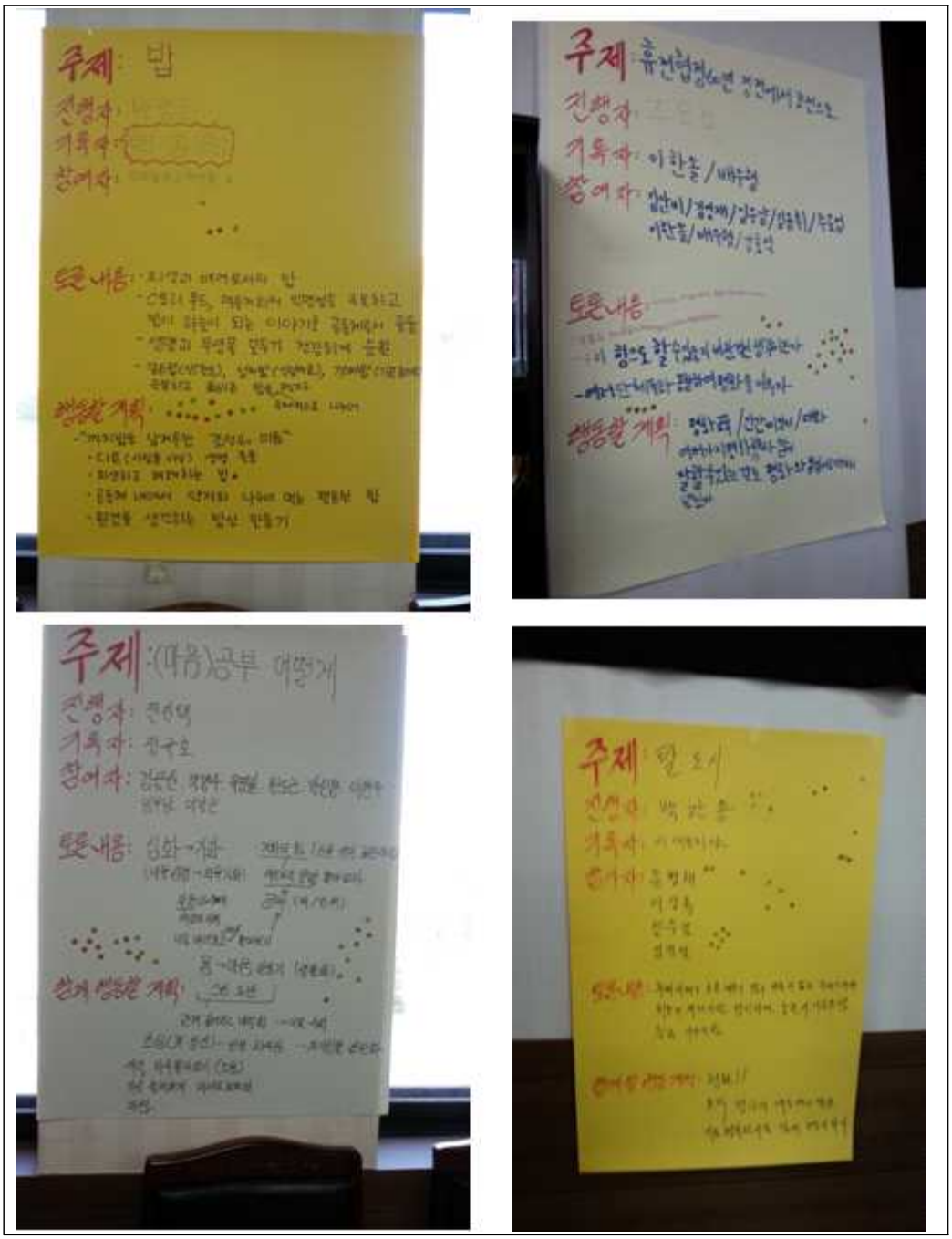
몸 - > 마음 만들기(생활화)

행동할 계획 : 관심이 깊어지고 내적힘을 이웃과 사회로

초심(뜻, 정신) - 반복, 되새김, 자기성찰

저녁하루 돌아보기(5분)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다보는 것.



4개의 주제를 해석해보니, 마음, 밥 생활, 탈도시, 휴전협정. 큰 틀의 체제의 문제입니다. 참여하신 한분 한분이 가야할 곳을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의 결과를 발표하고 각 조의 주제를 놓고 오랜 시간 논의과정을 거쳐, 4개의 주제 중 2013년 대한민국 민회를 통해 모두가 논의해야 할 의제를 결정하였다.)

2013년 보은민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었던 주제는 “휴전협정 60년, 정전에서 종전으로” 입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 실천하겠습니다.

끝으로 “모심과살림연구소” 주요섭 소장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2013 보은민회 마치겠습니다.

주요섭입니다.

제가 언젠가 서양의 명상 책에서 본 글이 기억납니다.

“나를 바꾸면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삶과 삶의 전환이라는 것이, 정부나 정권에의 바람이 아닌 내가 변하고 이웃과 함께 삶 자체,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동학보은취회가 꿈꾼 120년 전의 열망을 실현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마을로 돌아가 씨앗을 뿌려서 곳곳마다 퍼트려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간 함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 보은민회를 마칩니다.

뒷이야기) 2013년 보은민회에서 함께 나눈 담론들

- 민회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최소한의 체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간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착역이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토대가 서구사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인간을 대하고 생명을 대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에서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신라의 화백회의 제도를 통해 원로들의 회의에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없이 토론하고 중재를 모아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원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보다는 한사람, 한사람 의견을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인디언들은 의제를 올려놓고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갖고 ‘그분’과 만나서 그 목소리를 내 놓는 다고 합니다. 영성인 것이죠. 단기간에 의사결정은 어쩔 수 없지만, 상당기간에 걸쳐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이 학문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사회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서양의 방식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택한 방식들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안학교 아이들이 민회에 참여했습니다. 보은민회의 기초가 참 튼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심을 공부하기 위해 강렬한 의지로 시작되고 계속 모임을 함께하는 것처럼 민회의 출발점인 보은민회에 대한 깊은 고민을 놓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오래전부터 속리산은 관광명소였는데, 지금은 낙후지역으로 변모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시민단체가 학자들과 지방분권운동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워크숍을 하고 여러 현안들을 논의 해 왔는데요. 10여년 지역운동을 해 오면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권형 체제를 만들어 낼지 고민이 계속 있고 모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체제가 농어촌을 황폐화 시키고 이제 극단적인 농어촌에서 실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이 국민들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회와 함께 지방분권운동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 틀을 바꿔야 합니다. 민회는 정치적이고 오늘 이 순간에 현안들을 놓고 전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저는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커지고 어떠한 매스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뒤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민회를 통해 세상을 제대로 보는 수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성장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심화기화 이대춘화,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여 봄같이 화하기를 기다리라.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 해월선생님 같은 삶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 지역마다 새 봄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듯이 좋은 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가장 좋은 모임은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끼리 민회를 만들어서 이야기의 씨앗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환, 새로운 사회운동의 길[1)]

-'생명'의 눈으로 본 2013년 지구촌과 한국의 사회운동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근본적인 변혁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위기를 맞아 낡은 옛 것을 떼어내는 과정이며,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사이의 국면, 즉 '이행의 시간'은 따라서 매우 긴장감이 넘친다. 이런 한계 영역에서는 낡은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새것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국면이며 통제불능의 국면이다. 또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낡은 세계상과 정체성이 해소되어버리는 국면이기도 하다. 우리는 **낡은 것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역할**을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산파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비록 슬픔과 불안 그리고 고통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우주적 시간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생태철학자이자 불교 지도자이며 평화운동가인 조안나 메이시라는 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환기'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직접적인 역할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낡은 것을 모조리 파괴하고 그 폐허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수명을 다한 질서와 제도는 그 몫을 다했으므로 잘 갈무리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높은 빌딩을 짓는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나비가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펴듯,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입니다. 2013년 오늘 생명운동은 새로운 문명의 출산을 돕는 '산파'가 되어야 합니다.

대선의 충격, 길을 잃은 한국의 사회운동

"전환의 시대, 생태순환사회로" 2013년 2월 1일 열린 부산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 정기총회장에 내걸린 슬로건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환경운동을 이끌어왔던 (전국)환경운동연합이 '20주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총회에서 '전환'과 '생태순환사회'라는 화두가 내걸린 것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그들의 시대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

1) 모심과살림연구소 격월간 정세와 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6호(2013.2)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재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운동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대선 패배의 깊은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선평가회'조차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2013년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는 '멘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무거운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신년사에서는 '문명의 전환'을 이야기할 정도로 희망과 미래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선 패배를 반성하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싸우자고 하지만, 울림이 없이 공허할 따름입니다. '2013년 체제론'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론도 김빠진 맥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미래가 보이기 않기 때문입니다. 일회적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전선 자체가 무너진 셈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가 1대1 구도로 첨예하게 맞붙은 마지막 전투가 될 지도 모릅니다. 구도 자체가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물론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적 담론과 실천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다자 구도, 복합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보아도 광주항쟁 이후 30년이 넘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는 근대화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듯 했지만, 사실은 공존관계였습니다. 서유럽에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때론 싸우고 협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87년 6월 민주항쟁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년 집권을 거치면서 큰 틀에서는 이미 한국형 근대국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좌/진보도 우/보수와의 공존을 선선히 인정하든지, 전혀 새로운 진보의 길(정확히 말하면 진화와 성숙의 길)을 제시하든지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진보의 권력 획득을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근대체제는 이미 완성되었고 진보와 보수는 체제 내 권력투쟁을 해온 것입니다.

복지국가 주도권 싸움만으로는 새로운 체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서구형 복지국가도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대부분 이루어진 셈입니다. '진보적 복지국가'와 '보수적 복지국가'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체제전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2013년 체제론' 역시 한반도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안경을 벗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다른 관점으로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검정색 선글라스로 보는 세상은 흑백 두 개의 세계뿐입니다. 울긋불긋한 봄꽃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총천연색의 전일적 생명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개벽에 버금가는 지구적 전환기에 즈음하여 국가 중심의 '역사'라는 근대의 발명품마저도 낡은 것이 됩니다.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는 '역사적 구조와 체계(historical

structures and systems)'마저도 좁디좁은 관견(管見)이 됩니다. 지구생태계의 관점, 생명의 시선, 우주적 공공성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볼 때입니다.
이제 한국의 사회운동은 글로벌 생태위기와 자본주의 체제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불가능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당과 노동조합, 학교와 종교기관 등등, 근대적 구조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주(周)나라 말기에 무너지는 옛 질서를 보며 공자가 정명(正名)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한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고 정당은 정당답지 못하며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탈학교, 탈정당, 탈도시, 탈종교... 기존의 질서로부터 탈출과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출산을 준비하는 글로벌 전환운동

탈출과 전환의 중심에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이 오롯이 서있습니다. 문명전환의 파동과 에너지는 돈(기업)과 권력(국가)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본원적 생명에너지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운동 자체가 먼저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운동의 목표 이동 혹은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감시와 기업감시와 환경보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재인간화(신인간)과 새 문명을 모색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운동이 절실합니다.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 '문명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분명하다면 오늘 아침 한 끼의 식사와 마당청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전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GTI[2]라는 단체는 문명전환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먼저 사회운동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전망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불가능한 세계에서 지속가능세계로의 전환, 물신숭배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로의 전환 말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위한 '전일적인 틀(holistic framework)'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 지렛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새로운 비전 ②시스템적 사고 ③새로운 담론의 발전 ④새로운 체제의 파종과 육성 ⑤새로운 지구시민운동의 지원 ⑥시스템적 시민사회조직 전략을 위한 물적 토대의 확보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물론 비전입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비전 찾기는 우리 안의 북극성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GTI와 서유럽 전환운동의 비전은 '인류사적 성숙'과 '지속가능한 세계'입니다. 이를테면 인류는 지금 사춘

2) GTI는 Global Transition Initiative의 약자입니다. '지구적 전환계획'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www.GTInitiative.org 아래 새로운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 있는「Civil Society Organizations: Time for Systemic Strategies」라는 글을 참조했습니다.

기 청소년의 질풍노도의 시대를 거쳐 어른이 되어가는 때라고 봅니다. 몸집은 커졌으나 정신은 아직 성숙치 않은 과도기 혹은 '이행기(transition/전환기)'인 것입니다.
영어의 trans는 통과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와 번데기를 통과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영국의 작은 도시 토트네스의 녹색 전환운동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전환'은 시대적 화두를 넘어 실천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환네트워크[3]의 새로운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운 검소함과 큰 사회적 관계(The New Austerity and the Big Society)
-집단적 힐링과 사회변화(collective healing and social change)
-생태적 문화적 '재지역화(relocalization)'
-지역재생 혹은 지역공동체의 생명력 복원(resilient communities)
-탈성장, 혹은 성장 없는 번영
-정상계의 경제(steady state economy)
-거룩한 경제(sacred economy)
-영성적 사회운동(subtle activism, spiritual practice)
-약탈적 소유에서 생성적 소유로의 전환 등등

2011년 가을 전 세계를 강타한 뉴욕의 점령운동은 권력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를 장악하고 기업을 빼앗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식민지가 된 공동체와 삶의 공간을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 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점령하라2.0'은 진정 삶의 전환운동입니다. 사회전환 운동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도시농업을 일구고 예산 삭감으로 사라진 공무원 대신 마을도서관을 되살리는 상호부조와 돌봄의 생활공동체 만들기입니다.

깊고 넓어진 한국의 생명평화운동: 2012년을 돌아보고 2013년을 내다보며

2012년은 한국 사회운동의 근본적 전환을 천명한 팜플렛 '원주보고서'를 통해 '생명운동'이란 말이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셈입니다. 이제 '생명'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고, 생명운동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평화운동으로 더욱 깊고 넓어졌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은 유럽의 생태주의운동에 비견되는 한국적 대안담론과 실천을 축적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생명평화운동은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시했습니다. 인권과 생태를 아우르며 또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평화운동은 사회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습

3) 토트네스를 비롯한 지구적 전환네트워크에 대해서는 http://www.transitionnetwork.org/를 참조.

니다. 편익적 협동조합을 넘어서는 도농상생, 생산-소비 공동참여의 새로운 협동운동 모델을 만들어내었고, 탁발순례와 삼보일배 등을 통해 성찰과 영성의 사회운동을 창조해냈습니다. 이제 생명평화운동은 마을-지역을 기반으로 협동과 호혜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생명평화는 노동운동을 비롯해 기존 사회운동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출발한 '2012 생명평화대행진' 행진단이 전국을 순례하고 "함께 살자"는 구호와 함께 29일 만인 11월 2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생명평화결사가 함께 걷고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법스님과 종교인들이 33인 회의를 조직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생명살림국민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생명평화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가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준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시민교육의 교재로 '생명평화세상만들기'(가제)를 만들었고 시험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이 사회적 시민권을 얻은 셈입니다.

2013년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찰과 깨달음에 기반한 사회운동의 실천입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1000일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의 등불, 당신이 밝힙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매일 24시간을 1000일간 이어가는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서유럽 대안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서틀액티비즘[4]'의 한국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한국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현대사에서도 그렇지만, 문명전환의 관점에서도 한 갑자(甲子) 60년은 의미심장합니다. 정전 60년이 지난 오늘 전쟁의 종식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제대립과 이념대립을 넘어서 인간을 비롯한 온 생명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방에 선언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휴전선에서 지구적 문명전환운동의 또 다른 시발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DMZ평화생명동산과 생명평화결사를 비롯한 생명평화운동 단체들의 특별한 기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민회운동입니다. 민회(民會)는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민주주의의 시민총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만, 20여전 1994년에 출범한 생명민회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민회는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에 기초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모아가는 대안적 공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민회를 씨줄로, 각 영역의 의제를 담아내는 평화민회, 생명민회, 통일민회 등의 날줄을 교직하는 길고 넓은 민회운동의 여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문화아카데미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subtle activism은 '정묘한 행동'으로 직역할 수 있으나 부족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집단적인 명상, 기도, 종교의식 등을 통해 사회적 의식(意識)의 변화, 사회적 기운의 변화를 꾀하는 실천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한해 전 보은취회가 열린지 두 갑자, 1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893년 4월 충북 보은에 수만명의 동학도인이 모여 포덕천하와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 사회적 염원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한국적 민회의 원형입니다. 120년이 지난 오늘 보국안민과 척양척왜를 넘어, 문명전환의 열망을 모으고 표현하는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대안경제에서의 생명운동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식량위기시대를 예비하는 생명운동의 몫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의 핵발전소와 북쪽의 핵무기 위협 속에서 핵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생명평화운동이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생명평화운동은 날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생명평화운동

오늘 한국의 사회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가치, 주체, 방법(전략) 등에서 전면적인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난 30여년 간의 생명평화운동의 전개과정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아직은 생성중입니다. 협동, 지역, 공동체, 성찰, 영성, 자치, 농업 등 대안적 키워드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사회운동을 촉매해온 생명평화운동이 이제 한국 사회운동의 새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전환의 기획을 구체화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 사회운동은 이제 권익민주주의와 이익단체의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생태적 공공성과 우주적 공공성으로 깊고 넓어져야 합니다. 삶에 천착하되 동시에 삶을 초월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영성의 사회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명전환의 전망을 통찰해야 합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은 몇 단계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재체제와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를 '대항(저항)형 사회운동'의 시대라고 말한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주도하는 '대변형 사회운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명평화운동과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운동과 함께 '대안형 사회운동'이 비온 뒤 죽순처럼 성장하였습니다. 사회운동의 진화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일단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첫째 주체의 전환. 계급 주체에서 보편적 인간으로, 나아가 인간주체에서 생태계를 포함하는 생명주체로 확장됩니다. 여성, 어린이, 청년, 노인 등 산업화와 민주화의 변방에 있던 생활인들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둘째 가치의 전환. 중심가치와 지향이 바뀝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자유와 평등이 중심

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박애(형제애/사랑)가 새롭게 조명됩니다. 경제가치에서 생명가치로,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가치의 중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세계관과 철학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한국 사회운동의 표면은 바뀐 듯하지만 심층(잠재의식)은 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운동방식의 전환. 남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와 우리를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 그것입니다. 만들어놓고 짜맞추는 사회운동에서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이를테면 '구조기획'에서 '과정기획'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운동의 전환은 새로운 에너지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컨대 생명운동의 힘은 바로 깨달음 혹은 통찰, 혹은 깊은 내면의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나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과 기술혁신에서, 사회주의는 생산관계의 모순과 투쟁에서 변화의 동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운동의 에너지원은 깨달음과 영성입니다. 기존 사회운동의 의식화가 사회·계급·역사적 의식화였다면, 새로운 사회운동의 의식화(정확히 말하면 '깨달음')는 천지인과 영지체(靈知體, spirit-mind-body)를 관통하는 전일적 각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과 에너지와 관계성을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몸에서 비롯되고 의식과 무의식을 망라하는 전체로써의 정신성이 생명운동의 힘입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전복이 아니라 중심 이동입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 질서의 전복과 새로운 권력의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변화를 꿈꿉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변화하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반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삶이 바뀌고 뿌리가 깊어져야 '생명의 숲'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딴 살림에서 한 살림으로, 함께 살기, 더불어 살기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분리, 인간과 자연의 분리, 인간과 자기 내면의 분리를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상부상조의 '생활협동공동체'이고, 자연과 더불어 '생태공동체'이며, 깊은 정신적 '영성공동체'입니다. 즉 한살림세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는 전(前)분별, 미분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체생명 하나하나가 오롯이 살아있는 하나이면서 여럿이면서 전체인 공동체입니다.[5] 서로의 몸을 꽁꽁 묶는 대동단결(大同團結)의 공동체가 아니라, 조화로우면서도 똑같지 않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5) 조직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중(mass)운동과 결사체(association)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도와 피지도의 전위조직과 대중조직의 이분법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뭉텅이 대중 속에는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하나가 고유하면서도 우주적인 영혼을 지닌 큰 생명들입니다. 강고한 결사체가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결속된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을 좇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패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개체 생명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내면에 살아있는 형제/자매애적 사랑, 즉 생태적 공공성, 우주적 공공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조직형식으로는 네트워크를 지향하되 모이고 흩어짐이 자유로운 플랫폼/아고라/마당 같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이들이 정당정치의 종말을 예견하며 플랫폼정치, p2p정치(peer to peer politics)를 제시하기도 합니다.(물론 여전히, 앞으로도 대중과 결사체와 네트워크, 그리고 플랫폼과 공존합니다.)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합니다. '사회협약', '공동체협약'이 그것입니다. 경쟁의 룰이 아닌 호혜의 규칙에 합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 협약은 근대적 계약을 넘어서,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 공감하고 공명하는 이심전심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간,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입니다.
다시금 떠올립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나비혁명: 2013년을 한국형 문명전환운동의 원년으로
'나비혁명'이라고나 할까요? '허물을 벗고'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알의 시대와 애벌레의 시대와 번데기의 시대를 넘어, 나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의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새해, 생명운동이란 선언하고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며 이제 본격적인 전환운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의식의 전환, 생활의 전환, 시스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먼 훗날 생명운동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2013년을 사람들은 한국형 문명전환운동의 원년으로 기억할 지도 모릅니다. 생명평화운동은 진정 죽임의 문명의 호스피스 역할과 더불어 살림의 문명의 산파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조안나 메이시가 말한 산파의 역할이 다시 생각납니다. 시인 김지하가 짓고 무위당 장일순이 쓴 "혁명은 보듬는 것"이란 서예작품이 떠오릅니다.

혁명은 보듬는 것,
혁명은 생명을 한없이 보듬는 것
온몸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
혁명은 보듬는 것
따뜻하게 보듬는 순간순간이 바로 혁명
어미닭이 달걀을 보듬어 안 듯
병아리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우주를 온몸으로 보듬어 안는 것

혁명은 보듬는 것
부리로 쪼아주다
제 목숨이 다하도록
혁명은 생명을 한없이 보듬는 것

어미닭이 달걀을 보듬는 순간
스스로도 우주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한없이 보듬는 순간순간이
바로 개벽
개벽은 보듬는 것

야단법석

새로운 전환의 시대가 인류에게 길을 묻다

보은취회 120돌을 맞아 4월 26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전국에서 참여한 활동가들과 함께 야단법석을 진행하였다.
생명평화결사가 주관한 이 좌담회는 이 시대가 인류에게 묻는 생명평화의 의미와 새로운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사회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이야기했다.

지금 동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시대가 품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동학농민혁명이 평화를 이야기했는가…

모든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 시대가 묻는 질문이 하나로 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밤이 깊어가도록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더 큰 빛을 발한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시간에, 보은취회 기간 동안 유념하고 사유해야 할 이야기들이 야단법석에서 제시되었다.

동학의 길을 텄던 보은취회에 12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일은 무엇일까.
정신의 근간운동을 생명평화로 보고 어울리지 않고는 사람답게 살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을 다짐했다.

청소년 락(樂)마당

우리마당 락(樂)마당

120돌동학보은취회 행사 두 번째 날 밤,

4월 27일 토요일.

토요일밤의 열기는 이곳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도 가득 찼다.

1893년 - 과거, 2013년 - 현재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안학교 학생들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가 마련되었다.

청소년 락(樂)마당, 우리마당 락(樂)마당

원주에서 온 한알학교, 제천에서 온 간디학교, 광주에서 온 래미학교, 순천에서 온 사랑어린학교, 상주에서 온 샨티학교. 모두 5개 학교에서 락밴드 공연을 준비했다.

4월 말이지만, 첩첩산중에서 치러 행사였기 때문에 다소 추운 날씨에도 청소년들이 자아를 찾아내고, 자유와 혁명을 상징하는 락음악의 축제를 즐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한알학교의 애플파이, 환타, 인내천프로젝트는 낭만고양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타악공연 등을 선보였고,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어름니, 무즈 2개의 팀이 참가하였으며 Rock Star, Supermassive blank note, Time is running out 으로 무대에 섰다.

래미학교는 Nothing 1팀이 참가하였는데, 챠우챠우와 자작곡 Before 30을 선보였다.

사랑어린학교는 잼베 - America, 사랑어린밴드 - 봉숙이, 비둘기로, 샨티학교는 논두렁 올챙이 라는 팀이 Creep, Snow 등으로 관객과 소통했다.

정화수 의례

씻김과 틔움, 맑은 물이 주는 신비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저희는 원주에서 활동하는 아트코어 굿마을입니다.

저는 예술감독 김원호입니다. 정화수 의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화수 의례의 의미

정화수 의례, 정화라는 것은 우물 정자에 꽃 화 자입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꽃입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도 쓰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물과 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정화수인가

새벽에 물을 떠놓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생명의 물, 생명의 꽃을 오랫동안 자식들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이웃

의 건강, 세상의 안녕을 위해 빌어 왔던 훌륭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별빛의 정기를 담은 물을 떠 놓고 인류의 안녕을 비는 일. 이 힘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생명력 있게 전해져 온 그 의미가 참 저희들이 이것을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닌 세상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의례를 만들었어요.

이번 120돌동학보은취회 위령제때 이 의식을 꼭 함께 하고 싶었어요. 사실, 동학이라고 한다면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남자들의 싸웠던 역사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죽어간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살아남은 어머니들과 아내들은 평생의 아픈 가슴을 잡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그 고단한 삶과 억울한 삶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안녕을 빌었던 마음들이 동학정신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계승하신 분들은 어머니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힘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위령제를 진행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위령제와 함께 죽은 넋들을 위로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긴 세월 슬픔을 안고 평화와 안녕을 비는 모습을 재연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화수 그릇을 오늘 120개 정도 나누어 드렸는데 지난 5년간 4천개 정도 만들었습

니다. 세상에 어디든 달려가서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2회 보은동학마당극제

생명살림 풍류마당

- 상생과 생명평화의 어울림, 동학마당극제 개최 -

동학의 성지 보은에서 120돌동학보은취회를 맞아 동학계승사업회와 극단 꼭두광대의 공동주관으로 제 2회 보은동학마당극제가 펼쳐졌다.

지난해 119돌동학보은취회에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마당극제는 동학의 정신과 의미, 뿌리와 함께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알차고 풍성한 공연들이 펼쳐져 지역주민과 이번 행사를 찾은 전국의 동학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제2회 동학마당극제에는 극단 꼭두광대, 극단 연극촌 사람들, 극단 연극자리 소풍, 광대패 모두골, 풍물굿패 씨알누리, 민중각설이 등 모두 6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극단 꼭두광대는 보은상주예술단체로 보은의 동학을 모티브로 한 마당극을 제작하여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 보은의 동학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마당극제에서도 동학 창작탈굿 눈자라기를 선보였다. 눈자라기는 상생, 평화, 생명의 창작탈굿으로 거대한 인형과 새. 탈과 음악이 어우러진 동화 같은 가족극이다. 우는 나무를 찾아온 아이가 나무의 이야기를 겪게 되는 동학이야기이다.

극단 연극촌 사람들의 “그리운 탈나무”는 3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짜여진 창작가면극으로 전체 주제는 미래에 대한 꿈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가면을 사용하는

연극을 선보였다.

극단 연극자리소풍의 “춤추웠을뿐인데” 는 용이 된 미꾸라지가 멋진 춤으로 비바람을 일으켜 뱀장어 친구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같이 춤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의 그림자극으로 새로운 형식의 공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광대패 모두골은 전통연희예술을 바탕으로 한 창작 작품과 놀이개발을 주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 동학마당극제에서는 “밥굿”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그려냈다. 마당극 밥굿은, 만물을 이루는 물, 불, 흙, 나무가 밥을 만드는 과정을 상징적 의례로 엮어 관객과 함께 쌀을 모시는 노래를 바쳐 평화비나리로 마무리하는 의식을 그려냈다.

풍물굿패 씨알누리는 전통연희 속의 장단, 춤, 소리, 의식 전반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창작, 공연,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이 시대의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 동학마당극제에서도 장르적 측면에서 음악적 실험과 극적 실험을 아우르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전통연희를 관객들의 감성에 맞게 재연하는 방식부터 전통의 형식과 내용을 해체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퓨전 콘서트의 형식을 펼쳐냈다. 또한 전통형식을 바탕에 둔 실험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음악으로 관객들과 공감을 이루었다.

그 외에도 민중각설이 “각설이의 세상풍자”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만담으로 풀어본 세상을 풍자하는 형식으로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흥겨운 시간이었다.

이번 제2회보은동학마당극제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과 한 마음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전국을 무대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제2회 동학마당극제 참가작들을 만나보자.

극단 꼭두광대 동학창작탈굿 “눈자라기”

- 우는 나무를 찾아온 아이가 겪게 되는 동학이야기

1. 극단 소개

탈, 소리, 움직임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보는 창작탈놀이극으로 이 시대 최고 광대를 지향하는 극단으로 충청북도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야 할 세상 [이야기세상, 그림세상, 음악세상]을 구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탈 연기, 탈 작품의 최고를]

[신화, 전설, 우리 전통문화를 재해석, 재창조]

[이 시대를 반영한 실험적인 작품을]

주요작품으로 [눈자라기](2012), [지네전](2012), [범밭골의 전설](2011), [엄마](2011), [우주이야기](2010), [꽃을 사랑한 호랭이](2010), [탈](2010), 소원굿[할미새](2009), 소리그림자극[모기이야기](2008), 음악극[혹부리자매](2006), 거리극[눈물, 길](2005) 등이 있습니다.

2. 공연소개

상생, 평화, 생명의 창작탈굿

거대한 인형과 새. 탈과 음악이 어우러진 동화 같은 가족극으로 우는 나무를 찾아온 아이가 나무의 이야기를 겪게 되는 동학이야기

1막 우는 나무 - 우는 나무를 찾아온 아이가 우는 나무의 사연을 듣게 된다.

2막 달 호랭이 - 호랭이와 사람이 어울려 사는 곳에 파랑새가 나타나 모두 몰아내고 알을 낳는다.

3막 사람이 하늘이니 - 장안으로 모인 동학도와 북실의 겨울

4막 홍동지 - 꼬마병정과 홍백가가 힘과 권력의 상징인 홍동지를 부활시켜 조국강토와 백성을 차지한다.

5막 담쟁이 - 호랭이가 아이가 하나의 마음을 홍동지를 머리를 뽑아낸다.

극단 연극촌 사람들 "그리운탈나무"

- 3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짜여 진 창작가면극

1. 극단소개

<연극촌사람들>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의 금수문화예술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연극촌사람들>은 연극예술의 진정성을 추구하고 '촌극활인'(村劇活人)을 모토로 하여 이 시대의 참된 삶을 추구하는 연극인들의 모임이다.

<연극촌사람들>은주로 전통극의 현대화 작업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끊임없는 실험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2. 공연소개

미래에 대한 꿈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가면을 사용하는 연극. 각 소품들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공연이 가능한 형식.

출연 : 황영호•신현동•김호준

연출 : 박창호• 손재오

총연출 : 최재우

1마당 아름다운 시절

현실의 고민에 빠진 한 남자의 심각한 장면을 코믹하게 그린 성공을 예감하는 내용

2마당 비 갠 오후

마임 가면극 형식으로 비개인 오후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의 봄날 같은 환상을 그린 작품

3마당 기억의 길

다양한 신발에 묻혀 있는 사연들을 그린 내용

연극자리 소풍 “춤추웠을 뿐인데”

- 그림자극, 미꾸라지가 용 된다는 이야기

1. 극단소개

2006년 창단하여 움직임극<떨어지는 꽃>, 그림자극<춤추었을 뿐인데>, <슬픈친구>, <바람이 태어나는 곳, 숲 >, 가면움직임극 <씨앗할머니>등을 창작 공연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음악콘서트에서 노래와 그림자극이 함께 하는 실험적인 무대공연 <무지개내린 날개위의 순간>을 통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대구컬러풀축제 예술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텐트 그림자 체험 <고래가 날 먹었어>, <아시아 전통그림자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활동도 하고 있다.

2. 공연소개

이 작품의 원작은 중국 왕양명이라는 철학자의 수제자인 왕심재의 <<추선부: 미꾸라지에 관한 노래>>이다.

어느 날 왕심재가 길을 가다가 양동이에 가득 찬 뱀장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숨 막히는 양동이 안에서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유유히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인다. 미꾸라지는 그 갑갑한 양동이 안에서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았던 것이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용됐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품없던 사람이 훌륭하게 변했을 때 하는 속담이다. 단지 스스로 즐거워 춤추던 미꾸라지는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어 자연과 함께 춤추기를 계속한다. 하지만 아직 복잡한 양동이 속 세상에는 뱀장어들이 다툼에 지쳐 죽어가고 있었다. 용이 된 미꾸라지는 멋진 춤으로 비바람을 일으켜 뱀장어 친구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같이 춤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극자리 소풍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삶의 거울로 비추어 작은 몸에 담아 창

작하며, 자신의 영혼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랑살랑 봄바람에 실려 소풍가듯 연극공연을 한다.

광대패 모두골 “밥굿”

1. 극단소개

농촌에 터를 잡고 유목하는 광대 집단으로 예술과 생태, 사람과 자연과의 상생을 신화적인 마인드로 해석하여 공연하고 교육, 체험활동을 주된 일로 하고 있다.

인형극, 춤, 소리, 마당극, 태평소, 풍물굿등의 다양한 양식을 저마다의 취향과 특성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나리, 마당굿, 대동놀이를 통해 개성이 발휘되는 무리 굿을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당굿 ‘밥굿’이 있으며 ‘생명비나리’, 마당극 ‘산신할매와 꼬부랑할매’, 가족극 ‘치악산 꿩이야기’가 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동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신화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골에 예술극장 ‘이달의 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장과 장터에서 광대놀이마당을 진행하고 있고 일 년에 한 번씩은 자체적인 풍류굿을 진행하여 삶의 근간을 되집어 보고 신명을 표출할 수 있는 굿마을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 공연소개

탈굿 - 두 어미가 나와 지극한 정성으로 정화수와 쌀을 모신다.

조왕굿 - 밥을 모시는 조왕신에게 감사드리는 축원덕담굿

평화비나리 - 강을 빌어 축원하는 생명평화의 소리굿

충청북도지정예술단 풍물굿패 씨알누리

- 방방곡곡 찾아가서 벌이는 놀이판 “판놀음-공감”

1. 단체소개

씨알누리는 과거의 형식을 해석하고, 현재의 이야기를 녹여내어, 미래를 찾아가는 전통연희 예술단체다. 씨알누리는 창작, 공연, 교육활동을 통해 우리의 문화 예술 활동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사람의 삶이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예술을 만드는 전통연희 광대 집단이다.

씨알누리가 바라보는 전통연희는 박제화 되어 생명력을 잃고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예술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예술, 시대를 함께 하는 예술이 진정한 전통이라는 인식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통일 비나리”, “땅도 땅도 내땅이다”, “오등은 자에”, “천고”, “천지인”, “무속 굿과 풍물굿의 어울림”,“퓨전콘서트-공감”, “생명살림굿판-즘생굿”, “퓨전콘서트-무 무 무” 등이 있다.

2. 공연내용

방방곡곡 찾아가서 벌이는 놀이판, “판놀음-공감”

전통 예술과 전통을 기반으로 재해석된 퓨전음악을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다.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을 진행하며, 씨알누리의 예술관과 대중적인 실내악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풍물 장단으로 문을 열고 생명 살림에 대한 염원이 담은 ‘생명살림 비나리’와 ‘앉은반 사물놀이’로 공연을 시작하여 전통풍물의 신명과 우리 장단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어서 전통음악의 바탕 위에 다양한 해석과 만남을 시도한 퓨전 음악과 실내악곡을 연주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통음악을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고, 우리 음악의 다양한 빛깔을 느낄 수 있게 한다.

1. 생명 살림 비나리
2. 앉은반 사물놀이
3. 이구동성(異口同成)-기타와 설장구의 어울림
4. 달빛 항해
5. 신뱃놀이

6. 신아리랑

제2회 보은동학마당극제 생명살림 풍류마당

일시·장소 : 2013년 4월 26일 (금) ~ 27일 (토) / 속리초등학교 (보은취회지)

일시	장소	단체 / 공연명
4월 26일 (금) 오후 6시 30분	속리초둥학교 (보은취회지)	연극촌사람들 - 그리운 탈나무
4월 26일 (금) 오후 7시 30분		연극자리소풍 - 춤추웠을 뿐인데
4월 27일(토) 오전 11시30분		광대패 모두골 - 밥굿
4월 27일 (토) 오후 1시		씨알누리 -“판놀음 - 공감”
4월 27일 (토) 오후 1시 50분		민중각설이 - 각설이의 세상풍자
4월 27일 (토) 오후 2시		극단 꼭두광대 - 눈자라기

주최 : 극단 꼭두광대 , 보은동학계승사업회 , 120돌동학보은취회 추진위원회

주관 : 극단 꼭두광대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충청북도, 보은군

수운과 노자, 지금 나 자신을 찾는 일

5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마당에서 재미있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수운 최제우의 동학과 노자철학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짚어보며 지금 우리사회가 극복하고 일어서야 할 고민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 지역에서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태종 목사는 '청주노자모임'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회원들과 함께 노자의 철학을 통해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120돌동학보은취회 행사를 맞이하여 보은취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은에서 강연을 열게 된 '청주노자모임'은 전국에서 모인 전국의 동학도들과 '수운과 노자' 라는 제목으로 늦은 밤까지 열정이 넘치는 대화가 이어졌다.

(편집자 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리 : 나순__결(나순__결인문학교장, 청주노자모임)

5월 3일(금) 보은으로 향했다.

보은동학혁명기념공원에서 김태종 목사의 "수운과 노자" 강연을 듣기 위해서.

동학이라! 고교시절 역사책 어느 곳 한두 쪽에서 읽어 보았는지, 아닌지 아른거렸다, 떠나기 전 급하게 네이버에게 물어 보았다.

1860년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로 기일원론(氣一元論)과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특징으로 한다. 2대 교주인 최시형이 교단과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1894년 농민전쟁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1905년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하였다. 동학의 창시는 지배층의 착취로 농촌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던 19세기 후반의 사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다.

강연을 진행하시는 김태종 목사는 동학이 100주년을 맞은 1992년에 동학에 대한 공부를 하며 사람만이 아닌,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하늘이더란 깨달음을 얻었다 했다. 그리고 도덕경을 세 번째로 회원들과 함께 강독해 가면서 존재하는 것 모두가 우주 그 자체라는 깨달음도 얻었다며, BC 2세기 왕필本 한 구절을 언급했다.

'깨달은 자는 말하지 않는다, 깨달은 자로 인해 밥 먹고 사는 이들이 크고 작음을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동학의 후천개벽과 도덕경에서 바퀴가 만들어 지는 것을 보고 노자가 한 말에서, 김태종 목사는 그것이 핵무기의 위험을 말한 것이라 해석했다. 그리고 제사 지낸다는 것은 추모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라 묻는 것이라며, 보은취회 120돌 행사가 장사 속-껍데기만 남은-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에게 물어 보고 경계를 풀지 말자 했다.

이번 행사도 깃발만 나부끼다, 깃발만 남은 것은 아니냐고 우리들 개개인에게 물어보자 했다. 김태종 목사의 강연을 들은 후,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소회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동학이다, 우린 공기의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동학은 성공했다,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곡성에서 온 보따리학교 김재형 교장은 또 말을 이었다, 동학의 혁명사유 만으로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일갈하며, 지금 여기 우리에게 동학이란 무엇일까, 자문해 보자 했다.

갓 데쳐 낸 두릅, 두부, 신김치와 보은막걸리를 들어가며 참석자들의 소회는 이어졌고, 기억나는 몇 몇 분의 말을 옮겨보면, 보은에 거주하는 이상우님은 깨달음이란 바로 옆에 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며, 이 세상은 진리와 진리가 상충하는 것, 즉 다양함을 인정하자 했다. 청주에서 온 이소영님은 태어난 이유, 인간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다 말했고. 마무리는 김태종 목사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국에 왔을 때, '인류는 지구라는 생명공동체에서 아직도 적응한 종이 아니다'란 발언을 했다며, 호박꽃이 장미꽃 되려고 보톡스 맞은 적 없다고 했다,

여성, 영성 그리고 다양성을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을 살아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시간은 밤 9시 31분. 엄청 추웠던 밤이었다.

조금이라도 타오르는 장작더미 곁으로 가려고 가져갔던 책 4권을 깔고 앉아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고, 오갔던 이야기를 따뜻한 열기에 싸여 편안하게 메모할 수 있었다.

푸코에게, 베르히트에게, 올로프 팔메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말 아니 전할 수 없다.

내 메모장 마지막엔 북진나루 / 정연승 著 / 출판집단 순결 刊 2013이라 적혀 있

다. 1800년대 지배층의 전횡과 패악에 더 이상 도망갈 곳에 없어 봉기한 충청도 북부지역 농민들이 청풍읍성과 충주성을 공격하고, 관군에게 괘멸된 아픈 이야기를 북진나루에 거점을 두고 활약한 상인 최풍원의 일생에 담아 긴 호흡으로 엮어낸 장편소설이다, 이것을 '지역작가를 만났다' 6월 선정도서로 삼아야겠다고 강조-난 청주에서 지역작가를 매월 1회 초청해 책에 대해,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모임을 일 년간 만좌장이다-해 놓은 것인데, 왜였을까? 5월 3일 보은에 오지 않았더라면, 수운과 노자 강연과 나누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민 없이 확신을 가지고 북진나루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수운과 노자의 만남

김경중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청주노자모임)

고등학생 시절 노자는 무위사상, 공식처럼 외울 때부터 단지 '무위(無爲)'라는 단어에 끌림이 있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세상에서 행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는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단어 그대로 해석해서 그 느낌이 좋았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사서 道可道 非常道(길을 길이라 말하면 늘 그러한 길이 아니다)로 시작하는 제1장부터 '信言不美, 美言不信'(믿음이 잇는 말은 아름답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아니하다)는 81장까지 읽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5,000자에 불과한 어쩌면 시집정도의 짧은 글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엔 나의 능력이 부족했고, 노자가 도덕경을 쓰던 시기, 혼란한 시대상을 이해하기엔 어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서른 중반, 김태종 목사님을 만났다.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보전운동을 하면서 뵈었다가 일하는 단체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준비하면서 일로서도 함께 하게 되었고, 노자도덕경을 공부하고 계신 것을 알았다. 목사님은 과거 노자공부모임을 진행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나에겐 이해하지 못한 고전에 대한 공부의 욕심이 있었다. 노자도덕경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노자공부모임을 시작했다. 2006년 7월이었다.

청주노자모임은 81장인 노자도덕경을 1장씩, 매주 한번 모여 목사님의 주해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81장을 마치면 다시 1장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 세 번째를 마칠 예정에 있다.

지난 4월 목사님께 120돌 동학보은취회에서 '수운과 노자'를 중심으로 이야기 자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동학에 대한 이해가 학교에서 국사시간에 배운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게, 수운과 노자의 연결고리가 무엇일지 궁금했다.

보은 북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투가 일어난 곳에 만들어진 기념공원에 도착했다. 성벽처럼 쌓인 공간에는 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한쪽에는 차가운 밤기운을 이기기 위해 불을 피워놓았고 모닥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그리고 수운과 노자가 목사님 안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로 '수운과 노자'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대학원 시절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수운선생이 깨달음을 얻은 후 '사람은 모두 한울님'이라며 집의 종들을 풀어주고, 여종은 며느리와 수양딸로 맞아들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의 눈으로 보아도 혁명적인 일이었다. 이후 노자를 만나게 되면서 수운과 노자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통하는 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노자는 여성성을 중시하는데, 여기에서 여성이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여성이 갖는 포용과 부드러움을 일컫는다...

우리가 가수의 공연장에 비싼 돈을 내고 가는 이유는 CD로는 들을 수 없는 육성으로 전해져 오는 기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봄밤, 보은 북실에서 있었던 '수운과 노자'의 이야기를 글로 전하기기엔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다만, 목사님의 여여한 삶속에서 수운과 노자가 만나고, 삶속에서 녹여낸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즐거웠다. 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울님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리고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깃발을 내세우며 나라를 위해 일어섰던 사람들이, 정작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의 안위에 쫓기고 쫓겨 이곳 북실에서 맞이한 마지막 밤은 어떠했을까,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생각했다.

솟대만들기

솟대에 올린 살림의 마음

“저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한 번 만들어 볼래요.”

아이들이 앞 다투어 줄을 서 있다.

대안학교 참여 아이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 온 아이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한 켠에 아이들이 모여서 무엇인가에 열중에 있는 풍경.

가까이 가서 보니,

작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아기자기한 솟대가 되어 뭉텅 뭉텅 제법 그림을 이룬 모습으로 서 있다.

자리에 모인 아이들 손에도 하나씩 들려 있다.

솟대,

예로부터 솟대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상징하였으며, 조상들이 평화에 대한 염원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담에 마을에 세웠다.

동학보은취회는 백성이 바라는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이 담겨있었기에, 2013 동학보은취회 120돌 행사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모든 소망을 담아 솟대를 만드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솟대에 담겨 있는 각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3부

새로운 기운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세…

- 120돌동학보은취회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

동학순례 진달래 꽃길따라

동학순례단은 2013년 1월에 결성되어 100일간 동학의 성지를 순례하며 보은취회 120돌을 맞이하기를 결의하였다.

중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순례단은 뿔뿔이 흩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동학순례에 함께하는 것으로 하고 김창환 선생 혼자서 100일을 꼬박 채워 길을 걸었다.

순례하는 내내 그 기록을 사진과 글로 남겨 순례단들과 마음을 함께하였으며 전국을 순례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동학의 정신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지는 글은 순례 중 아사달카페와 사랑어린학교에 연재한 글로 카페에 가면 순례과정을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다.

삶결두레 아사달 http://cafe.daum.net/asadala

사랑어린학교 http://cafe.daum.net/LittleSchoolTHELOVE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한울님이 들려준 이야기

-동학 100일 순례-

路上김창환

아침 해가 남해에서 떠올랐습니다.

100일을 출발했습니다.

첫날이 백일처럼!!!

가는 길을 묻고 갑니다. 가는 이유도, 가는 사람도, 가는 길도, 묻고 물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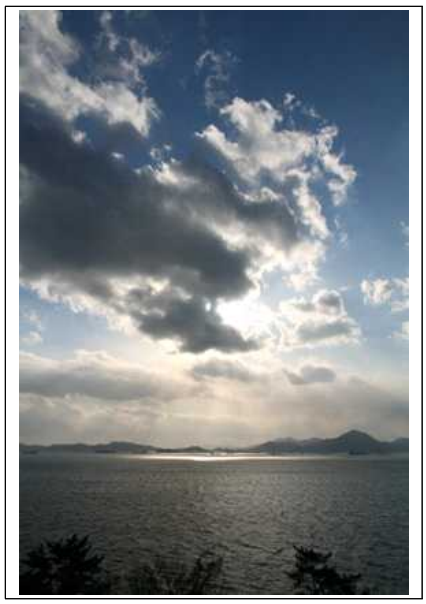
탁발 그릇을 준비하니 많이 할 때 눈치 챘어야 했다. 몸자보를 만들려 했다가 실패.

동학에 맞게 100배 절을 만들려 했는데 역시 실패. 그날그날 약속을 만들려 했는데 또 실패.

뭔가 맞게 모양을 갖추려 했는데 그 것 조차 여의치 않았다.

결국 그냥 걷는 것만 남았다. 순례국장도 아닌 동학보은취회 준비위원장도 아닌 태연이와 같이 걷는다.

3일째



남해현청에서 사상포구까지 1894년 9월 그 당시 600여명이 걸어갔던 길을 걸었다.

숫자를 잘 보자. 남해군 전체 인구가 만여 명 그 중에 노인과 어린이 빼고 장정을 뽑았는데 그 숫자가 600여명, 그리고 그냥 600여명이 아니라 마을에서 뽑아서 모인 숫자.

죽음으로 가는 길에 뽑혀서 길을 갔다.

그 길을 갔다.

사상포구에서 배를 타고 섬진강으로…

5일째 - 하동 고성산 전투. 불과 120년전에...

하동 옥종면 고성산에 들렸다. 날이 흐려지면 구시렁 구시렁 소리가 났던 구시랑당산, 수천 명이 영령이 잠들어 있는 곳에 왔다.

남해에서 배를 탔던 600여명이 참가 했던 그 전투를 생각한다.

9월 초에 배를 타고 섬진강에 도착, 그곳에서 하동을 거쳐 진주성을 함락했다가 여기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다.

그날이, 1894년 10월 14일, 동학군 약 5천명 대 일본병사 2백명…

이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동학군이 멀쩡하게 서 있다가 맥없이 쓰러졌단다. 그래서 피해는 동학군 측 수천 명 사망(일본기록에는 186명 사망), 일본군 부상 3명.

그러고 나서 불을 질렀다. 시체조차 찾기 못하도록. 여장협 접주의 시신을 못 찾아 결국 참나무로… 그들이 떠난 후 아녀자들이 시신을 수습했다. 불과 120년 전에, 경상남도 하동 땅에서.

8일째 - 소설 '토지'의 주인공 서희를 만나다. 부산에서

곱게 나이 드신 분이다. 47년생 정한숙 선생께서 곱디고운 한복치마의 입고 초등학교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동땅 금남면의 땅을 가진 물헌 정재완의 손녀로 자신의 땅을 밟지 않고 하동읍까지 갈수 없다는 부자였다고. 추수 때 수 만석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자…

그 이야기가 기초가 되어 박경리 선생은 악양을 배경으로 한 대하소설 '토지'가 썼다.

만나면 묻고 싶었다. 동학에 대하여, 신유갑에 대하여, 여장협접주에 대하여, 정용태접주에 대하여, 동학은 그냥 책에서 본 것 밖에…….

박경리선생은 여기서 힌트를 얻었을 뿐, 다른 이야기를 합하여 소설을 쓴 듯하다.

그런데, 효암재단 이사장 채현국 옹 왈,

"박경리의 토지속에 문학이 있느냐?"

모르는 것이 더 많아졌다.

9일째 - 양산 효암재단의 교훈 "쓴맛이 사는 맛"

"쓴맛이 사는 맛"

채현국이사장님이 계신 효암재단 아이들이 자주 보는 장소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말이다

양산 내원사 적멸굴에 갔다. 수운 큰선생이 49일 기도드린 곳.

12일째 - 울산 여시바위골에서

이곳은 수운큰선생님이 처가살이를 했던 울산 유곡동 여시바위골이다. 을묘천서를 받았던 집이다.

그런 책을 금강산에서 도를 닦던 스님에게서 전해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어제는 용담정에 갔었다. 새로운 것을 발견.

최윤 -- 용담할머니. 해월선생의 친딸의 무덤에 갔었다.

◉ 용담할머니 최윤의 말년

한편 정순철의 어머니 최윤은 어린 순철이가 서울로 떠나버린 후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린 딸 순열이를 데리고 계룡산으로 들어갔다. 당시 계룡산 신도안에 해월의 양사위인 김연국(金演局)이 상제교(上帝敎)의 교주로 있었기 때문이다. 상제교는 김연국이 친일종교인 시천교(侍天敎)에서 이탈해 나와 1925년에 세운 교파다.

최윤은 신도안에서 딸을 출가시킨 후 1930년대 중반에 계룡산에서 나와 경주(慶州) 월성군(月城郡) 구미산(龜尾山) 자락에 있는 용담(龍潭)에 들어가 혼자 기거하였다. 용담은 바로 수운 최제우가 득도하여 동학을 창시한 성지다. 수운은 이곳에 용담정(龍潭亭)을 짓

고 1860년에 득도했던 것이다.

1864년 수운이 순교한 후 당시의 용담정은 역적이 살던 곳이라 하여 돌보는 이가 없어 퇴락해 없어졌다. 그래서 최윤은 마을과 동떨어진 이 곳 구미산 골짜기에 움막 같은 조그만 집을 짓고 혼자서 용담 성지를 지키며 평소 수도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포교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을 '용담정'이라 부르고, 경주 일대에서는 최윤을 '용담할머니'로 통했다. 때로는 밤중에 구미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용담정 주변을 배회하기도 하였으나 최윤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구미산 꼭대기에는 바위굴이 있는데, 이 곳 주민들은 이 굴을 지금도 '호랑이굴'이라 부르고 있다.

최윤은 아들 순철이 6·25전쟁이 일어나 납북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이 곳이었다. 그 후 6·25전쟁 당시 월남한 신앙이 독실한 교인 할머니가 이곳에 찾아와 최윤과 함께 기거하다가 휴전 3년 후인 1956년 3월 1일 용담할머니는 향년 78세로 파란 많은 일생을 마감하였다.

해월의 외손자 정순철 /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

많은 사람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졸업식노래'를 부르면서 흐느끼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졸업식 풍속도가 달라져서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당시 어린 가슴을 울려주던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다.

이 노래는 1946년 해방 후 처음 맞이하는 졸업식을 앞두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아동문학가 윤석중이 노랫말을 짓고 동요작곡가 정순철이 작곡하여 서둘러 만들어졌다. 바로 이 노래를 작곡한 정순철(鄭淳哲)이 동학(東學)의 2세 교조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런 만큼 정순철에 얽힌 출생비화는 드라마틱하다.

해월은 '최 보따리'라는 별명이 있듯이 동학을 박해하는 관가의 지목을 피해 산간벽지를 누비며 일생을 피신생활로 일관하면서 지하포교에 전념했다. 이런 피신생활로 인해서 가족이 있어도 따로 도망 다니느라 몇 년씩 소식조차 듣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해월의 김씨 부인은 동학혁명이 일어나던 1894년 가을에 외동딸 최윤(崔潤)과 함께 충청도에서 관가에 잡혀 옥천(沃川)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하염없이 옥살이를 하던 어느 날 옥천 군수는 아전인 정주현(鄭注鉉)에게 최윤을 데려다 살라고 주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최윤은 시집식구들로부터 '역적의 딸'이라는 눈총을 받으면서 굴욕적인 생활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정순철은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1901년에 태어났다.

… 후략 …

24일째 - 좋은 날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는 날도 있다.

동학 100일 순례를 멈추고 그냥 걷는다.

동학100순례를 그만두려한다.

되는 일이 없다! 지친다. 언젠가, 내 아들의 문자 받고는 힘을 얻었지.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아들이 보낸 문자메세지를 읽는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늘 힘을 준다.

"아버지!!

아버진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선생이예요.

하늘에서 더 좋은 일을, 아버지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려고 하신 모양인가 봐요. 지금 중요한 건 그동안 웃으며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도 서로 다치지 않게 웃으면서 안녕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더 다치질 않길 기도드릴게요. 그 수많은 일도 겪었듯이 그 아픔이기면 되고 이번 역시 지나갈 거예요.

차분하게 또 차분하게 일들을 본다면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나중에 아쉬워 할일들이 줄어들 거예요. 크게 숨 한번 들이마시고

*하늘을 한번 봐요. 오늘 하늘이 참 좋네요^^*

2011년 10월 3일"

되는 일이 없다는 게 별로 힘들지 않다. 걸음을 이끄시는 분을 아니까! 돈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걸을 생각이다.

34일째 - 상주, 동학교당. 남접접주라

상주에서 마무리할 때 동학교당에 들려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수운 선생께서 살아계실 때 해월선생님을 북접접주로 임명하자 제자가 왜 북접이냐고. 그럼 남접도 있냐는 질문에 대답하시를 그렇다고 하시니 누구냐고 또 질문하니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법통은 해월선생님에게 내리고 안살림은 남접에게 맡겨 계속 이어가게 한다?

그래서 수운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고 충청도로 돌아가

각각 기록을 남기고 은밀히 활동하셨다는 얘기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말이 되는 이야기다. 그 시기에는

그런데 현실은???

발걸음들, 쌓이는 미안함과 주어진 길 - 개벽신문에 실린 글.

먼저 개벽신문 독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비록 50여일은 넘겼으나 언제 걸음을 멈출지 몰라 미안하고 13명이 모여 뭔가 큰일이라도 할 듯이 큰소리치다가 그냥 혼자의 발걸음이 되고,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죄송한 인사도 드리기 전에 우리 내부의 의견조차 맞추지 못한 점, 참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지금까지 둘러본 길이 경남, 경북 그리고 강원도 일부밖에 안되지만 50여일이 지났으니 주워들은 이야기는 풀어나야겠기에 글 몇 줄 올립니다.

처음에는 천도교 교구나 천도교 수도원을 이용하려 했으나 그 숫자가 적어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많이 의지했다.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의 집도 있었지만 그래도 동학을 잘 알고 이해하는 집이였다. 지나가는 객에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래서 50여일이었지만 밖에서 자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자는 것도 문제없고, 먹는 것도 문제없고, 돈도 문제없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동학이라는 스펙트럼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는 게 문제였다.

천도교인은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다. 오히려 현실의 영적인 체험만이 중요했다. 3일 동안 무혈로 입성했던 경남 진주성. 전북의 전주성보다 더 극적으로 들어갔던 진주성, 북과 꽹과리 치면서 들어갔던 진주성, 진주부사가 소를 잡아 대접하던 그 진주성, 119년 전 들어갔던 그 진주성에 들어갔느냐고 진주교인이 되물었다.

대구 종로초등학교의 수운나무를 표시한 설명서에 수운큰선생님 호를 水運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몇 년이 지나도록 방기된 채 그대로 있다.

참으로 눈물 나는 현장은 영월 직동리 표시석이었다. 도로 옆에 2년 동안 방치된 표지석을 보고 눈물이 났다. 해월선생이 1871년 피신 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새롭

게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길을 연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표시석을 세웠었는데 그 표시석이 방치되고 있다.

그냥 힘없고 돈 없고 사람 없는 종교 세력임을 자학할 수 없다.

다음으로 도움 주신 분들이 동학에 대하여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대안학교 선생님, 산촌유학 선생님, 귀농한 사람, 전교조 선생님, 민주당 위원장, 심지어 주사파 활동가까지 만나 밥을 얻어먹거나 잠을 얻어 잤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부분은 관심 없고 학문으로 동학에만 관심 있었다. 종교로서의 천도교에는 혐오감이랄까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열심이었다. 지역마다 장소를 찾고 그 장소를 정확한 근거 하에서 찾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로 동학을 하는 사람이었다.

영양 댐 문제도 마찬가지. 해월선생님이 49일 기도를 드린 다들 바위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에게는 직접 피해는 안 오지만 거의 날마다 가서 싸운다. 근데 천도교인은 달력 하나 갖다 놓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예천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예천군 전체에 천도교인은 한명도 없었다. 1894년 만여 명이 싸웠던 그 장소에 비석 하나 없다. 이번 순례 때 그때 만여 명을 이끌다 돌아가신 윤치문접주의 무덤을 처음으로 참배했다. 119년만에 동학을 한다는 이가 처음으로 그 앞에 참배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의외로 기독교인 집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기독교에서 동학에 더 관심 있었다. 대구 이웃교회가 그러했고 여기 글 적고 있는 강원도 고성 왕곡마을의 오봉교회가 특히 그렇다. 대구지역에 아직 수운큰선생님 돌아가신 그 장소조차 파악이 안 된 실정에 대구 이웃교회 형제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수운큰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 코스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오줌통의 그 왕곡마을의 옛 모습은 잊혀져가고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를 밝힐 사람마저 없는 실정, 이젠 그 기념비를 가꿀 사람도 없는 실정에 빠진 오늘의 동학을 고민하며 마을 앞의 동학기념비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변화시킬지를 오봉교회 목사님께 짐을 지어드리고 간다.

34년간을 안개에 쌓인 듯 걸어가신 해월선생님.

마치 이 모습 같고 저 모습 같은 해월선생님.

실패한 혁명, 힘없는 자, 소외된 자들의 철학이 된 동학사상…

지역의 활동가들은 동학에 심취해있었다.

왜일까?

각자 자신의 색깔로 그린다. 커다란 코끼리를, 자신의 색깔로.

충북 보은의 동학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관점이, 자신의 색깔이 선명하니 통일이 안 될 수밖에...

도대체 이 흐름을 어찌할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걸음을 멈추고 싶고, 짐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선생님께서 경기도 두물머리에서 해 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곳 두물머리에 와서 합쳐지는데 남한강은 “남”자를 버리고 북한강은 “북”자를 버리면서 한강으로 만난다.

그 처럼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려면 천도교인은 “천도”를 기독교인은 “기독”을 불교인은 “불”자를 천주교인은 “천주”를 버리면 교인이 된다는 말씀. 그러면 믿는 사람만 남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그리고 여기 오봉교회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다. 지류가 많을수록 좋다고, 본류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다.

그래, 하늘님을 붙들고 가자. 그냥 하루만 잘 가자.

주어진 길이라면 거부하지 말고 잘 보고 잘 듣고 가겠다.

강원도 고성 왕곡마을 오봉교회에서 길위 심고

길위 김창환 선생은 1월부터 5월까지 동학순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내년 12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동학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다.

봄밤의 꿈, 들살이

봄길 하혜영(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

들살이는 일종의 캠핑과 같은 것이다

캠핑도 여러 단계가 있다면 보은취회의 들살이는 장비가 없는 캠핑이라고 할까. 거기다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하는 캠핑이라고 해야 하나. 다양한 사람이라고 하면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 하룻밤 머물다 가는 사람, 머물지 못함이 미안하고 아쉬워 맛있는 것이나 지원금을 주고 가는 사람 등등

작년 보은취회에 길위학교가 들살이를 했다. 거기에 우리 아들 지철이가 함께 했고, 나도 같이 있었다. 사실은 나의 들살이에 아들이 따라온 것인데, 그 이유가, 엄마가 집을 일주일을 비우니 밥을 못 챙겨 먹을 것이 걱정된 우리 아들이 꾸역꾸역 따라온 것이 결국에는 119돌 보은취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주인이 된 셈이다.

보은취회의 들살이를 하기는 (내가 아는 존경하는 교장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야 할 수 있다. 나도 작년이나 올해 들살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은혜를 받지는 못했다. 작년에도 며칠 빠졌고 이번에는 며칠밖에 못했다. 보은취회의 들살이는 보은취회의 취지에 걸맞게 누구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처음 온 동학보은취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무리 어색해도 살아남아야 하고, 4월 보은의 산 아래 마을의 추위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작년의 나는 그 어색함과 추위에서 사흘을 견디다가 잠시 집에 가서 사흘 동안 힘을 보충하여 다시 사흘은 견뎌낼 수 있었다. 올해는 모든 준비가 되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발목을 잡아 아흐레 중에 이틀을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우리가 보은취회에서 들살이를 해낸다면 아마 무엇인가가 남을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추운 밤을 보내고 아침에 해가 뜨면 공원은 조금씩 따뜻해진다. 밤늦도록 술자리를 하다가 그냥 쓰러져 잔 관계로 씻고 싶어 비누를 들고 나온다. 설거지하지 하기와 내 머리를 감기에는 흐르는 물이 괜찮지 싶어 개울로 가서 머리를 감고 설거지를 하고,

아시반이 다섬이와 함께 지나가다가 내가 개울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수다를 떤다. 이 들살이 자체가 명상이 아니냐.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게 진짜다, 너무 좋다 등등 무슨 이야기일까?

다시 일 년이지나 이곳에 와서 밤늦도록 술자리를 하고 부스스 일어나 그 길을 다시 걸어 본다. 일 년 전 그 자리, 또 보은취회 그 때와 다른 사람들.

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작년 보은취회 들살이를 마치고 꿈을 꾸어 보았다. 계속 같이 있었던 길위, 들, 아시반, 청강님, 윤중선생님,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 같은 느낌이었고,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맛있게 먹고 편안히 며칠을 보낸 것이 마치 해방구 같았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웠다. 일어나면 하루의 일과를 모두 같이 정했고, 낮에는 거닐고, 밤에는 열심히 일하고 온 청강님과 음주가무를 즐겼다. 개울에서 아시반이 말했던 것 같은 우리끼리 갖다 붙인 의미들로 마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일 년을 다시 꿈꾸며 들살이를 중심에 둔 120돌동학보은취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결국 120돌동학보은취회가 들살이가 중심이 되지는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들살이가 마음속에 있는 듯하다. 많은 이들과 함께 한 본 행사 이틀도 감동이 있었지만 남는 감동은 결국은 들살이라는 추위 속에서 즐긴(?) 이야기 속에 있다.

공원에 둘러앉는 순간 들살이는 시작된다. 꼭두광대와 여민님이 어우러져 신나는 뒷풀이 후에 지영님의 청주엄마식당의 초대도 들살이의 연속이고, 추위를 이겨보기 위해 만든 거꾸로 타는 난로도 들살이의 성과다.

들살이가 캠핑과 다른 것은 우리의 들살이는 일 년 내내 계속되었고 앞으로 내년 보은취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120돌동학보은취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모여 회의랍시고 열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보은취회모임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흥이 있었고, 나는 그것도 들살이의 연속이라 여겨진다.

우리는 모르는 은혜는 들살이를 하는 이들이 받겠지

올해는 9일로 끝날 줄 알았던 들살이가 한 달이 더 연장되었다.

작년에 우연히 보은취회를 와서 들살이를 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주체적으로 120돌 보은취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데 힘들겠다. 고맙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고마울 따름이다.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해준 보은취회가 고마울 따름이다.

농담처럼 주막을 해보겠다고 한 것이 정말로 주막이란 것을 하게 되었는데 준비 없이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고 별로 맛있게 대접한 것도 없어 미안하기만 한데 그렇게들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 역시 고마울 따름이다.

내가 그리는 주막은 들살이를 하는 오고가는 인연들에게 국밥 한 그릇, 그리고 그날 저녁 안주를 내 마음대로 준비해서 같이 먹는 주막이다.

그런 들살이와 주막,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들살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며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평화의 한마당입니다

팔공(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

이곳은 보은 북실 동학농민 혁명 기념 공원입니다.

120주년보은취회행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이곳 기념공원에서는 들살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살이 …

개인적인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헐레벌떡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사람이 한울이니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염원 하나로 들고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을 돌이켜보자니, 스스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복잡함을 싫어하는 탓인지 '사람이 곧 하늘' 이라는 문구가 참 좋습니다. 구구절절 분석하고 쪼개는 문화에 익숙해진 세상에서는 선뜻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겠지요.

들 삶을 살면서 느끼는 점은 딱 한가지입니다. 진정 사람을 삶은 복잡함으로부터 단순함으로, 경쟁의 삶에서 함께 사는 삶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학사상은 단순히 선언적이고, 일시적인 사상이 아니겠지요. 지금여기에서 바로 실천하고, 실천하면 한울의 세상이 즉각 열리는 진리의 말씀임을 나름대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들살이의 생활을 매우 단촐 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순례하고 밥 먹고, 종종 찾아오는 한울님들과 막걸리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냥 잡니다.

구체적으론 기획하고, 준비하고, 치러진 동학기념행사는 분명 의미가 클 것입니다.

이와 함께 획일적이고 고리 타분한 일상의 삶에서 누리지 못했던 스스로의 내면을 조

명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여러 집회와 행사를 경험하였지만 '들살이' 라는 여유의 시간을 가져보진 못하였습니다.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삶 자체에서, 스스로의 삶에서 '한울님'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120여 년 전 돌아가신 수많은 한울님들의 뜻을 이루는 완성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살이 덕분에 지금껏 막연히 가져왔던 동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이나마 깊고 넓게 확장되어 간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120년 전 대규모의 들살이(보은취회)가 펼쳐진 장내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궁금증만 커져갑니다.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합니다. 아니 꼭 정리정돈이 안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숨 쉬고 있고, 한 사람, 두 사람 오고가는 인연에 충실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들살이가 저에게 준 은혜입니다.

천막 속 백열등 불빛 아래서
개구리 한울님들의 우렁찬 법설을 들으며

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정상혁 보은군수가 꿈꾸는 보은 동학의 역사와 미래

"아무리 화려한 역사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빛내지 않으면 암흑의 역사로 끝이 납니다. 잠자는 역사를 깨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게 해야 합니다."

120돌동학보은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군민들과 소통을 이루어 낸 정상혁 군수를 만났다.
이번 보은취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큰 관심을 쏟게 된 '보은동학'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정상혁 군수는 보은지역에서 발생된 동학의 뿌리부터 120년 간 이어져 온 잔 가지들까지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으며 역사의식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보은문화원의 사업으로 집중되었던 '보은동학제'의 오랜 지역적 한계를 넘어 올해 120돌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행사는 그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보은에서 태어나 유년을 보내며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120년 전, 취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는지 궁금했다.
어린 시절, 기억의 단편에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학군' 이 보은에 정착해서 식량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을의 천석꾼이셨던 정군수의 증조부를 찾아 산골짜기를 넘어 오는 길에 발길을 돌려 돌아갔다는 이야기만 얼핏 들었다고.
정 군수는 여러 해, 보은의 동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마을 사람들이 동학군들에게 자금을 조달해 온 흔적과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적 흔적들을 찾아 다녔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정상혁 군수가 바라본 이번 120돌동학보은취회와 앞으로의 보은동학은 어떤 의미인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보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조성된 일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 행사에 군수님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번에 기념공원을 가서 보고 너무 아쉬움이 컸고,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다 싶었고요.
그날 동학 기념탑을 처음 가 보았어요.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념탑' 이라니요? 기념이 아니고 '위령탑' 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탑을 왜 세웠는가를 물었어요. 왜 우리가 후손들이 이 자리에 탑을 세웠는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2600명이 여기서 희생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기념탑입니까?
누구나 와서 예를 갖출 수 있게 기념탑이 아닌 "위령탑"으로 이름을 고쳐야 합니다.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위령제 말입니다.
죽어간 사람들이 동학교도입니다.
천도교 의식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틀을 잡고 제례를 지내고 여기서 기념할 수 있도록 영령을 달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의미를 둬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탑이 너무 높아요. 기본적으로 탑의 균형도 맞지 않아요. 구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령탑은 죽은 자와 산 자와의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탑은 죽은 자의 영혼, 산 자의 간절한 소망이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그분들의 바람이 발전되어 상승하는 것, 이 지역의 역사성과 탑에 담긴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보은은 동학의 역사적 의미들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입니다. 저는 보은 군수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은의 동학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거나 유적지로 지정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며, 군민들과 전국각지의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과거를 생각하고 보은취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소로 누구든 와서 이 고장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세우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학술세미나를 진행할 수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갖춘 기념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민들께 자료 기증도 요청하고요.

다시 정 군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돌아갔다. 어린 시절에 바라본 보은은 어떤 의미였을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 8형제를 키우시면서 '이 놈' 소리를 한번 하신 적이 없어요. 어머님께서는 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셨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동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에게 이 보은 땅은 부모님과 같은 감동과 존경의 땅입니다. 그런 제가 보은의 군수가 되어 군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동학사상의 위대한 가르침을 생각하며 보은의 동학을 알리는 데 힘을 써야겠지요.

지역적 한계에 대해
해월 최시형선생이 단양 대강면 도설봉 밑에 있다가 체포명령이 떨어져서 야반도주를 하십니다. 왜 하필 이곳 보은으로 오셨을까요? 호남 영남을 통틀어 교통의 요지였고
청주 쪽으로 근방에 사시던 접주들이 핵심역할을 했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보은이 일본에 저항한 세력이 많았던 곳입니다. 단발령과 창씨개명에 저항한 백성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모으고 눈뜬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제대로 깨인 자가 있을 때 역사가 빛나는 겁니다.

보은지역의 동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120년 동안 보은에서 동학에 대한 책자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우리 보은동학을 연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비단 동학의 흔적뿐만 아니라 어떤 사유가 있었든, 심지어 일본군을 향해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게 저항 한 곳이 보은인데 기록하나 제대로 못 남기고 사료 하나 내려오는 게 없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역의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역사적 사료들을 찾고 계승하는 데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동학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삼년산성, 고분군, 동학, 보은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큰 프로젝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러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보은사람들이 누구나 반성할 일입니다.

보은의 동학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라도의 동학은 탐관오리에 대한 척결이, 여기 보은에서는 외세의 침입에 저항입니다.
그 의미를 크게 봅니다.

조선500년간 내려왔던 신분제도의 철폐를 열망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를 해방시킨 역사적 의미와 상통합니다.
인내천사상과 더불어 인본주의를 드러낸 근대 한국의 민주주의의 시작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리의 유적지화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행사의 한 부분이었던 동학학회 학술대회에서 문제제기 된 바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비단 올해만 다뤄진 이야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내리의 유적지화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역사적 조명의 필요성이 그 유적지화에 있습니다.
지금 동학기념공원의 기념탑을 위령탑으로 바꾸고 위령제를 거기서 지내고,
장내리에는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시형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동학정신을 복원하는 취회광장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물던 초막을 재현하고 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규모와 내용은 천도교와 보은군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거든요.
동학의 고장이고, 해월 선생의 업적, 발자취를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반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취회지 동학의 고장 원터를 동학의 정신을 계승 발전한다는 데에 위령탑과 공원보다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흔적을 살피고 원래의 의미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은의 동학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군수님께서 보은지역의 동학운동에 대한 자료조사에도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 96년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사가, 98년도에 광주 전라도를 아우르는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충북은 없었어요.
2004년, 제가 도의원시절에 2005년 “충북의 동학농민혁명사” 라는 책이 나왔어요.

군수님께서 행사 준비에도 열정적 관심을 보여주시고 일을 추진하시는 실행능력도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 행사에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일이 잇나요?
군민들의 생각에서 동학을 많이 잊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욕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올해보다 한 발짝 더 나가 내년보다 한 발짝 더 나가 점진적으로 우리고장에서 위대한 역사적 가치와 흔적을 군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보은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품게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은을 알리고 적극적 자세로 군민을 흡수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군민들과 전국에서 찾아 온 관광객들이 묵념을 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120년간 잊혀진 역사의식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군수님께서 보은의 동학의 뿌리를 찾고 그 꽃을 피우는 데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걸 정리해 보면, 우선 기념탑을 위령탑으로 고치고, 기념행사를 위령제로 바꿀 것입니다.
장안에 군민들이 동학이 일어난 자랑스러운 고장에 사는 사람이라는 역사의식을 갖도록 앞서 이야기한 바 있는 장내리의 유적지화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인내천 사상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인내천 사상으로 출발한 보은의 동학에 대한 책을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보은군정을 끌어가려면 역사와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21세기 수운과 해월을 찾아서
- 생명평화운동과 충북지역의 동학운동의 미래를 위한 담론 -

토론자 : 김태종 (목사, 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소장)
정　리 : 신채원 (편집위원)

김태종 : 보은에서는 아직도 120돌보은취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네요.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몇 조각 피어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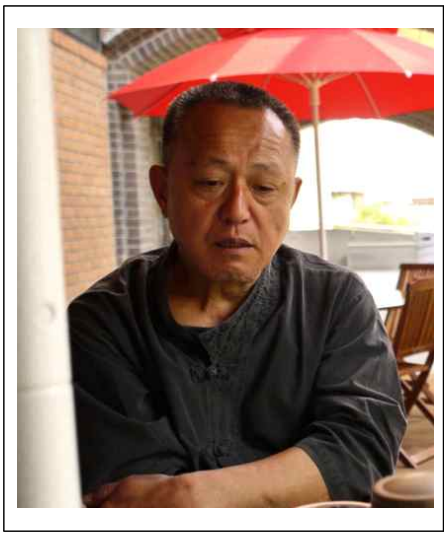
김양식 : 네. 저도 연구를 하는 학자의 눈으로, 또 충북도민으로서,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보고 왔습니다.

신채원 : 두 분께서는 충북지역의 역사적 산실을 연구하고 계시고, 생명평화운동에 오랜 세월을 바치신 바, 오늘 두 분께 생명평화운동과 동학운동의 미래에 대한 담론을 펼쳐주십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종 : 저는 이번행사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120돌 기념행사를 바라보면서 동학의 정신을 담아내는 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9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동학을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라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에 바라는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신채원 : 네, 기념행사에 취지문을 직접 쓰시고 또 인사말씀도 하셨죠. 인상 깊은 이야기

였습니다. 소장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김태종 : 보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혁명을 꿈꾸며 전국에서 모여든 죄 없는 백성들이 처참하게 피 맺힌 한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은 넋들이 분명 그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그분들이 묻기를,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김양식 : 동학정신을 놓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래도 다소 희망적으로 보았어요. 지금 전국에서 동학을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번 120돌보은취회는 지금까지 제가 본 동학행사 중에 가장 동학정신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다만, 한 달 전 쯤 보은군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지역단체들과 결합하면서 희석된 부분들이 있어요.
축제를 끌어갈 때 경계와 운영감각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죠.
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 그리고 행사를 서로 결합하는 지점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종 : 보은 땅은 동학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 숨 쉬는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인데 유적지로 지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양식 : 보은동학공원과 장내리 유적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수없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신채원 : 지자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모두 뜻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양식 :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내리를 어떤 형태로든 기념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종 : 요즘 흔히 유행하는 둘레길을 만드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동학이 지역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

가 생깁니다.

김양식 : 어떤 형태로든 장내리에 기념물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행정적으로 살피는 일도 중요하지요.

김태종 : 동학이라는 말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 넣고, 어떻게 형식을 결정할 건지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동학이 지향해야 할 지점, 이를테면 수운선생이 19세기가 아니고 21세기를 산다면 어떤 각성을 하실 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 당시 수운선생이 펼치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에의 그림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요.

신채원 : 생명평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보은동학의 미래적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떻게 생명평화와 동학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김양식 : 보은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소통의 지점입니다. 보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폐쇄성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21세기에 수운이 태어나서 고민했다면 각성의 넓이와 규모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행사에 박맹수 선생 초청강의가 참 좋았어요.
마지막 결론이 동학 당시에는 인간에 대한 위기였다면 지금은 전 지구적인 위기이다.
21세기 새로운 동학은 인간을 넘어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의 위기에서 지켜내는 동학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명확하고 바람직한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김태종 : 저는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수운 최제우이 각성이 21세기 생명평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그것은 수운 선생의 몫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수운선생이 깨달음은 인내천이라는 큰 화두인데, 당시 사회문화적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지, 그리고 21세기 우리가 보는 모순과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과 한계로

부터 나오는 부정, 부패, 비리를 척결하기에 앞서 수운선생이 제시한 새로운 세상은 바로 '개벽' 이라는 화두로 방향이 들어섭니다.

김양식 :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모순이나 한계로부터 나오는 현실사회의 부정부패,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수운선생이 보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이 생명평화와 연결되는 고리가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하층민의 위기였지만 이 시대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한 전체적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종 : 그 생명전체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수운선생께서 살아 계시다면 동학의 관점은 당연히 생명사상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감히 21세기를 생명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동학은 민족의 자산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로서 21세기를 수운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채원 : 네, 그 지점에서 학문적관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종 : 그보다도 동학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동학을 펼쳐내는 일, 인간에 대한 애정,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어떤 의미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수운선생과 해월선생의 정신을 보면 자연이라는 대상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양식 : 그런 내용들을 담아 동학의 정신을 바탕에 둔 이번 동학120주년기념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갈래에서 동학의 정신이 그 안에 깔려 있었음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김태종 : 그렇다면 다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양식 : 보은지역이 갖는 역사적 가치가 돋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라도는 갑오년을 중심으로 농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충북지역, 특히 보은은 동학의 산실이었습니다.
다 꺼져가던 동학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근 지역의 모든 동학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동학정신을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충북 보은지역에서 할 수 있고
매우 커다란 사건으로서의 보은취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동학농민혁명보다도 보은취회가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김태종 : 천도교 정신이 보은취회로 수렴되고 보은취회가 다시 동학혁명으로 환원되는 순환구조가 당시의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시대의 문제들이 다시 보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김양식 : 이번 보은축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신채원 :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은지역주민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김양식 : 다소 부끄러운 일도 있었어요. 2013 보은민회를 하는데 참여한 100여 명 중에 충북지역 사람이 4명이었는데 저와 경실련 이두영씨, 저희 두 사람을 빼면 그리고 단 두

사람이었어요. 진정성을 갖고 참여한 사람이 단 2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십 명이 왔는데 말이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명평화운동에 충북지역민들은 자각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생명평화운동을 해 오셨던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종 : 지역적 한계라고 보아야 할까요? 역사를 보면 난세에 목숨을 던진 사람이 있고 골방에 숨어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훌륭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비굴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죽을 사람을 낳습니다. 다 죽으면 역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충북지역주민들이 소극적인 이유는 행사를 주최하던 팀들이 소통을 이루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골방에 숨어 살아남으신 분들과 같다고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끌어내 다시 동학이라는 불씨를 피워내는 데 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김양식 : 지금까지 충북지역은 동학혁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난리였고, 과거의 사건이었고 실제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자료조사가 이루어졌고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 보은 장내리 93년도에 종합적 학술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시도조차 안했다는 겁니다.
절차자체를 모르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신채원 :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살아있는 운동으로 펼쳐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죠.

김태종 : 이번 행사의 아쉬움은 분야를 망라해서 적어도 건강하게 시민사회운동, 민중운동, 농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 하나쯤 만들어 냈다면 생명운동 차원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김양식 : 이번 행사의 문제점은 주로 모심과 살림연구소, 천도교 교인분들과 논의를 하다 보니 생명에 초점에 맞춰 힘을 받기는 했는데, 그 외에 여러 단체와 연대를 이뤄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커요.

김태종 : 맞습니다. 지역에서 힘을 실어줬어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할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일부터가 해야 할 일이란 걸.

신채원 : 보은 안에서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해하고 가야하는데, 역량이 너무 부족한 이유도 있습니다.

김태종 : 우리가 한때 진보운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예수를 찾는다면 누가 예수였을까 하는 화두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가 수운이 한 분이셨고, 둘째가 전봉준이었고 셋째가 전태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시대의 예수다라는 거죠.
어쨌든 나는 동학이 동학정신 자체가 우리민족의 재산임을 바탕에 놓고 건강한 운동세력을 모두 동학인이라고 묶어놓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동학정신이고 거기서 생명평화운동도 그 부분으로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식 : 현실적 당위성이 충분이 확보되어야 할 일이죠. 생명평화운동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는 결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학자들이 그런 마인드가 열려있지 않아요. 생명평화운동은 현장운동입니다. 현장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겠죠.
학계에서는 당위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김태종 : 내년에 2014년 충북 동학인 100인을 선정하거나, 이 시대 살아있는 동학인을 선정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각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시대의 수운, 이시대의 해월을 찾아 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김양식 :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번에도 살아있는 동학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천도교 한울연대 분들을 보니, 삶의 방식과 생각들이 다르더라고요. 뼛속깊이 동학도 분들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북지역이 여러 가지 의식면에서 참 척박하지 않나 싶어요.

김태종 : 어땠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충북은 전국에서 반골기질이 강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사회참여운동에 충북이 빠지지 않았어요. 해월 이후 의암 선생이 천도교 3대 교조가 되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독립선언 33인 중에 충북출신 6명이었다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일제가 문화통치를 하면서 충북인의 기상이 완전히 꺾였고, 청주읍성이 망가진 것도 그

것과 상통합니다.

김양식 : 1950년대까지는 충북의 인물이 많습니다. 60년대 이후부터 인재가 끊깁니다. 6.25때 보도연맹 학살사건 이후로 충북인의 기상이 상당부분 움츠러들었다고 봅니다.

김태종 : 저는 6.25가 끝나기 전에 태어났는데 6.25가 까만 옛날에 일어났던 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스무 살 무렵 보도연맹 이야기를 듣고 동네 어르신들게 여쭤보아도 모두 약속하신 듯 말씀이 없으셨더라는 거예요.
동학에서 좌절하고 일제에 좌절하고 6.25때 까지 3번의 좌절이 충북을 매우 소극적인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식 : 저는 연구실에만 있으니까 실제로 생명평화운동 사례들을 보면 청주지역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요, 동학의 정신, 전국적 운동 네트워크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태종 : 그렇습니다. 전국단위와의 교류는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제가 수십년간 시민운동을 해 오면서 그래도 시민운동을 청주처럼 건강하게 하는 데가 없다고 보았어요.
조금 이야기가 돌아갔습니다만, 충북이 동학운동의 시작과 끝이라고 봅니다. 이번 행사를 무사히 치러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가능성의 확인이 아닐까요? 조금 느리지만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내가 살아서 충북이 다시 느티나무처럼 잎을 피우는 그림을 본다면 그것 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신채원 : 결국은 화합의 지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분명해 질 테니까요.

김양식 : 충북은 지금 모든 면에서 틀 안에 갇혀있습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김태종 : 동학운동과 생명평화운동이 앞으로 어떤 고리를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고 걸어갈 것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운동 판에서 우리가 옹달샘이 되어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양식 : 그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역 안에 갇히면 한계에 부딪칩니다. 동학의 정신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맞서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평화사상의 기초를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동학정신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채원 : 오늘 두 분께서 나누신 말씀들이 생명평화사상에 뿌리내린 동학정신과 이를 꽃피우는 21세기 동학인 들에게 많은 지혜로 스며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그래서, 희망입니다

- 보은취회120돌을 건너 동학농민혁명120주년으로 -

이 시대의 동트는 산맥, 소설가 채길순을 만나다

『동트는 산맥』, 『흰옷이야기』, 『새로 쓰는 동학기행』 등을 통해 오랜 세월을 동학 이야기와 동학연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동학을 노래하는 소설가 채길순 선생을 만났다.

선생은 심한 감기몸살에도 불구하고 120돌 동학 보은취회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와 다소 지친 모습이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동학에 대한 애정과 역사를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져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보은에서는 120돌 동학 보은취회 기념행사가 끝나고 들살이가 진행되는 동안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자 그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 명지전문대학 연구실을 찾아 보은취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에 대해 귀 기울였다.

필자는 취재에 앞서 선생의 작품을 찾아 읽었는데, 소설가 채길순 선생의 동학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작품에 녹아 있어서 마치 그 시대의 어느 언저리에 있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작품을 쓰면서 충청도 동학의 역사를 온 몸으로 체득하고, 작품을 통해 동학을 널리 알리고 있는 선생이야말로 이 시대의 '동트는 산맥'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동학을 소재로 쓴 작품이 많은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동학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전라도 전봉준 중심으로 역사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그러다보니 내가 몸담고 있는 충청도 동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지요.

충청일보에 장편소설『동트는 산맥』을 연재하면서 동학의 흔적이 충청도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비로소 충청도 동학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저와 동학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 공부와 답사를 시작했고, 자연 그 곳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지요.

원래『동트는 산맥』은 한 달짜리 중편소설 연재 계획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신문사 문화부장이 이 이야기 재미도 있고, 들려줄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며 장편소설로 연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3년 간 연재 했습니다.

충청일보에 장편소설 말고 답사기를 두 차례 더 연재 했습니다. 그 만큼 충청도 지역 구석구석 동학 흔적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충북 영동이 고향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사를 하시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웠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영동군 황간면 회포리가 집인데, 바로 옆 동네 '수석리'라는 데가 있어요. 동학혁명 당시 그 마을에 '이용강 대감'이 귀양살이를 했는데, 고종의 6촌 형이 되는 이용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경상 감사를 지낸 사람인데 도둑질을 많이 해먹은 죄로 이곳에 귀양을 와 있었어요. 귀양지에서도 어찌나 수탈이 가혹했던지 근동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영동 황간 지역에 손해창, 백학길, 조재벽 등의 동학 지도자들이 이끄는 동학교도가 많았고, 이용강은 동학 농민 혁명 시기에는 동학교도의 공격을 받았지요.

흥미 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용강 대감이 죽어서 유언대로 왕족 상여를 타고 경상도 어느 명당자리를 찾아가는데, 상여가 추풍령을 넘어서려 하자 경상도 사람들이 상여를 막고 나서서 "살아서 이용강이지 죽어서도 이용강이냐? 도둑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여를 막는 바람에 되 돌아와 수석리 마을 뒤에 묻혔습니다. 왕족 상여는 장례가 끝나면 불태우는 전통이 있었지만 주인에게 한을 품은 종들이 빼돌려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왕족상여가 유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용산면 신항리에 남아 있는 왕족 상여가 그런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근동에 동학교도가 많았다는 점도 당시 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사례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나고 자란 옆 동네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부터 근동의 동학두령들이 상주 소모사 김석중에게 잡혀서 총살되었고, 용산장터 싸움이 있었다는 역사 기록을 찾아보고 나서 이 나라 곳곳에 동학의 흔적이 산재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백성들이 봉건 정부의 견딜 수 없는 폭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충청도가 동학교도 활동이 성했던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동학의 확산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충청도 동학은 최시형 선생이 단양에서 산맥을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지요. 청풍, 충추, 괴산, 음성으로, 들불처럼 충청남도와 경기도 전라도 쪽으로 번져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주, 조치원, 옥천, 영동, 황간, 보은을 거쳐 팔음산을 넘어 경상도 상주 예천 등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최제우 재세 시기에 보은 상주 황간 영동 등지에 이미 동학교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지하 점 조직으로 미미하게 존재 했다가 다시 들어온 셈이지요.

충청도 전 지역에 동학이 매우 성했지만, 특히 보은을 중심으로 한 영동, 옥천 이쪽에 동학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청주에는 손병희를 중심으로, 음성 쪽에 신재련 접주가 등장하지요. 괴산, 충주 음성 지역에 손병희, 신재련과 같은 출중한 동학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동학지도자들의 스승이라고 칭하는 서장옥 접주가 있습니다. 서장옥은 1880년 이전에는 수원에서 동학을 포교하다가 충청도 청주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서장옥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수원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청주로 포교 활동 지역을 옮겼습니다. 서장옥은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봄부터 가을 청주성 전투를 주도한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1897년에 손천민과 함께 청주 산성 부근에서 붙잡혀 교수형 당했습니다.

서장옥은 청주에서 최시형, 손병희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서 동학운동을 강경하게 전개하게 되지요. 따라서 온건파인 최시형 손병희가 강경파 서장옥이 서로 대립했다는 견해는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중심으로 내포 지역에서는 4대 교주를 지낸 박인호 대접주가 나서면서 충청도 동학이 충청남도 지역 쪽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렇게, 동학지도자들이 충청도 지역 곳곳을 장악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청도지방이 동학운동에 있어 비중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필 왜, 충청도 지역이었을까요?

동학이 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 2세 교주 최시형이 단양 쪽에서 넘어오기 전부터 이

미 청주에 서장옥 손병희, 예산의 박인호 같은 걸출한 동학 지도자들이 단양 은거지로 찾아와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 뒤부터 이 지도자들이 공주집회 삼례집회를 주도합니다. 이어서 청주 솔뫼마을에 도소를 차려놓고 광화문 복합상소를 계획하지요.

동학교도들이 광화문 복합상소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과거를 보러 가는 유생으로 가장하여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앞에 엎드려 상소문을 내고 내려오게 되지요. 동학 교단은 광화문 복합상소를 통해 절망과 희망을 함께 읽습니다.

광화문복합상소를 계기로 1893년 보은 장내리 집회를 계획하는 계기가 된 것이 희망이고,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은커녕 동학교도 탄압이 한층 가중되는 현실이 절망이지요.

보은 장내리 집회는 동학교단이 민중들의 뜻을 모아 이루어지게 된 민회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우리 오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게 된, 또 뿌리가 내리게 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은 장내리의 중요한 역할이 또 있습니다. 1880년대에 장내리에 도소를 차리게 되면서 경상도 상주 예천 선산 김천 지역으로 다시 동학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영동 옥천 황간 쪽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금산 진산 등 전라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즉 동학 포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세 확장의 중심지 장내리는 결국 보은취회의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까지 모든 동학교도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지요. 보은에 동학 대도소가 들어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보은취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공주 집회, 삼례 집회, 원평 집회, 광화문 복합상소와 같은 이전에 동학교단이 주도 했던 민중운동으로 힘이 축적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러기에 보은취회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민중들의 뜻을 표출할 계기가 되었지요. 이는 곧 시민운동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 민족사의 '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세미나 때 토론자로 나서 문제를 제기 하셨던 장내리 기념 공원 조성과 유적지화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동학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애초에 보은 장내리 집회 기념공원 조성도 함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동학공원만 만들어졌고, 장내리 기념공원 조성은 도외 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요구해오던 장내리 사적지 지정을 외면했지요. 그 후 장내리 유적지는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사와 묘지가 생겼고, 돌성 유적 위에는 시멘트를 들이 부어 농로를 만들었지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보은군에서 장내리를 공원화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그 후에 '역사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는 바람에 파괴된 셈입니다. 군의 무지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와서 군이 장내리 취회의 역사적 가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가야할 문제 같은데, 갈 길이 바쁘지만 멀리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보은취회의 전사인 공주취회나 삼례취회지에 가보면 조형물과 기념비가 잘 조성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잘 된 것만은 아니지만, 이를 거울삼으면 보은 장내리 취회 기념공원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은 장내리 기념공원은 군의 독주로 진행된 '보은동학공원'의 나쁜 사례도 충분히 반영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역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조성해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은 군차원도 있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닐까요?

우선 군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도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먼저, 군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군에서는 보은 장내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시멘트 포장을 뜯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공감하지 않거나 못하는 기념 공원은 전시 행정이 되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은취회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민중들의 뜻도 중요했지만 민중을 이끌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보은군의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보은 장내리 유적지 지정이 시급합니다.

사적지로 지정되면 학자 등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세워진 기념 공원이라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바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조형물이 될 수 있겠지요.

이번에 민중들의 자발적인 논의 구조로 보은민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보은 장내리

집회가 오늘 날의 현안에 비추어 우리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장차 논의해 보아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890년대 이전은 민란의 시대였습니다. 민란은 억울함을 직접 표출할 수 있는 운동 이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주동자들이 효수되거나 가족이 효수되는 비극을 뼈 아프게 경험했지요. 거듭되는 민란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그 원성을 모아 이끌어줄 지도자였습니다. 지도 이념이 없는 민란이란 반란으로서의 참혹한 비극만 남는다는 것을 깨닫고, 보은취회는 지도자와 이념이 결합되어 이를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한 집회입니다. 보은 장내리 집회가 이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이념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이를 통해 부여할 총체적 의미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 보은 장내리 취회에 대해 애정이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20돌 보은취회를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여러 해를 지켜보면서, 실은 그 맥이 끊이지 않을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미흡하나마 올해도 잊지 않고 이어 가고 있구나 안심이 되기도 했고, 조금 더 미리 계획했다면 더 훌륭한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은취회 행사가 갖는 의미는 전국에서 뜻 있는 접주들이 모였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손님들 음식 대접을 하는 모습도 좋아 보였습니다.

동학의 글로컬리케이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화, 지역화에 대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동학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은군은 다른 군에 없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나서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나 학교에서도 보은 동학을 알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토대 위에 보은 동학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은 동학에 대해 다룬 영상물이 있고,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급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기획된 동학 행사가 가장 보은적인 행사이고, 가장 세계적인 문화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동학혁명 120주년이 되는데 내년에는 올해를 거울삼아 조금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년 역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동학교단이 이곳 장내리에서 9.18 재기포를 선언합니다. 1893년 장내리 취회와 달리 1894년 9.18 재기포 선언에 따라 다시 모였을 때는

전의를 다지는 취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이 되었을 때 비장한 각오로 일어섰던 겁니다.

손병희 통령이 이끄는 호서 동학농민군은 논산으로 이동하여 전봉준이 이끄는 호남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공주를 진격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공주 전투는 일제와 봉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위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단군 이래 이런 싸움은 없었습니다.

공주전투에서 패한 이후 다시 장내리로 돌아와 철저하게 파괴된 장내리를 보고 보은읍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북실로 들어갔다가 일본군과 상주 소모군의 총격을 받아 2700명의 무고한 동학농민군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기려야 할 지 군이 멍석을 깔아주고, 학자와 시민 단체, 군민이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120년 전 선열들의 열망으로 시작된 보은 동학의 엄숙한 역사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은 동학이 지니는 미래적 가치에 대해 정리해 주시지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실체를 찾아내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행사를 기획해서 오늘의 마당에 펼쳐 놓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의미를 계승하자는 의미지만, 결국 미래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일 아닙니까? 이를 위해 먼저 보은군과 보은 사람들이 보은 장내리의 위대한 역사를 알아야 하고, 북실의 참혹한 전투의 비극을 가슴으로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땅이 위대한 정신이 깃든 곳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보은 장내리 기념 공원 사업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 상징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내리 현장은 어긋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만들어 놓은 것 보다 앞으로 더 훌륭하게 만들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희망입니다.

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보은취회와 보은동학의 미래적 가치

- 동학이 전하는 삶의 전환 -

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한양대 교수와 함께

보은에서 120년 전에 취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서민의 삶 곳곳에서 비참함이 묻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은취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보은에서 120년 전에 많은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 삶이 힘들었던 거죠. 그게 표어로 나타난 게 보국안민이었습니다. 지역 관리들의 학정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신분차별,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삶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당시는 서세동점시대였기 때문에 외국의 군대가 청나라를 점령하고 외국의 군대가 한반도로 곧 쳐들어온다는 위기에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런 서세동점시대의 위기감들이 작용해서 보은취회의 가장 큰 명분은 척왜양창의, 보국안민 그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은 취회부터가 척왜양창의를 부르짖는 교조신원운동에서 동학운동으로 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종교적 포교활동에서 사회변혁운동으로 가는 시점이 보은취회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수운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할라고 하는 보은 취회에서 외국 군대, 청나라 일본 러시아 조정은 사로잡혀서 자존심도 없고 그렇게 국가의 이익, 백성들의 이익을 다 포기하고 인간이라면 자존심을 가지고 의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조정의 임금부터 신하들까지 외세에 의존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엎드렸더라는 이야깁니다. 이에 항거하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보은취회입니다.

전라도지역은 동학의 발상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그것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은의 동학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관점으로 갈라집니다. 보은취회와 보은동학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할 때 보은 취회의 역사적 의미가 학술적으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은 취회가 가진 의미가 동학혁명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은취회가 가진 “민회”라고 하는 의미를 어윤중이 씁니다. 민회가 가진 역사적, 정치적, 사상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은취회와 별개로 민회가 가진 의미, 직접 민주주의의 열망.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염원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열망을 응집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보은취회'였습니다.

이번 120돌동학보은취회에서도 '2013 민회'가 열렸는데요,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한 그 시절의 백성들의 열망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완벽히 이루어냈다고 불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120년 전에 생각했다는 건데요, 민주주의의 열망과 동학은 어떻게 고리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서구의 다수결이라고 하는 합리성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생명사상, 동학이 가진 사람이 하늘이고 만물이 하늘인 세상이 그 당시 꿈꾸던 모든 열망이었을 겁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함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서구의 철학적 기반이 동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학은 인간의 본성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성선설을 말합니다.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견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고 새로운 주체의 탄생 모든 사람들이 하늘마음을 가진 하늘의 백성으로 자각되고, 그것이 뒷받침 될 때 좋은 세상이 됩니다. 제도와 법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한계는 다수결의 합리성을 다른 말로 하면 다수에 의한 폭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동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생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자연과 생명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법적으로 보고 나와 너를 가르고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연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해월 선생님은 천지가 부모라고 말씀하셨죠. 천지가 주는 곡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천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숨결을 준 천지부모라고 하는 해월 선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첫 마음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학에서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사상은 결국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서양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20세기에 반성했죠.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

주의를 비롯한 포스트담론들은 모두 자기반성인데, 그런 자기반성의 끝에서는 결국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학에서는 인간중심주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생명을 한울님으로 귀하게 모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말 못하는 생명들, 저 바위도 죽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물학으로 무생물이라고 규정하지만, 다 살아있습니다.

돌과 흙이 순환하면서 전체 생명이 돌아가는 것이고. 공기가 숨 쉬고 햇볕을 받고 땅의 기운을 맞이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천도교적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의 영성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고 내 안에 하늘의 기운과 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동학의 시천주 사상인데요. 생명을 바라보는 근본적 전환을 통해 우리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초가 보은에서 백성들의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은은 해월선생께서 5년을 계시면서 대두목들을 양성한 곳입니다.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은 땅에서 120년 전에 혁명을 꿈꾸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와 보시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북실에 오전에 갔다 왔는데, 몇 번 왔었지만 오늘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2천6백 명이나 되는 동학군들이 여기서 학살되었다는 것.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술논문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이나 강정, 천안함과 관련된 영화들이 제작되었듯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은취회와 동학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외국 군대를 끌고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처절한 이 땅은 말이 없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현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뼈아픈 역사로 점철된 보은동학과 보은취회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학이 가진 현대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학이 가진 가치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서양학문은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백색신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백색신화에 빠져 있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지식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동학이 크고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서구문명, 서구 근대성의 위기인데 대안은 동아시아나 인디언 영성, 티벳이 가진 오래된 미래, 이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입니다.

유학도 아니고 노자 장자 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생적이고 근본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학입니다.

해월선생께서 천지를 부모를 모심, 수운 선생께서 하늘을 내 안에 모심을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가 아닌 신령한 존재입니다.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등사상 말고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신성한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학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천지는 물리적 자연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 영성입니다.

천지부모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 안에 살고 있고 내 안에 그 생명의 영기가 모셔져 있는 것. 이러한 생명사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죽어가고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이 모든 근원이 생명에 대한 경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꿔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넘어 생명에 대한 경외지심. 공경하는 마음 그런 세상을 만드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말하자면, 서구의 근대성, 근대철학, 산업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동학입니다.

이번 보은취회120돌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 "삶의 전환"만이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전환"의 방향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욕망과 탐욕, 물질적 편리성에 안주하고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들, 자연을 생각했을 때 지속가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화기화, 마음이 화평이지고 기운 자체가 화해진다.'

'수심정기, 마음을 항상 지키고 하늘마음으로 유지시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바뀌고 기운이 바뀐다' 는 뜻입니다.

먹거리와 에너지, 석유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삶, 먹거리 밥상에 올라온 음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잘 알고, 제대로 된 생산과 유통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가 올수 있도록 하는 삶, 적게 먹고 생명력이 가득한 먹거리로 밥상에서부터 전환이 일어나야 하고 에너지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결국 동학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대문명은 과학에 의존해왔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결국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소박하고 청빈한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물줄기를 형성하고 나면 처음에는 가는 물줄기겠지만 새로운 문명에 대한 대안이 되어 나중에는 모두가 그 물줄기 안에서 생명을 이루고 함께 가는 길,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학이 주는 미래적 가치와 의미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하고 사소하게

- 보은 동학과 함께 해 온 시대를 담는 그릇, 김성장 선생 -

보은취회120돌 행사장 곳곳에 펄럭이는 걸개글씨들은 푸르게 펼쳐진 하늘에 발을 담그듯 펄럭였다.
역사가 남긴 말들을 담아 낸 걸개글씨는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렇게 펄럭였다.
가슴이 벅차기도, 아프기도 한 그 말들을 우리 역사는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그렇게 펄럭이고 있는 것이다.
김성장 선생을 만나 보은취회에 참여해 온 시간들을 비춰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작품을 주셨던데, 작업과정이 오래 걸리셨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품은 틈틈이 썼어요. 이번에 20점정도 썼어요. 옛날엔 더 했죠. 심한 경우 100장도 썼으니까요.

적당한 순간에 카피를 뽑아내서 쓰는 게 오래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글씨의 내용들은 어떻게 골라서 쓰셨나요?
사발통문의 내용에서 따 온 말도 있고요, 동학 관련 책들을 봤고 떠오르는 이미지에 따라 글씨를 직접 골라서 씁니다.
오래된 말들이지만 글씨 하나로 이미지가 되는 글들이 많아요.

보은동학에 언제부터 힘을 실어주셨나요?
99년도에 보은동학행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초기엔 행사 기획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옥천으로 옮기고 나서는 글씨로만 참여했고요.
처음에 안내 표지판 세웠어요. “북실진달래” 라는 말을 썼죠.
그 작업이 참 좋았어요. 보은의 동학이 온전히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 같아서요.
채길순선생님과 답사도 다니면서 꽤 의미있는 일들을 많이 생각했었지요.

해월 선생께서 보은 취회를 소집하고 광화문 복합상소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보은은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뭉쳐서 북실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그 의미를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라도 지역에는 스타들이 많잖아요. 손화중, 김개남, 전봉준.
이쪽 지역에는 직접 일을 벌인 화려한 스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역적인 취약점이죠.
역사적으로는 취회가 발생한 보은, 동학군이 집결했던 옥천, 재기포령을 내린 청산. 그리고 북실의 마지막 전투.
이렇게 최후의 결전지로서의 의미가 크죠.

북실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벌판을 바라보고 있으면 황망했죠.
그나마 표지판을 세우면서 '아,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구나' 생각을 했죠.

학문적이나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보은취회는 절망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상상을 해 보았어요. 보은취회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당시 보은 취회 때, 김구선생이 오셨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모든 역사는 결국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에 동학에 관련되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 자기 시대에 요구를 과거의 그릇에 담았을 겁니다.
동학은 1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헌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 그것들은 모두 과거에서 가지고 와서 담아낸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원하고 바라는 세상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는 가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충청도지방의 동학이 갖는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해월 최시형 선생이 그야말로 게바라를 능가하는 게릴라죠. 혼자서 보따리 하나를 지고 백두대간을 넘나들잖아요.
30년간 관군에 쫓기면서 레지스탕스처럼 활동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대단한 레지스탕스가 역사상 있었나요?
그렇게 쫓기면서, 그야말로 반역죄에 해당되는 인물이 지속적인 도피를 거듭하면서 계속 포교활동도 했다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면 감탄이 나와요.
개인이 뛰어 났기 때문인가, 시대가 허술했나, 위대한 민중들이 도와줬나?
놀랍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보은취회가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아마도 취회가 열린다면 다양한 의사를 나누겠죠.
희망과 소망이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겠지요.
그것이 어느 시기에 따라 거대한 하나의 초점으로 집결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거죠.

동학이 가진 생명사상을 학교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모든 권력이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사회 각 분야가 굉장히 촘촘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학교도 그렇습니다.
교과서 진도 맞추기가 어렵고 틈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너무 촘촘해서 아이들과 무엇을 같이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시대의 특성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농경사회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크나큰 원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 고통과 결핍의 기억이 없습니다.
결핍은 단지 부모의 사랑이 결핍일까요?
그 결핍은 물질적 결핍과는 다릅니다. 역사적인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서적으로 튕겨 나가는 느낌입니다.

이번 보은취회때 열렸던 보은민회에서 결국은 전 지구적인 위기로, 생명평화의 관점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는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원인은 현재 조건 속에 청소년 사회의 모습은 인간에 대해,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아이들이 습득했기 때문이에요.

게임이나 사이버 스페이스에 길들여져, 그 안에서 언제든지 자아가 리셋이 가능한 것처럼 혼재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만 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게임, TV등에 반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과 동학을 기초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사람이 하늘' 이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어로 번역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인내천 이라는 개념은 혁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요즘 말로 하자면 생명평화와 가까운 말일 수 있겠죠.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등, 자유를 말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번 보은취회 120돌 행사에 대안학교 아이들이 와서 락마당 공연을 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이들과 무엇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행사에 와서 무엇을 한다면, 직접 무언가 몸으로 만드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학군들이 120년 전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체험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톱질도 직접 하고 말이죠. 집은 못 지어도 초막은 금방 짓거든요.
지금도 가능 할 것 같아요.

천도교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동학과 맞닿는 지점은, 그래서 마음을 잃지 않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야겠죠.
요즘 내 생각을 보면 계속 '소소하고 사소해 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가'
그걸 소소하고 사소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예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결국 힘이 모아지고 흩어지다가 또 때가되면 모아지겠죠. 그건 한두 사람의 몫이 아니고 그 시대 모두의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큰 숲

바우솔 김진호(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

붓 한 자루로 세상을 그리는 사람, 바우솔 김진호 선생.
그는 어떤 세상을 꿈꾸며 붓을 들었을까.
보은취회는 백성의 꿈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그려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집회로 알려져 있다.
120년이 지난 올해, 2013 보은취회는 어떤 꿈으로 기억될까?
벌써 10여 년째 보은취회를 함께 준비해 온 그는 또 어떤 꿈을 안고 보은취회에 뜻을 같이 모았을까?
플랭카드, 안내책자, 초대장, 어디에도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120돌 보은취회를 맞이하는 느낌은 어땠을까? 늘 처음 발을 떼는 어린아이의 마음가짐으로 보은취회를 함께한다는 그는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으로 어울리는 모습이 늘 새롭고 설렌다고 말한다. 늘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세로 때를 맞이함. 그런 마음가짐이었을 것이다.

27일, 120돌 동학보은취회기념식 행사가 열리던 날이었다. 선생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동학도들과 보은군 지역주민들에게 휘호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작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물었다.

"보은취회에 처음 참여 했을 때 장안의 보습산 소나무를 생각했어요. 늘 푸른빛으로 우

뚝 서 있는 나무를 그리고 싶었어요. 사람이 하늘이라면, 사람은 나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인디언들이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마라. 그대도 걸어 다니는 나무 한 그루이다."라 했다죠. 어쩌거나 '솔'이라는 글자를 소나무처럼 쓰면서 소나무 숲을 그렸어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큰 숲이 바라 하늘이겠다는 생각에요."

동학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늘이면서 나무라면 그 얼마나 가슴 벅찬 표현인가. 어쩌면 선생이 붓자루를 들고 꿈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매 해마다 보은취회에서 그렸던 글자들은 어느 하늘에선가 둥둥 떠올라 민중의 가슴 속에 또 하나의 희망으로 빛나고 있을 것만 같았다. 보은취회 모든 행사에 그의 정성이 닿지 않은 데가 없었는데, 선생은 이번 행사를 어떻게 보았을까.
120돌을 기념하는 행사라 그런지 지난해보다, 더 큰 기대를 품고 지켜보았다는 선생은 지역주민과 전국각지에서 모인 접주들이 어울려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다고 말한다.
또 120돌 보은취회와 미래의 보은취회가 갖는 지향점인 "삶의 전환"에 대해, 사람의 본디 모습을 제 속에서 찾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그는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가장 큰 가치라고 힘주어 말한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여러 가지 빛깔의 공연과 어울림이 보기 좋았지만 보은취회의 의미를 하나로 꿰뚫는 힘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부드러운 시선에 통찰력을 더해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아울러 120년 전과 같이, 지금 보은에서 취회를 연다면 동학정신이 보탬이 되어 더욱더 다양한 문화의 힘을 모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두 눈이 반짝였다.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선물'이라 했으니, 120년이 지난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지금 현재를 흐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뿐이라는 말과 함께 환하게 웃었다.
끝으로 선생은 이런 말을 전한다.
"예전의 '농민'은 오늘의 '농민', ''노동자','민중', '시민'이겠죠? 비틀어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생각들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동학사상과 상생, 평화의 노래

- 꼭두광대 장철기 대표와 함께 -

이번 보은취회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데요, 꼭두광대에게 보은취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동학이 있고, 보은이 있고, 취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두광대도 보은취회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내년에도 준비하고 참여하고… 보은에서 저희 꼭두광대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작년에 동학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드셨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보은 사람은 아니지만 동학 작품을 꼭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보은하고 인연이 좀 있는데, 사회패에서 첫 공연을 한 곳이 보은이었고. 전에 있던 극단에서 동학에 대한 작품인 ‘북실진달래’ 공연에도 참여했었습니다.

또 보은에 연습 공간을 알아보기도 했었고 학교 수업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은에 ‘동학’이 있다는 거였죠.

동학작품을 만들려고 공연장 상주단체를 보은으로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죠. 그래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료조사를 많이 하셨겠네요. 주로 모티브를 얻었던 주제는 어떤 게 있었나요?
동학작품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동학의 이념이 좋아서요.
책이나 시, 판화 그리고 보은에 전해지는 이야기나 전설, 민속 등 많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근래에 동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품을 쓰거나 하는 팀들이 없어요. 기존의 동학에 대한 공연이나 영화도 보았고, 또 동학공원에서도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비석에 쓰여 있는 글들을 보면서 많은 모티브를 얻었어요. 상징탑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작품들과 글들이 많거든요. 무명전사가 써 놓은 글들이 개인적으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걸개그림으로도 제작했죠.
제목을 찾아보면서 '눈자라기'라는 말에 이거다 싶었죠. 눈자라기라는 말의 의미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꼿꼿이 서지 못하는 아이, 우리가 바라보는 동학의 현재의 위치,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동학을 이 정도가 아닐까 싶었어요.

작품의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나요?
극에 등장하는 "우는나무"는 보은 회인 쪽에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나라에 큰 우환을 알려주려고 눈물을 흘리는 나무가 있었더라는 이야긴데, 아직도 울고 있다는 전제로 작품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보은군에서도 상주단체, 그리고 작품에 갖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올해는 특히 눈자라기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눈자라기가 지역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보은 동학에 대한 공연을 봤으면 해서입니다.
보은은 인구도 적도 경제자립도 또한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보은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품이 많고 제작하는 데 손이 많이 가는, 남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부질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작품들은 제작비를 들인 만큼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런데 눈자라기는 일반적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면도 있죠. 근데 또 올해 하반기에 동학 작품을 합니다.

이전의 공연 "꽃을 사랑한 호랭이"에서 강조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강자가 약자를 감싸 안는 장면이 눈자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호랑이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랑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며 그 호랑이가 기상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호랑이와 아이는 화가 이홍원 선생님의 작품 '꽃을 사랑한 호랭이'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작품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상생'입니다.
앞으로도 꼭두광대의 공연에는 호랑이와 아이를 계속 등장할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모든 작품의 기본 바탕입니다.
꼭두광대가 지향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동학이 워낙 힘 있고 가진 자들에 의한 폭정을 견딜 수 없었던 민초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이루어진 운동이거든요. 작품에도 그런 의미가 녹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상생을 이룬다는 상징적 의미가 호랑이와 아이의 등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 위아래 상하관계가 존재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감싸고 포용하는 것, 그게 상생의 기본 바탕입니다.
저희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악사, 스텝들이 같이 움직이고, 한번 작업을 같이 하면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상생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대에 섭니다.

실제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어린이극을 만드시는 데 아이들의 눈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극단의 모토 중 하나가 '아이들이 자라야 할 세상(음악, 그림, 이야기 세상)을 작품화'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어린이날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이십니다. 방정환 선생은 동학의 3대 교조이신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되시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자 생각해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동학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모든 작품에 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커가는 세상을 꿈꾸면서 공연을 만드니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역시 '힘을 가진 존재와 약하고 여린 존재' 이렇게 볼 수 도 있겠네요, 장대표님은 아이와 서로 상생하고 있나요?
나의 가치기준에 따라 아이에게 제 잣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 내가 어떠한지?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환경들이 키우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부모 역시 하나의 환경에 불과 하지 않나 싶어요. 아이는 스스로 자라니까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굳이 탈극을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대학에서 탈패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탈에 관심이 많았고, 탈을 쓰고 연기를 하면 실제로

좋은 평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만의 색깔을 찾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걸 찾은 게 탈이거든요.

제가 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탈이라는 것도 하나의 권력으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탈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관객들도 마찬 가지겠고요.
동학탈극 "눈자라기"를 보면서 탈이 하나의 권력처럼 상징화되고, 탈을 쓴 호랑이가 약하고 여린 아이와 상생을 이루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를 풀어주는 존재가 호랑이입니다.
'사람이 살려내지 못하는 아이를 호랑이가 살려낸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살려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공연을 만들어 낸 출발점이 됩니다.

눈자라기에 등장하는 권력을 갖고 힘을 휘두루는 존재는 홍동지, 혼백가 정도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꼭두광대의 작품에는 동학의 기본바탕이 사람이 곧 하늘이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모신다는 의미인데 꼭두광대 작품에는 권선징악이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개념이아니라 나쁜짓을 했어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는 결말로 가거든요.
이희영 선생의 걸개그림에 화합할 화(和) 라는 글자가 이 작품의 바탕이 되는 의미입니다.
저는 선악을 단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관객의 몫이거든요. 관객이 작품을 보고 작품에 등장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상이 부모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을 테고 관객이 그 인물을 구분하는 거죠.

눈자라기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학에 관한 작품들을 읽어 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기를 많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작은 몸짓이지만 천천히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꾸준히 가다 보면 더 건강하고 튼실한 작품이 될 거라 믿어요.

제2회 보은동학마당극제 공연을 끝낸 소감은요?
마당극제가 끝난 다음 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으로 갔어요. 그 전날 정말 힘겹게 공연을 마쳤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는 거기서 또 이런 생각을 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판을 어떻게 짤까?', '객석을 어디에 두지',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겠구나' 하고요.

지금까지의 장대표는 '천상 광대'라고 생각했었는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과 연기를 향한 욕심이 무대와 판으로 이어지니 말입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눈자라기 공연을 통해 보은의 동학을 알리려고 해요.
또 다른 동학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꼭두광대의 공연에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소통하며 천선징악이 없다. 모두가 똑같이 하늘처럼 귀한 존재로 상생하는 모습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물론, 완벽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연은 아니다. 스토리텔링면에서 미묘한 여백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무대에 보여지는 장면들이, 관객 각자가 화려한 형형색색의 상징을 이루어 낸다. 그것들이 극 자체가 주는 생각의 틀을 넓혀준다.

이 한계들을 굳이 극복해야 할까?

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동학의 실천적 탐구와 취회의 전국 네트워크

김용우(한알학교 교장)

생명존중 사상의 기초

현대 문명은 초고속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그리고 풍부한 물질로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최고의 삶을 누리는 듯하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생명과 자연을 희생양으로 하여 세워졌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지금도 속출시키고 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인구가 10억이 넘어섰으며, 약 3800만 명이 매년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는 전쟁이 멈춘 날이 단 하루도 없고, 20세기초엽 지구표면적의 25%를 차지했던 밀림이 이제는 5%남짓 남아 있다. 근대사회를 이끌고 온 석유를 비롯한 각종 자연자원은 고갈상태로 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생태계의 교란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근대문명을 끌고 온 인간이성과 과학은 이제 생명존재와 우주질서에 대한 파괴와 도전이라는 교만의 극에 이르고 있다. 핵발전이나 핵무장, 테러와 대량학살 같은 인간 이성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문명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은 늘어만 가고 있다. 근대문명의 꽃이라고 하는 도시는 갈수록 비인간화하고 있으며, 각종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인간의 정신분열적 자기파괴와 자해행위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과 생태계 및 우주질서의 죽임과 파괴와 교란의 근대문명을 예감하고 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120여 년 전의 동학사상과 운동은 근대극복의 과제 앞에 선 현시점에서 반드시 되짚어보고 사상과 운동의 정수를 우리 삶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동학을 전쟁으로 기억하는 문화를 넘어서 동학이 가지고 있는 생명존중의 사상과 우주자연의 신령성의 문명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고 동학에 참여했던 민초들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열쇠

올해 보은취회 120돌과 내년도 갑오동학 120주년은 그 위대한 패배이후에 우리민족이 걸어온 근대화과정의 질곡과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정신과 에너지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120여 년 동안 걸어온 민족적 자취에 대한 성찰 위에서 우리가 다시 12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문명을 일굴 수 있는 정신과 삶을 창조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민족구성원의 뜻과 기운을 모으는 일이며 그 원형은 120년 전 보은취회에 있다고 하겠다. 전국방방곡곡에서 모여든 동학도들이 대도소를 설치하고 민족과 민중의 현실을 진단하고 살길을 모색한 보은취회는 그자체로 서구 근대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장면이며, 참여와 소통 그리고 확산과 실천적 삶으로의 민주주의 지평을 넓히는 현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은취회는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정신과 에너지를 모으는 참민주주의 원형으로서 탐구되고 동학과 보은 뿐 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원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자산이다. 보은취회는 기념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명백히 우리의 삶에 복원되어져야 할 문화인 것이다.

대한민국 민회운동

그런 의미에서 때마침 대한민국 민회운동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근대극복의 주인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는 주체성과 근대극복의 핵심가치가 '생명과 평화'라는 점에서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인원이나 프로그램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평가될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미에 따라 조화를 이룬 취회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은 취회를 기점으로 취회운동을 새로운 민회운동으로 승화시키고 한반도에 대중적 생명운동의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서는 취회는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명과 평화, 협동과 공생, 자율과 자립, 자치를 추구하는 민초들이 모여 의제를 설정하고 민의를 모으고 실천적 삶으로 승화해 내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의 보은취회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학과 보은취회의 정신을 삶의 문화로 승화시켜낼 에너지를 발견하고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은 락마당과 같은 프로그램의 정례화도 필요하고 이것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청소년 주체의 준비위원회와 이들이 창안해 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올해 참여한 주요학생들을 모아서 평가와 세미나를 해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보은취회는 좀 더 많은 실천적 탐구와 의미의 되새김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은에 계신 주인공들이 전국의 도반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좀 더 적극적인 모색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보은은 흐른다

이광호(개벽신문)

그러니까 지난 4월 26일부터 '동학보은취회'는 시작되었다.

1년 전부터 알음알음으로 취회를 논하고, 걱정하고, 모여서는 드디어 횃불을 놓고 밤을 새운다는 게다. 이 장대한 놀이는 언제까지인가. 5월 4일까지이다. 9일간의 대장정이다. 사람들이 모여 무너진 혼을 일깨우고 사라진 기백을 높여가는 건, 참 대단한 일이다. 그 방식이 비록 서툴고 비리비리하고 형식이나 규율에 어긋난다고 해도 말이다. 원래 일이라는 게 어떤 규정에 얽매이면 그 짐의 무게와 오랏줄에 스스로 목이 메는 수가 있다.

이런 걸 조화롭게 넘다들며 오늘도 보은의 밤은 깊다. 밤이 깊은가 싶으면 다시 햇살 부신 아침이 온다. 차가운 날씨에도 우린 잠이 든다. 막걸리에 취하여, 정에 취하여, 120년 동안의 단잠을 잔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다. 쓰러진 깃발을 세우고 무너진 축대를 다듬고, 흔들리는 막사를 점검한다.

봄날의 아침은 언제나 싸하다. 오줌발이 시원찮다. 살아온 시절을 너무 혹사시킨 탓이리라.

어제의 동학이 스러지고, 오늘의 동학이 다시 살아나 품앗이를 한다. 춤을 추고 노래하며 그간의 애간장을 녹인다. 그렇지, 그렇고말고. 살아생전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보냐.

보은이여! 취하거라.

보은에는 넋 빠진 사람들이 몇몇 있다. 오직 정신만을 챙겨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동학보은의 핵심을 되살리고 있는 중이다. 120년 전의 보은의 의미는 뭐였을까?

그들의 표현은 이랬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민초의 삶은 이미 종착역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모여서 몇날며칠을 성토하고 노래하고, 울부짖었다,

하늘에 고했다.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외쳤다. 이제 더 이상 굴하지 않게 살겠다고. 자식 앞에서 떳떳하게 살겠다고, 자식에게 다시는 노비의 억겁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굶주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서 사람답게 살겠다고, 밤을 세워 주문을 외며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120년의 역사는 도돌이표로 흐른다. 뉘가 이 현실을 부정할 텐가. 우리가 지금 꾸리는 자리가 세가 약하다고 비난할 텐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세가 역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대는 명리만을 쫓아서 살터인가?

그러면 그렇게 사시게. 분명히 말하지만 역사는 거짓이 없으며 분명한 선을 긋는다네. 여기 모인 사람이 소수이고, 하찮아 보여도 자신의 뜻을 세워 모였고, 뜻을 기리기 위하여 나선지라, 참으로 의연한 기상, 돋보이는 자리라네. 길섶의 민들레도, 제비꽃도 덩달아 피었으며 낭창한 비도 가끔씩 내려 120년을 넘어 이 땅의 핏빛어린 민중의 회한을 보듬어 안아준다네.

누구는 몸살이 나고, 누구는 직장 때문에 단 몇 시간 점만 찍고 가는 친구도 있다네. 허나 이런 시간들이 모여 노을은 붉게 물들고, 흐르는 시냇물은 우리의 정서를 노래한다네.

그대, 어찌 보은을 잊는단 말인가~!

청춘들의 합창

어린 청춘들이 올해는 많이 참석했지요. 많은 일정이 있었지마는 저는 이들이 행보에 주목합니다. 보은의 의미를 그들은 비록 놀이로 받아들이고, 순례나 음악이나 청춘의 미팅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동학장승은 웃으며 반기고, 산등성에 기대선 외로운 동학탑은 기뻐 춤을 추지요.

순천 사랑어린학교. 광주 래미학교. 원주 한알학교. 제천 간디학교. 문경 산티학교…

이들은 모여서 락페스티벌을 열었답니다. 젊은 기운자락으로 동학의 새로운 해석이지.

이들의 나이는 옛날로 치면 딱 애기접주 수준이야. 13세에서 19세 정도의 나이이니.

허나 이들이 모여 3박4일이나 혹은 2박3일의 일정은 동학보은의 거리를 환하게 빛나게 한 별빛들이었어. 내년부터는 진정으로 어린 학생들 중심으로 한 청소년민회를 열 것이라 하니 후아! 기대 충만 이라오. 현재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명이 있는데 이런 오욕을 벗어나려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밝혀내는 "동학의 민회정신"이야말로 진정성이 엿보이는 걸음걸이지.

내년에는 어떤 청소년들이 오려는지, 기대되거니와 한울연대나 동학관련단체 혹은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이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꼭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땅에 청소년을 위한 진지한 구석이 어디 있나요? 보은은 최적의 성지입니다.

정신과 영혼의 하모니를 적절하게 풀어내고, 엮어가는 가교역할을 분명히 동학정신은 합니다. 특히 영혼성이 우수한 대안학교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흩어진 깃발을 가지런히 꼽고 장하게 자신의 의견을 논하는 어린 눈빛들을 위하여 그대여~! 내년에도 꼭 함께 하시기를!!

역사적인 시간

나는 나대로 혹은 너는 너대로 살면서 서로의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건,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지요.

너와 나의 뿌리가 꼭 어디라고, 따지지 맙시다. 어버이의 피를 물려받은 이상,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승을 접어야 도리 아니겠어요. 혹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대는 분명 자신과 가족의 생활, 나아가 어떤 공동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리를 펼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점이 닮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일이나 영화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다른 잡동사니에 흠취한 이는, 이미 이런 글은 가슴에 와 닿지도 않으려니와 이런 사이트에 참석하지도 않을 겁니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삶.

바라보건대 이런 게 역사적인 시간을 반추하는 거라고 봅니다.

궁극에 가서는 본디자리로 환원하는 것이고, 뜻이 전달되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지요. 이제 보은의 횃불은 저물어 갑니다.

시간은 도토리묵처럼 묵사발이 되어 우리의 위장통 속으로 들어왔어요.

잠자는 동안이나 쉼 쉬는 동안, 아주 짧은 만남이었으나 저는 행복했어요. 둥근 달빛

을 보며, 스러져가는 모닥불을 보며 울었어요, 만취하여 아무렇게나 자는 사내의 새우등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모두 역사적인 시간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작이나 몇 개 모닥불을 놓는 게 전부이고, 노래나 부르는 게 전부였어요. 이제 다시 봄은 풀꽃을 따라 떠납니다.

이 봄이 지고나면 우리의 마음자락에 따스한 동학의 기운이 더 절실하게 피었으면 합니다.

봄길

이시백

나부끼는 깃발은
봄빛의 꽃차례

타오르는 모닥불은
소녀들의 노랫소리

산등성에 우는
뻐꾹새 소리
나방으로 날고
별빛으로 날지
너의 꿈도, 나의 꿈도
바람소리로 길을 내지

모든 영혼은 소리로 날지

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120돌동학보은취회를 다녀와서 …

하윤수(사랑어린배움터 학생)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동학은 그냥 교과서에 들어있는 단어일 뿐일 것이다.

왜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는 것이다. 동학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 그냥 이런 것들이 내 주위에서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120년 전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은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섰던 게 아니란 말이다. 이 민족 운동은 우리역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난 이번 120돌동학보은취회를 다녀왔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다. 여러 학교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인내천 사상을 서로에게 빗대어 보기도 하고 음악이라고 하는 재미난 소리로 다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고 정말 즐거웠다. 나는 거기서 혼자 동학기념공원을 거닐면서 시를 읽고 일지를 읽고 그때의 그 농민군들과 동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과 시선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보은취회가 만난 사람

기쁘고 감사한 일

전철우(120돌동학보은취회추진위원회)

이번 120돌동학보은취회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나치는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모두 지나고 뒤로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한울님 안에서 조화롭게 이어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늘 세상의 한울님들과 만나 끝없이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조화로움을 글로 적어내자니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더 많은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조화야

말로 가슴 속 깊은 속에서 펼쳐질 뿐,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요.

저에게 보은취회가 주는 의미를, 보은에 계신 아시반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야 할지, 장일순 선생님 글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야 할지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세상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일의 좋고 나쁨과 잘 되었다 어떻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올 한올 엮어나가는 과정이 되어 언젠가, 결국 완벽한 망이 될 테니 말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은취회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이렇게 한올 한올의 엮음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120돌동학보은취회, 참여하는 내내 기쁘고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한울님의 조화가 한올 한올 엮어져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120돌동학보은취회에서 만난 사람들

충청북도 보은, 인구 3만의 작은 마을에 전국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120년 전 그날처럼.
보은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던 잠든 넋들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었다.
민중의 희망이 새 세상을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을 '혁명' 이라 부른다.
또 다른 이름으로 '희망'을 노래할 때, 우리는 또 그것을 '꿈' 이라고 부른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이름들을 불러 모았을 때, 우리는 또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 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처럼 모시는 일은 그 모든 바탕에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보은에서 희망을 노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존재하는 나를 잃지 말아야죠.

어릴 때 꿈을 꾸다가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만나면 그게 사라지잖아요.
아, 내 꿈은 이랬었는데… 하고 생각을 해요.
현실이 이런데,

살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씨앗이 중요하긴 하지만 외부의 기화작용에 따라 몇 십 년, 몇 백 년 그대로 있는 씨앗이 있고 금방 발화되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씨앗이 싹터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이미 많은 발화를 이룬 사람인거죠.
나는 깃발을 들고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다 알아서 풀어내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씨앗이 있어요.
그게 만나면 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인간이 사는 사회는 늘 현실은 그럭저럭 흐르거든요.
새로움의 꿈을 잊지 않고 꿈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그게 보은취회의 큰 미래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청소년 락마당은 참 희망적이란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만남의 장 자체가 되고 그게 자산과 미래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크고 작은 꿈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런 씨앗이 되는 게 보은취회의 미래적 가치입니다.

이번 보은취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안학교 아이들이 많이 온 것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근본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동학은 반외세, 반봉건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갈등의 근본은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최초의 동학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좋습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 시스템입니다.
동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으로 우리 삶을 보완해야 합니다.
취회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잖아요.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를 잡은 핵심이 모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동참하는 그 자체가 보은 동학의, 취회의 기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에 맞는 취회의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주제가 많잖아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쫓기듯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취회로부터 얻은 자각을 자꾸 잊는 게 아쉽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훌륭한 것처럼, 취회를 한 것도 훌륭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힘을 전할 겁니다.
우린 왔다갔지만 각자의 자리로 가서 힘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자체가 감동입니다.

동학정신으로 미래사회와 화합하여 평화를 이루는 삶

이정도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게 참 자랑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대안학교아이들이 와서 뛰어 노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미래가 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은취회는 120년 이후 보은 민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이시대가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와있음이 분명합니다. 아편전쟁 이후로 근20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항하여 평화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컬리제이션, 자본화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하나의 지역인 한국은 전통적인 화합에 바탕을 둔 사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동학입니다.
소득증대의 수치로 선진국의 척도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경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죠.

보은에 와 보시니 어떠신가요?

보은엔 처음 왔어요.
산골짜기인줄 알았는데 도시가 있네요.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은취회가 120년이 되었다고 해서 왔습니다.
보은동학에 갖는 기대가 큽니다

동학에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나요?

대구에 민주화운동 모임이 있어요.
한 3년 됐어요. 동학을 알게 된건 오래되었고요. 천도교인은 아니지만 대구에 있는 민주화운동원로회에 다양한 종교인이 계세요.
70세 이상의 민주화 투쟁을 했던 원로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옥과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모여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수운 최제우 선생과 해월 최시형 선생을 비롯한 많은 지식을 얻어가고 싶어서 왔어요.

보은에 와서 지켜보시니 어떠신가요?
행사를 끝까지 보고 싶은데 세미나를 마치고 가야해요.
여의치 않아서 너무 아쉬워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만들고 사람들이 와 주길 바랐는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앞으로 동학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천도교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외세에 저항하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좀 실망스러워요.
지금 민족이 분열되어 있고 남북 간, 반외세 자주통일을 이뤄야 하는데,
천도교가 민족종교로서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이시대의 보은취회
동학의 길을 텄던 보은취회에 이렇게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20년 전 오늘은 참 평화로웠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민란이 일어났던 지역은 음식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야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생명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울리는 삶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회의 기초는 동학보은취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기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지금 현재, 앞으로 행동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통의 현장 보은 취회
보은취회의 기간 동안 유념해서 소통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보은취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방향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모두에게 고맙고 이것 자체가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보다 잘 듣겠습니다.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동학보은취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는지요?

이 세상의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딱 한번, 동학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하나로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갚을 보, 은혜 은

은혜를 갚는 다는 뜻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왔어요. 이 보은 땅에, 120년 전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동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와 절을 지키는 곳이죠. 종교가 뭐죠? 근본 종자와 가르칠 교. 뿌리를 가르치는 거죠.

기독교를 서학, 불교를 남학, 유교는 북학…

그 세 분이 주장하신 바가 동쪽입니다.

그러니 여기 가야한다. 그래서 보은에 왔습니다.

끊임없는 성찰이 느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자연을 보면서 생각해요. 나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전생이 있어서 현생이 있는 것.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세상은 무궁무진 하니까요.

옛 말에 집을 한자로 쓰면요, 집 우, 집 주. 우주가 집이잖아요.

옛날에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우주가 집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게 속상했어요. 밤이면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요.

나를 깨우치지 못하고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찬 내가 속이 상했어요. 그렇게 속이 상하다 보니, 아 속이 타야 거름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학문적인 접근으로서의 동학은 어떤 성찰을 주는지요?

학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고집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해요.

얼굴이 뭐죠? 조상의 얼이, 부모의 얼이 들어있어서 얼굴이에요. 내 얼굴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넉 사자에 볼 람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어떻게 120년 전에 일어났는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다 진실이란 말인가.
그게 참 슬펐어요.
저는 사실 진보와 보수는 낮과 밤처럼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동학이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깨달음 … 네. 깨달음이 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학문을 말로만 들어요. 실제로 느껴봐야 제대로 안다고 생각해요.
이번 보은취회를 통해서 저 역시 직접 몸으로 느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12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느꼈던 가슴 벅찬 깨달음을 직접 느껴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보기에, 이번 120돌동학보은취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은취회를 바라보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곳에 와서 여러 어르신 분들께서 참 장엄하고도 웅장한 느낌을 담아서 말씀 하시는 것 보고 120돌동학보은취회의 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만약 농민혁명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촛불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트위터나 페이스 북도 있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보은에서 취회를 한다면?
와서 참여할 것 같아요. 여러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리고 12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면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순례하면서 어땠나요?

완주는 못했는데, 저희가 걸어온 과정은 사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단지 이 시간이 좀 길고 따분했어요. 그 의미를 몰랐으니까요.

7키로 정도 걸으면서 여길 왜 걸어오는가. 선생님도 원망하고 그랬어요. 매우 힘들고 아팠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오니까 재미있고 좋아요.

락樂마당 공연에 참여한 소감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게 자신이 없었는데, 아쉬움이 좀 커요. 매우 아쉽고요.

그런데 뿌듯한 마음이 더 커요. 기타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저희만의 색깔을 어디서든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아쉬운 점은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어울리면서 소통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순례를 하면서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과 걸어서 갔는데, 어느 샌가 혼자 걷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게 참 좋았어요. 혼자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자아에 대한 생각을 갖는 시간,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행사 중에 인상 깊었던 느낌은 언제가 있었나요?

청소년 락樂마당을 통해 재미있게 즐기고 놀았어요. 제 또래의 친구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무대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동학을 역사시간에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와서 축제로 즐긴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큰 관심이 생겼어요. 내년에도 취회가 열린다면 관객으로만 아니라, 공연에도 참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보은에 오니까 어떤가요?
이번 보은취회 120돌 행사를 앞두고 같이 공부도 하고 수업도 하는 시간을 갖고 여기에 왔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와 본적이 있었어요.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배우고 오니까 관심이 커지는 걸 느껴요.
보은취회를 보니까 제가 120년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지금 만약에 친구들이 이런 일이 있다면 여기 꼭 와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동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동학유적지를 찾아다니는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마음에 와 닿을 뿐 큰 의미를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용히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선생님께 보은은 동학군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축제처럼 즐거운 의미와,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온 허탈하고 가슴 아픈 역사.
여기 오니까 아직도 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픈 역사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 학교가 모여 동학에 대해 알아가고 자신에 빗대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지금 친구들이 만약에 취회를 소집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다른 대안학교친구들이나, 일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사는지, 꿈이 뭔지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대안학교 교사)
아이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기대와 변화를 체험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인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은데, 어른들은 많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는데, 아이들은 사실 그게 힘들어요.
저희는 사전에 교육을 하고 왔어요.
보은취회는 민중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모였던 데에 큰 의미가 있었는데, 역사적 현장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매년 안정적으로 매년 이곳에 와서 참여하는 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 취회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미래세대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세대들에게 동학은 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도 동학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계역사를 통틀어 가장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일이었지만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습니다.
동학을 깊이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취회 참가를 계기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편집자의 말

보은취회, 보은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신채원(편집위원)

이 땅의 민중들이 처음으로 새 세상을 꿈꾸며 한 자리에 모였던 그 날, 별빛 달빛처럼 고운 얼굴들을 바라보며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흩어지지 말자고 맹세하던 짧았던 밤들, 그 꿈과 희망은 그대로 인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그 큰 뜻을 남기시고 우리 선열들은 북실진달래로 처절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120년 전의 일입니다.

보은취회는 1893년 3월 봄날, 해월 최시형 선생이 보은 장내리(장안)로 자리를 옮겨 전국의 교도들에게 이곳, 보은 장내리로 모이라는 통고를 보내면서 펼쳐집니다.

바로 그날, 보은의 관아 거리에…

“지금 왜와 서양의 도둑들이 나라의 심장부에 들어와 큰 난리가 국도에 이르렀다. 진실로 오늘의 서울을 보니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도다. 우리들 수만 명이 힘을 합쳐 죽음을 맹세코 왜와 서양세력을 깨뜨려 큰 공을 세우세.”

취어 聚語『보은관아통고』

교도들은 연일 충청도를 중심으로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에서 몰려들었고 마침내 수만 명에 이르는 교도들이 이곳 보은 땅을 밟았습니다.

장내리 뒷산 옥녀봉 아래에 돌성을 쌓고 민가에서 잠을 자고 초막을 지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도소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꼈고, 깃발에는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라고 쓴 만장이 펄럭였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아도 가늠할 수 없는 수만 명의 백성들은, 이곳 보은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어떤 희망을 품었을까요.

지금도 보은 장내리 대도소 자리에 쌓인 돌성의 흔적들은 돌멩이 하나마다 민초의 꿈과 희망과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이 고스란히 남아, 비가와도 눈이 와도 씻겨나가지 않는 울긋불긋 멍이 든 가슴 그대로 변함이 없을 터인데.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돌아간 우리 역사의 뼈아픈 상처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품었던 희망이 이룰 수 없는 꿈처럼, 손닿지 않는 열망처럼 머나먼 어느 별빛과 같은 거라고 생

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우리의 민초들은 그렇게라도 희망을 노래해야 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꿈이 함께 길을 걸어 왔으니 아픔과 슬픔뿐인 역사는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0년 전, 보은취회가 혁명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수만 명의 꿈이 한 자리에 모였던 가슴 벅찬 축제의 현장은 아니었을까요?

동학, 혁명의 씨앗은 1864년 수운 최제우 선생의 순교로 시작됩니다. 그 씨앗은 이후 근 30년 간 전국 각지로 퍼져나갑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이 1892년 교조신원운동과 함께 도소를 설치하고 이 장내리 도소는 동학교단의 본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혁명운동의 수원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보은은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지리적인 요건이 탁월한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월 최시형 선생은 이곳 보은 땅에 머무는 동안 전국 팔도의 동학도들을 이곳에 불러들여 광화문 복합상소를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수많은 동학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조정의 탄압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던 해월 최시형 선생은 전국의 더 많은 교인들을 장내리로 모아 취회를 열게 됩니다.

1893년 3월, 보은취회가 열리고 매일 도처에서 깃발을 든 수백, 수천의 민초들은 끝없이 보은 장내리로 몰려듭니다. 이때, 모인 백성들의 열망은 교조신원운동에서 혁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낳게 됩니다. 탐관오리의 척결과 척양척왜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중혁명이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취회가 이루어졌던 보은 땅에서 1894년 마지막 북실전투가 붉은 피, 북실 진달래로 피어난 참혹한 학살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때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중집회가 이루어졌고, 의식있는 백성들이 민중혁명을 꿈꾸며 온 몸으로 저항했던 역사적 근거는 후세에 이르러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로 120돌을 맞이한 “2013 보은취회” 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운을 꿈꾸며 모든 생명평화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120년 전, 우리의 선열들이 전국에서 꿈과 희망을 품고 모여들었던 그 열정으로 ‘사람이 곧 하늘’ 이라는 겨레 민중의 참된 얼을 되살리기 위하여 보은취회와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기리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모심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행복한 생명살림의 두레세상을 일구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세상의 모든 한울님들은 120년 전에 이곳에서 숨을 거둔 선열들이며, 그분들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란 우리의 산천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희망이 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120돌 보은취회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새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20년이 흘러도 새 세상을 향한 꿈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삶결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속살거리고 달빛이 어둠을 걷어내는 밤, 새 세상을 꿈꾸던 뜨거운 눈물들은 흐르고 흘러 여기까지 120년을 흘렀습니다. 그날 밤 부르던 노래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깃발이 나부낄 때마다 어디선가 바람되어 춤추는 넋이 있으므로 우리는 아직 희망을 믿기로 합니다.

4부
부록

보 은 취 회

정진명

보은에 가면 성이 있다.
묵묵세월로 천 년을 지킨 삼년산성 아래
마음으로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한 성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힌 세상의 한 끝에서
마음마다 깃발을 하나씩 세운 사람들이
보습산에 쌓아올린 견고한 성.

죽창으로 에운 그 성의 하늘엔
대동 세상이 벌써 열렸는데,
장안에 피었던 모닥불은 덧없이 지고
개 혓바닥 같은 세월이 핥고 간 뒤
우거진 잡초만이 바람의 둥지를 키웠다.

천지가 바뀌어도
사람이 곧 하늘이니,
경진년의 하늘 아래
성이 다시 솟는다.
사람의 보따리 다시 열리고
곰나루의 함성으로 칼노래 부르며
천년을 비춘 마음속의 하늘이 다시 사람 되어
남북의 모든 하늘을 이끌고 장안으로 돌아온다.
죽창 대신 마음의 깃발 펄럭이며
파랑새처럼 날아드는 사람들의 어깨위로
삼년산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 솟아오른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
그 하늘 아래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람한 성이 솟는다.

보은 장안에 사람들 모이던 날.
하늘이 열리던 날.

두리번 두리번

120돌 보은취회에 함께하실 접주님들과 접(단체)들을 모십니다

120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보은장안에는 “바람이 일며 파도가 솟구치듯, 구름처럼 메이고 안개처럼 모여들어 수만이되었다”. 그리하여 저 백두대간 같은 민중의 역사가 120년 동안 굽이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 민당(民黨)에 찾아들은 이는 취회 이후부터 매일 수천명의 수효가 골짜기의 물과 같았고, 요원의 불길과 같아서 막을 길이 없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부적과 주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며 참위설을 전하면서 세상을 속였습니다. 마침내는 지략과 재기가 있으나 뜻을 얻지 못해 우울하게 지내던 자들이 따랐으며, 탐관오리들이 횡행하는 것을 분통히 여겨 백성을 위해 목숨을 던져 그를 막으려 하는 자들이 따랐으며, 오랑캐들이 우리의 이익의 근원을 빼앗는 것을 통절히 여겨 아직도 큰 소리 치는 자들이 따랐으며, 탐학한 오리에게 침탈되고 학대받았으나 어디에도 호소할 바가 없는 자들이 따랐으며, 경향에서 무력으로 협박받고 억누름을 당하여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이 따랐으며, 지방에서 죄지고 도망한 자들이 따랐으며, 영읍의 속리로서 쫓겨나 쓸모없이 된 자들이 따랐으며, 무지하고 몽매하여 들어가면 즐겁게 살 수 있다는 풍문을 들은 자들이 따랐으며, 빚독촉을 참지 못한 자들이 따랐으며, 상민이나 천민에서 몸을 빼려고 바라는 자들이 따랐습니다.....』

_보은취회 당시 선무사 어윤중 장계에서 발췌

보은에서는 십 수 년 전부터 보은취회와 동학민중혁명을 기리고 오늘에 잇대고자 보은동학굿<사람이하늘이니>라는 굿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보은취회 120돌에 대한 고민을 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4월 120돌보은취회 준비를 위한 모색으로 행사를 치뤘으며 2012년 12월 2일 순천에서 120돌보은취회준비모임(위원장 길위 김창환)을 결성하였습니다.

준비모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정하였습니다.
하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세.
하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놀아보세
하나, 새로운 기운을 받고 돌아가서 잘살아보세

시간이 흘러

『'사람이하늘'이라는 우리 민중의 참된 얼을 되살리기 위하여 그 얼이 깃든 보은집회와 동학민중혁명의 뜻을 기립니다.
나와 관계 맺은 모든 것들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심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늘•땅•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생명살림의 두레세상을 일구어내고자 합니다.』를 과녁으로 삼아 120돌보은취회<사람이하늘이니_다시하늘여는길>판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120돌 보은취회는 열린마당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각자 스스로 일을 꾸미고 꾸려 큰 하나의 굿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보은취회의 의의를 공유하고 생명살림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과 단체들과 함께 120년 전에 동학민중이 꾸었던 그 꿈을 되새기며 오늘날 우리의 꿈을 다시 꾸어보고자 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보은이라는 마당에서 나의 몸짓과 놀이가 모두의 몸짓과 놀이로 어우러지는 신나는 판을 통해서 120년전 동학민중의 그러했듯이 새로운 새상에 대한 꿈을 이적여기 우리의 세상에서 꾸어봅시다.

접과 접주님들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는 120돌보은취회는?

_접주님들이 그리는 보은취회 상

여천박한용 - 보은취회 들살이를 기다린다.
따뜻한 봄날 텐트에서의 8박, 그리고 속리산 등반과 자전거하이킹 매일 저녁 이어지는 좋은 친구와 한잔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끼다.

섬임현수 - 모두가 그 뜻대로 살아 있으나 그 뜻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 뜻일터.

강이찬희 - 안녕하세요. 저는 보은에 사는 26살 된 청년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들과 어울리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 보은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같이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만남과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올해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산김향진 - 선생님, 저는 그저 참가하여 여러 보고픈 하늘님들을 뵌것에 뜻을 다했기에 소감은... 동학의 새로운 걸음이 정성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_()_

봄길 하혜영 - 길위님의 소개로 작년 보은취회119주년에 참가하였다. 길위학교가 열린다하여 아들을 데리고.. 우선 그곳에는 천도교인도 있었고 천도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천도교인이 아닌 분들도 한울님을 알고 모신다는 말을 안다는 것이 신기했다. 동학이라는 것이 끈인 듯 했다.
그 해 보은에서 119년 전의 보은취회에 대해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내가 막연히 책으로만 보았던 것을 몸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천도교인인 나로서는 더욱더 뼈아픈 역사였다. 물론 천도교인이기에 앞서 여전히 그 시대의 동학농민과 같은 이 시대의 민중으로서 더욱 아플 수밖에 없는..
작년에 동학공원에서의 며칠간의 마당살이는 또 새로운 경험이었다.
요즘 유행인 체험이나 캠핑과는 또 다른 해방과 탈주의 공간이었다고 해야할까..
무계획이 계획이 되고 서로를 한울님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대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서 풍성해지는.. 그런 장이면 이 자본주의 첨단의

한가운데서 조금은 해방과 탈주를 맛봤다고 해도 되겠지

그곳을 다녀가시는 분들, 또 보은취회 후에 그들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은 모두가 나에겐 스승이 되는 한울님들이었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꿈꾸며 자신의 자리에서 바르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나는 어느새 여기서 120돌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120돌 보은취회에서 나는 또 그리던 한울님들을 만날 것이다. 그 분들을 맞이하기위해 설레는 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청강김환수 - 사람이 그리운 것! 이 시대의 외로움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단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만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만의 외로움일 수도 있겠지요.
119년 보은 취회에서 만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층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나와 다르지 않은 속알들이 있어서 모임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
(청강님은 119돌 보은취회 들살이에 차(다)를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하루에 500키로를 달려서 새벽에 출근했다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8박9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습니다.)

팔공 - 흔히 진리는 하나라고 합니다. 둘 셋이 될 수 없다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상상하는 진리는 천차만별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겠지요. 진리의 바탕위에 무수하게 펼쳐진 다양한 현상들,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생명평화의 기운을 만들어가는 보은 취회에 함께할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따로 한울 따로가 아닌 그냥 한울이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능력껏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시반박달한 - 보은취회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의 꿈들이 교류하여 거대한 역사의 물꼬를 열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즐겁고 자신을 돌아보며 생명살림의 삶에 대한 꿈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씻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동학100일 순례 기간 동안에 담배를 안 피는 것으로 동참하며 보은취회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라오육이 - 우리시대의 보은취회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은취회란 말을 처음 들었을때 저는은 혜에 보답하는 모임인가하고 떠올렸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혜에 보답하는 길일까고민해봤습니다.천지부모,선조들의 숭고한 희생덕분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한울마음과 천지부모, 선조의 한울마음이 하나이기에 우리가 서로서로한울로 섬기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두모두 기뻐하실거라 믿습니다^^

120돌 보은취회 평가

일시 : 2013년 5월8일 (수)
장소 : 대구 망우고원
참석자 : 아시반, 봄길, 팔공
내용
아시반 - 각자가 와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판이었다. 개인적으로 들살이를 큰 핵심으로 보는데 본 행사 기간에는 안 되었지만 한 달로 연장됨으로서 의미 있게 되는 듯하다
팔공 - 행사가 잘됐다 못됐다는 평가는 별 의미 없는 듯하며 아시반의 긍정적 느낌이 중요하며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시반 개인의 평가로 자리매김해서는 안된다.
아시반 - 마차레가 올해의 불씨가 되었듯이 한 달 동안의 들살이는 행사가 바로 과거로 넘어가지 않는 것에 있고, 관심의 지속으로 내년의 새로운 시작에 불씨가 되리라 본다.
올해 더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더 많은 불씨가 생겼을 것이라 여긴다.
아시반, 팔공 : 동학혁명 120돌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는 행사동안 잘 모셔지지 않았던 120명의 접주를 계속적으로 모시고 만나가는 것으로 내년까지 길게 보고 120돌 보은취회와 120돌 동학혁명을 연결시키자
봄길 : 120돌 행사는 많은 단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나 단위들이 실속있게 놀 수 있는 장이었는지는 다시한번 살펴봐야할 점이라 본다. 단위의 평가들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팔공 : 올해는 의례적으로 왔을 수 있으나 내년을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
아시반, 팔공 : 젊은이는 락마당에서 맘껏 놀고, 늙은이는 민회에서 고민하는 것이 한 마당에서 이루어지면 바람직할 것 같다.
락마당, 민회, 들살이가 주가 되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주막이 있으면 되겠다.

102돌동학보은취회 기념행사 평가보고회

지난 5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120돌동학보은취회 평가회에서는 군 관계자들과 행사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올해의 사업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평가보고회는 보은동학계승사업회 김종규 회장, 보은문화원 구왕회 원장 등 동학관련 단체 임원 및 회원등이 참석했다.
이번 120돌동학보은취회는 전국에 있는 많은 동학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은동학행사를 치룬 것과 한 달여간 들살이를 진행해 온 것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은군청 문화예술과에서 발표한 행사의 목적에 따르면, 이번 동학보은취회 120주년 행사는 동학농민운동정신을 계승 시키는 데 있다.
1870년대부터 꺼져가던 동학의 불씨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장내리에 동학교당을 세운 해월 최시형선생이 전국의 동학도들을 보은 장내리로 집결시켜 당시 보은이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산실이며 동학의 수호지 역할을 한 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각 행사별 평가에서는 좋았던 점과 문제점 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행사였던 국제학술세미나는 2013년 보은장내리 120주년 역사적 의의와 정체성, 장내리 동학취회의 발생배경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였고, 동학혁명연구의 네트워크를 조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교조신원운동이 반외세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동학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애향심고취, 애국심 함양에 일조하였으며 동학정신과 혁명의 가치를 후세대에 전달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군민의 호응이 낮고 학생참여가 저조하였다는 점이었다. 또 시민연구단체에 홍보 미흡했고 토론회가 장기간 지루한 느낌이었다는 평이다.

이어서 120돌동학보은취회 기념식에 대한 의견은 최초의 민중집회인 보은취회의 참뜻을 기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보은이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또 장안면민의 단결된 모습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대표들이 황토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행사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단점으로는 역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낮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위령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주민들이 위령제에 적극참여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으며 다양한 행사와 문화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져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위령제 참석자들 중 천도교인과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

본 행사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풍성한 컨텐츠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동학관련 사회단체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구체적으로 동학관련 법인 설립하고 동학보은취회지와 기념 시설물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일반주민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먹거리장터나 체험프로그램과 같은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긍정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평가회를 주관한 안광윤 문화관광과장은 "평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북실 기념공원 기념탑을 위령탑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위령제는 광장이 아닌 위령탑 아래서, 유교식이 아닌 천도교 식으로 지내는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 동학농민군 위령제 추념사

존경하는 동학농민혁명군 유가족 및 후손인 보은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기치로 한 외세배격과 신분제도 철폐를 통한 **생명, 평등, 사랑**을 주창하며, 119년 전 북실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총칼 앞에 맞서 싸워 목숨을 바친 그 영혼을 추모하고 그날의 숭고한 동학정신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1894년 12월 17일 동학농민군의 대혈전 이었던 북실 전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한 동학군은 이틀 전 무주에서 밤을 새우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영동군 용산에 도착하여 또 하룻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동학군은 용산을 떠나 보은으로 향하였습니다.
동학군 일행이 추위에 떨면서 청산을 지나 원남을 거쳐 보은으로 들어설 때, 해는 서산을 넘고 있었고
1만여 명의 동학농민군 행렬은 30리에 달했습니다.

동학군이 종곡 입구에 들어설 무렵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북실로 접어들자 함박눈이 한발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퍼부었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북실에 도착한 동학군은 주먹밥 한 덩이를 먹고 모닥불을 쬐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은 계속 쏟아지는데 피로에 지친 동학군은 한 사람 두 사람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깊은 밤, 험한 눈길에 무슨 일이 있으랴!

그러나 청주에서 온 관군과 상주에서 온 일본군은 보은에서 합류하여 어둠속 눈길을 헤치고 북실 동학군을 기습 공격해 왔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동학군은 응전에 나섰지만, 이튿날 오후 3시까지 치열한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2,6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북실 앞들은 온통 동학군의 붉은 피로 물들었으니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동학 농민군의 후예인 우리 보은 군민들은 북실 전투에서 동학군이 흘린 숭고한 선혈의 의미가 무엇이고 동학군이 말로 다 하지 못하고 글로 남기지 못한 통한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북실에서 동학 농민군의 고귀한 희생은 외세를 배척하여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그 순수한 애국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북실에 뿌려진 동학군의 붉은 피는 오늘 보은 산천에 붉은 진달래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실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혁명군의 상징인 이 진달래꽃이 우리 보은 산천과 우리 보은 군민들의 가슴에 더 붉게, 더 아름답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동학의 영령들이시어!
임들의 후손으로 임들의 높은 이상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 보은군민들이 정의를 숭상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겸손한 자세로 사람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십시오!

보은군정을 맡고 있는 소생이 3만 5천 군민을 대신하여 간절하게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위령제를 모시는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보은 동학계승사업회 **김종규** 대표님과 여러 회원님들, 북실청년회 **김홍래** 회장과 회원 모두에게 영령들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영령들이시여! 편안히 잠드소서.

2013년 4월 28일
보은군수 정상혁이 고하였습니다.

21세기 되살려야 할 생명 살림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2013년 03월 14일 (목) 22:58:53 충북인뉴스✉043simin@hanmail.net

필자는 지난번 기고에서 '폭력이 일상화된 위험한 한국사회'를 경고하였다(충청리뷰 1월 10일자).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소 1백년 넘게 축적된 근현대 역사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즉, 우리 사회가 여러 형태의 반복된 국가 및 사회적 폭력에 노출되면서 사회 자체가 폭력의 일상성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20세기 역사가 우리에게 준 업보이자 인과라 할 수 있다.

20세기 근대화를 거치면서 일상화된 폭력은 곧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를 만든 만큼, 생명 존중을 통해 새로운 근대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근대의 주체로 생명을 살리고자 함은 이미 19세기에 찾은 지혜이자 실천의식이었다. 바로 동학이다. 조선왕조가 붕괴되기 직전, 새로운 근대로 나아가기 위해 민중들이 내세운 실천담론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생명사상이자 이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 민중들은 근대적인 삶의 주체로 등장, 사람이 하늘인 상생과 평등사회를 꿈꾸며 죽음을 무릅쓰고 죽창을 들었다. 동학농민군은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외치면서 중세가 낳은 폭력의 사슬을 끊으려 하였고 불평등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럼에도 수구세력과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무참히 동학농민군을 학살하였다. 이것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최초의 국가 폭력이자 외세에 의해 자행된 무자비한 양민 학살이었다. 최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다.

상당 기간 폭력은 정당화되었고 아주 고약한 전례가 되어 반복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후손들은 역적의 굴레를 뒤집어쓴 채 대를 이어가며 역사의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였다. 그로 인해 동학농민혁명 이후 왜곡·굴절된 근대가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폭력이 일상화된 극단의 비대칭적인 위험한 한국사회인 것이다.

이렇게 근현대의 시작은 위로부터 강제된 폭력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에 대응한 대칭성의 힘과 정신은 모두가 신성이 깃들어 있는 만물의 생명을 살리자는 생명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생명 살림은 지난 20세기 폭력으로 점철된 근현대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폭력사회의 비대칭성을 해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주체로 인정받고 기능할 수 있는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곧 다가오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은 기억되어야 하고, 기념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이 준비,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충북에서 시작해 충북에서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충청북도는 지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역사적 사건이었다. 충북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런 기억과 기념이 진정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만드는 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에 앞서 2013년은 새로운 근대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2만 명이라는 놀라운 인원이 충북 보은으로 모여든 '보은취회' 2갑(甲), 즉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20년전 4월 전국 각지에서 보은 장내리로 모여든 사람들은 무려 한 달에 걸쳐 집회를 열고 불평등과 부자유의 사슬을 끊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상상해보자. 2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은 장내리 서원계곡에서 깃발을 펄럭이며 집회를 여는 모습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민중의 열망과 실천이 120년 전에 있었던 것이다.

120주년이 되는 오늘, 그 날을 기억하고 폭력의 일상성을 극복할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보은 장내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준비되고 있는지 눈여겨보자. 그리고 그 날이 오면 그곳으로 달려가자. 가서 새 날을 준비하자. 그 날은 바로 사람이 하늘인 세상,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이다.

'120년 전 보은, 현재의 보은'

[1115호] 2013년 01월 10일 (목) 최동철✉webmaster@boeuni.com

올해와 같은 '먹구렁이의 해' 계사년이었던 120년 전인 1893년, 보은은 세상사의 중심이었다. 당시 통치자로 무능했던 고종과 막후신료는 물론 주변 강국이었던 청나라와 일본의 세작(細作)들까지 귀와 눈을 집중시켜야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2만 여명의 동학교도들이 보은군 장내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조선 방방곳곳 깨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힘이 없어 외세에 농락당하던 한심한 조정(朝廷)과 특히 호심탐탐 침략을 엿보던 일본에 일갈하기 위해서였다. 척왜 척양(斥倭斥洋)과 창의(倡義:국난을 당하였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 때 만17세의 혈기왕성한 백범 김구선생도 황해도 해주에서 보은 장내리에 왔다, 백범은 전봉준과 같은 '접주(接主)'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백범일지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그해 계사년(1893) 가을에 오응선, 최유현 등은 충청도 보은에 계신 해월(최시형) 대도주로부터 각자 자기 연비(동학교도)들의 명단을 보고하라는 경통(공식서신)를 받았다. 보은에 갈 명망 높은 동학교도 15명을 선발할 때 나도 거기에 뽑혔다. 길게 땋은 머리가 불편하여 갓을 쓰고 연비들이 추렴해 준 노잣돈으로 대도주님께 올릴 토산품으로 특별히 해주 향먹을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났다. 육로와 수로를 이용해 보은군 장안(보은군 장내리)이라는 동네에 들어섰다.'

그 해 1893년 보은 장내리 모임은 동학농민봉기의 효시가 됐다. 전국 65곳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본격적 동학농민운동은 이듬해인 1894년 있었다. 그리고 높이 날고 멀리 뛰고자했던 그들 대부분은 아침이슬처럼 스러져갔다.

오늘날 보은. 지난해 11월부터 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청 진입로 옆에 텐트를 치고 농성중이다. 혹독한 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데도 남녀노소 모두 나서 고생을 감수하고 있다. 올 농사일을 대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할 농한기임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달 말쯤이나 의향서 제출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부터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서 75점, 주민 의견 15점, 시군 의회 의견 10점 등으로 이뤄진다. 이중 지역희망정도(주민+의회=25)가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 된다.

실례로 남해 화력(4000㎿), 고성 화력(4000㎿) 등은 주민투표까지 치러지는 진통 끝에 유치반대로 결론이 났다. 제출된 동의서에서도 장애요인이 생겼다.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류를 실제 확인한 결과 5~15%정도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동의서는 발전소 반경 5㎞ 이내 세대주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외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일정은 재조사가 끝난 후에라야 잡힐 전망이다.

각설하고, 120년 전에는 국가의 존망과 미래를 놓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민중 봉기의 날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보은군의 발전적 미래 동력이 될 청사진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도도히 흘러 세월이 흐른 후 검증해 줄 것이다.

보은신문(http://www.boeuni.com)

“이젠 동학후손이라고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조부는 충(忠), 부친은 효(孝), 받들며 살아온 이창순(87)옹

[1130호] 2013년 05월 02일 (목) 박진수 기자✉jinsu-p@hanmail.net

▲ 조부의 함자가 적힌 족보를 가리키며 조부의 행적과 부친의 행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창순 옹의 모습

지난 26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동학학회의 주관으로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 행사가 열렸다. 80대로 보이는 노신사 한분이 혼자 조용히 앉아계셨다. 다가가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청주에서 왔습니다” 어떤 연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나요? 라고 묻자 본인 소개와 함께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금은 청주에 살고 있는 이창순(87세)옹. 고향은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황토말)로 부친은 이경제옹, 조부 이원식옹은 한평생 충과 효를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다며 말을 이었다.

“조부 이원식옹 1893년 접장으로 동학에 참여하다”

이창순옹의 조부 이경제옹은 그의 부친 이원식옹이 6세때 1895년 2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895년 4월 충주부옥에 동학군으로 가담하여 옥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동네 이구식외 2인과 함께 충주를 찾아가 상봉하니 부친의 피골이 상접되어 뵈옵기 민망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당시 나라의 살림이 빈곤하여 옥중 죄인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한 연고로 이를 보다 못한 부친 이경제옹이 충주에 남아 문전걸식 해 사식제공으로 목숨을 부지했다고 한다.
같은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연고가 없어 대부분 굶어서 죽은 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창순옹의 부친 이경제옹은 부친 이원식옹을 살리기 위해서 낯선 충주에 홀로 남아 문전걸식 동냥으로 부친을 보살폈다고 한다. 1년여동안 부친 이원식옹의 옥중을 오가며 목숨을 연명하는 이경제옹의 효도에 감동한 인근 마을 사람들과 옥중을 지키는 사령들이 감탄해 충주부사가 이 사실을 알고 감동한 나머지 부친 이원식옹과 즉시 귀향토록 하였다고 한다.
이창순옹의 부친 이경제옹의 효심이 동네 사람 모두 감탄하게 되었고 18세에 능성 구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슬하에 4남2녀를 두었는데 이창순옹은 셋째로 태어났다고 한다.
이창순옹의 조부 이원식옹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루셨다. 조부이신 이원식옹께서는 접장으로 1893년 동네 주민 4명과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했다가 괴산군 청천으로 피신하셨다가 충주로 향하던중 붙잡혀 충주부옥에 옥고를 살게 되셨다고 이창순옹은 어릴적 부친으로부터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
당시 동학에 참여한 조부 이원식옹은 부패한 탐관오리와 궁핍한 백성을 더욱 호독하게 만드는 외세앞에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며 앞장 서셨던 의로운 행동이 이제 자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할아버지라며 기뻐하시는 이창순옹의 모습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조부와 부친 막노동으로 생계이어”

막상 고향으로 돌아온 부친 이경제옹과 조부 이원식옹께서는 문전옥답은 오간데 없어 지금의 원남리 인근에 금광을 찾아가 막일로 생계를 이으며 동학에 참여해 옥고를 살았다는 조부의 행적에 대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세월을 사셨다고 한다.
동학에 가담했다는 연고로 하루 아침에 없어진 문전옥답은 사라졌지만 슬하에 4남2녀를 키우기 위해 금을 캐는 광산에서 막노동으로 조부와 부친이 흘린 땀이 형님과 동생들이 각계각층의 최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충실하는 형제자매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었다고 한다.

“이제 부친이 묘비에 조부의 동학 행적 남겼다”

삼승면 선곡리에 위치한 부친 선영에는 지난 2000년 3월 이창순옹의 부친 이경제옹의 묘비를 세우며 묘비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조부 이원식옹의 ‘제포구민과 척왜척양창의’ 의로운 뜻을 세겼으며 부친 이경제옹의 지극한 효행을 기록으로 남겨 대대손손 충과 효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이제 조부 이원식옹의 동학에 참여했던 기록을 찾기 위해 동학관련 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창순옹은 충북대학교 사학과 신영우 교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학예사를 만나 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부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 조부와 부친의 뜻받들어 1990년 보은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은, 감은, 사은 보은정신 함양을 위한 열정으로 보낸 이창순 옹의 고희축하연 가족사진.

“조부 동학행적과 유족 등록 위해 남은 삶 보낼 터”

이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학예사는 “우선 이창순옹의 조부 이원식옹에 대한 동학참여자 명단확인 및 충주부옥 사실에 대한 근거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며 “조부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유족등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특히 함께 자리를 했던 충북대 신영우 교수는 “보은지역의 대부분의 동학 참여자들은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후손들의 당시 상황 때문에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부나 증조부의 동학에 참여한 행적에 대한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후손들이 적극적인 증언을 통해 동학유족을 찾을 수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부의 충, 부친의 효 이젠 자녀들에게 전수되길”

이창순옹은 1989년 3월 1일 보은군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아 만 2년간 군내 교육행정을 맡은 바 있으며 보은상고 교장으로 재직하다 1992년 9월 퇴직했다.
교육계 수장시절 일선교사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는등 학생들의 밝은 마음을 읽기 위해 직접 찾아다니는 행정을 펼친 것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특히 현재의 교육청 청사를 신축한 장본인으로 교육계 특색사업으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웃어른 및 도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등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는 요즘 어린이들의 정신교육을 위해 지은(知恩), 감은(感恩), 사은(謝恩)하는 보은(報恩)정신 함양교육을 시작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이창순옹의 이러한 교육계의 열정은 장남인 이학래(56)씨로 이어져 현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부친 이창순옹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삼승초등학교 시절 동기동창으로 만난 부인 송재원(87)여사와 결혼해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으며 삼승면 우진리에 위치한 농장관리를 위해 87세의 고령에도 보은을 자주 찾고 있다.
/박진수 기자

“120년전 동학 보은취회 되새겼다”

기념식 및 다채로운 공연등 장안 주민 화합의 장 마련

[1130호] 2013년 05월 02일 (목) 박진수 기자 ✉jinsu-p@hanmail.net

▲ 지난 27일 장안면 속리초등학교에서는 120돌 보은취회 기념식 및 기념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1893년 3월 보은 장안마을로 8도 백성 수만명이 모였다. 1893년 보은취회 12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속리초등학교 교정에는 지역 주민 및 동학관련 단체등 500여명이 모여 120년전 보은취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보은동학계승사업회(상임대표 김종규)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보은취회 120주년을 맞아 장안면 지역주민은 물론 동학관련 시민 및 연구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펼쳐졌다.

이날 보은동학계승사업회 김종규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사람이 하늘이라는 민중의 참된 얼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20년전 보은취회가 이곳 장안에서 펼쳐졌다” 며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보고자 함께 모여 꿈꿔 보고자 새로운 기운 서로 나눠 잘살아 보고자 이렇게 모였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혁 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120년전 이 곳 장안마을에 모인 동학교인 및 백성들의 고귀한 뜻인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참뜻을 오늘에 되새겨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며 “우리 군민 모두는 정의를 숭상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겸손한 자세로 사람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은군의회 이달권 의장의 축사와 2013 대한민국 민회 박소정 공동조직위원장, 중국 남경대 최지청 교수,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등이 참석해 보은취회에 대한 현대 사회적인 역할등에 대한 인사말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상혁 군수를 비롯 사회 단체장들은 황토저고리를 입고 행사에 참석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보기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26일 진행된 동학학회 회원 40여명이 기념식 및 장안면사

무소에서 열린 2013‘ 보은민회에도 참석해 박맹수(원광대) 교수의 ’보은취회와 해월 최시형의 역할‘ 이라는 주제 강연을 경청했다.
/박진수 기자

동학군 추모행사 전면 재검토 '논란'

추모행사 아닌 사회문제 제기로 전락 우려

[1130호] 2013년 05월 02일 (목) 박진수 기자 jinsu-p@hanmail.net

▲ 지난 28일 보은동학공원에서 열린 '북실정화수의례'행사에 참석했던 정상혁 군수는 군의회 의원 및 동학관련 단체장들과 기념탑 주변을 둘러보며 기존 위령제 장소변경 등 다각적인 재검토를 지시하고 있다.

2600여명의 동학농민군이 희생한 보은읍 북실마을에 위치한 보은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열린 '북실정화수의례' 행사에 '반전반핵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등의 문구가 등장해 참석한 일부 주민들이 반감을 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보은동학계승사업회와 120돌 보은취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보은동학 관련 행사의 일환으로 '북실정화수의례' 행사장인 동학공원에 게시된 깃발과 부착된 게시문 등에 '반전반핵' '해군지기 결사반대' 등의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깃발과 문구등은 이번 보은지역 동학관련 행사에 참여한 대안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1893년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보국안민' '척왜척양창의' 등 당시 동학군이 작성했던 깃발과 구호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구로 재해석되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령제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 당일 공원을 찾은 교육계 원로등은 "북실마을에서 희생하신 동학농민군에 대한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에 어떻게 저런 문구가 등장하냐"며 바로 행사장을 떠나는 모습도 연출됐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당시 북실전투에 참여한 동학군을 추모하는 위령제 성격으로 진행된 '북실정화수의례'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국민의례에 필요한 태극기와 녹음 반주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가 하면 7분만에 기본적인 의

식행사가 끝나자 자리를 함께 했던 정상혁 군수 및 유완백 도의원등 기관.단체장들이 자리를 떠난후 사전 준비된 정화수의례가 진행돼 위령제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상혁 군수는 추모사를 마친후 일부 관계자들과 동학농민혁명공원을 둘러보는 과정에 기존 기념탑이 위령탑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위령제 역시 현재의 민중의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기념탑이 위치한 곳에서 위령제를 올려야 한다고 말해 기존 방식의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졌다.
이런 동학관련 행사에 대해 한 관계자는 “행사장 준비 및 의식 진행에 대한 추진은 계승사업회측에서 준비할 것으로 알았다”며 “외지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구 및 깃발등은 지역주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해 행사 전반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편 행사 당일 한양대 김용휘(동양철학)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탐관오리의 폭정과 부패한 관료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농민운동이라기 보다는 당시 조선의 왕권을 획정하려는 외세에 대한 나라의 구국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이를 통해 백성의 안녕을 바라는 거대한 물결이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된 의제(아젠더)를 발표하는 충분한 합의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진수 기자

동학군 추모 행사장 맞아(?)

[1130호] 2013년 05월 02일 (목) 유영수 화백 webmaster@boeuni.com

120돌 동학보은취회 기념행사 평가보고회

[1134호] 2013년 05월 30일 (목) 박진수 기자 jinsu-p@hanmail.ne

지난 4월26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된 120돌 동학 보은취회 기념행사에 대한 평가보고회가 가 지난 28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평가보고회는 보은문화원 구왕회 원장을 비롯 보은동학계승사업회 김종규 회장등 동학관련 단체 임원 및 회원등이 참석해 잘된점은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재검토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진수 기자

장안 동학계승사업회 창립

보은동학 취회 120주년 행사 주도

[193호] 2013년 04월 18일 (목) 송진선 기자 ✉sun@boeunpeople.com

장안면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주민 조직인 장안동학계승사업회가 창립됐다. 지난 18일 면내 각 마을의 이장 및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을 비롯한 면내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장학동학농민회를 더욱 발전시킬 시민조직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당초 장안동학농민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다 면내 전체 주민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발전시키자는 방안이 협의돼 서원권역 대표를 맡고 있는 신국범씨가 추진위원장이 되어 김종규 장안동학농민회장과 면내 인사들이 조직정비에 나서 전체 100여명에 가까운 회원들을 모집, 이날 장안동학계승사업회 창립을 이끌어냈다.

상임대표를 맡은 김종규 회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120년전 장안에서 동학취회가 있었고 동학의 중심에 장안이 있다"며 “장안동학이 역사성을 평가받고 또 동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올해 취회 120주년 기념 각종 사업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장안동학계승사업회 덕분에 120주년 기념사업들이 성공리에 개최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회원들에게 주문했다.

장안 동학계승사업회 임원은 상임대표로 김종규시가 선출된 것을 비롯해 분과 위원장에는 △총무기획 주현호 △행사지원1분과 정상용△ 행사2지원 윤동근△ 행사3지원 윤윤용 △여성분과 김병남 △풍물분과 고옥진 △교통안내 권중기씨가 각각 선출됐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27일, 5월3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속리초등학교 및 문화원시청각실, 서원권역도농교류센터 등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비롯해 그림전, 마당극, 좌담회, 기념강연, 민속한마당, 솟대만들기 체험, 위령제 등 동학 보은취회 1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된다.

120돌 동학 보은취회, 사람세상 구현

26~28일까지,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기리는 다채로운 사업 전개

[194호] 2013년 04월 25일 (목) 송진선 기자 sun@boeunpeople.co

'19세기 말 외세에 민족의 자주권이 침탈당하고 탐관오리의 폭정이 이어질 때 1893년 3월 이 땅의 동학민중은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깃발을 내걸고 보은 장안에 모였다. 그동안의 민란적 성격과 달리 확실한 조직과 이념을 가지고 사회변혁의 깃발을 높이 든 민족사 최초, 최대의 민족, 민중집회인 보은취회는 동학민중혁명의 모태로 평가되고 한국 민족, 민중운동의 벼리로 손꼽히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민회로서 한국형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동학민중들이 모였던 동학 보은취회에 대한 역사적 평가이다.

올해는 동학 보은취회가 있은 지 꼭 120년이 된다. 보은동학계승사업회(상임대표 김종규)와 120돌보은취회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박윤수)는 보은군과 보은문화원, 보은농협, 보은군산람조합의 후원으로 속리초등학교와 북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5월4일 보은취회 120돌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특히 올해는 보은취회 120돌이라는 역사성에 맞춰 보은군민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모심과 살림연구소, 생명평화결사, (사)밝은마을 예술마당 솔,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 개벽하는 사람들, 극단 꼭두광대, 극단 연극촌사람들, 연극 자리소풍, 씨알누리, 광대패 모두골, 아트코어 굿마을, 무위당학교, 청주 노자모임, 청주 한살림, 괴산 한살림,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동학민족통일회, 한울연대, 얼간 개벽신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충북NGO 센터, 충북학연구소, 한알학교, 사랑어린이학교, 제천간디학교, 선애빌학교, 산티학교, 래미학교, 밝은마을 마리학교 등 전국 단체에서 보은취회를 함께 한다.

◆주요 행사 장안에 집중

서울 장안이 장안이냐, 보은장안이 장안이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동학민중들이 몰려들었던 보은취회에 의미를 부여해 장안면이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2박3일간 일정 중 주요행사의 대부분이 장안면에서 열린다.

동학학회가 주관이 돼 문화원 시청각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갖는 26일 보은취회, 동학민중혁명과 생명살림의 의미를 그림과 글시로 표현한 걸개글씨그림이 전이 속리초등학교에 나부끼고 또 그림자극과 판놀음 등을 펼치는 동학마당극제가 2회 열리고 동학창작 탈극 공연도 속리초등학교에서 있다.

또 서원권역 센터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던 것을 상기하며, 오늘날 생명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하는 생명평화 야단

법석 좌담회도 열린다.

27일 속리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기념식은 길놀이, 검무, 취회선언 등의 기념행사와 함께 주민들도 투호놀이와 윷놀이 등 민속한마당으로 보은취회를 함께 즐기게 된다.

이날 기념식 후 장안면사무소에서는 120년 전 보은취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새로운 보은취회의 방향을 찾기 위한 원광대 박맹수 교수의 기념강연이 있다.

강연 후에는 그 자리에서 토론의 장인 보은민회를 연다. 힘없는 민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칼과 창 대신 창의 깃발을 걸고 백성을 편안케 할 대책을 의논했던 보은취회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120년 후인 오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을 펼치는 것이다.

저녁 8시에는 자리를 동학공원으로 옮겨 청소년들이 보은 동학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풍류한마당인 청소년 락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위령제는 정화수 의례로

이번 120돌 보은취회 기념행사의 대미로 북실 동학공원에서 28일 열리는 위령제는 참가자들이 마음을 모아 동학민중의 넋을 기리는 정화수의례로 치른다.

보은취회 120돌을 의미해 120명의 일반인 접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정화수의례는 식전 행사의 일환으로 탈굿 공연이 열리고 이어 정화수 올리기, 소지올리기, 축원덕담 등을 나누고 식후에는 흥풀이 공연도 열리며 공연 후에는 그 자리에서 보은취회와 보은동학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김용휘 교수의 강연이 이어진다.

5월 3일에는 동학공원에서 청주 노자모임이 청주 생태교육연구소 소장인 김태종 목사를 강사로 모셔 동학 창시자 수운 최시형 선생과 노자의 사상을 공유해 동학사상 인식의 폭을 확대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밖에 모든 보은취회 기념행사 끝날 때까지 동학공원에는 걸개 그림글씨전이 계속되고 또 120년 전 전국에서 몰려온 민중들이 장안에서 야영을 한 것처럼 동학공원에서도 들살이 체험이 있으며, 28일에는 솟대 만들기 체험도 있는 등 종전의 행사 내용을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학집회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학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윤수 '삶결두레 아사달' 대표는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일어선 동학군의 보은취회 의미를 되새기고 전라도 중심의 동학운동사를 바로잡는 한편 청소년에게 나누는 삶의 여유를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안동학계승회, 북실청년회와 함께 보은동학계승사업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한 축인 삶결두레 아사달은 1998년 11월 '하늘이 열리고 이땅에 지킴이가 서다'라는 4331 솟대 장승굿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북실과 장안에 솟대와 장승을 세우고 또 문화원에서 동학제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보은동학굿 및 기림굿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동학 한일시민교류사업도 추진하는 등 사람사는 새로운 세상을 열망한 보은동학민중혁명의 뜻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전개해왔다.

동학 보은취회 120돌 내용은 다채로웠지만…

학생·지역민 참여 이끌어내지 못한 점 아쉬워, 28일 행사 정화수 의례 눈길끌어

[195호] 2013년 05월 02일 (목) 송진선 기자 sun@boeunpeople.com

동학 보은취회 120돌을 기념하는 행사가 장안면과 보은읍 북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보은동학계승사업회(상임 대표 김종규)와 120돌 보은동학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보은군과 문화원, 보은농협, 보은군산림조합이 후원한 이번 120돌 행사는 4월26일부터 28일까지 19세기 말 외세에 민족의 자주권이 침탈당하고 탐관오리들의 폭정에 항거한 동학교도들이 사회 변혁의 깃발을 높이 든 한국 근대민족 민중운동의 시초라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전라도, 강원도 등 역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단체와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 산업문명의 폐해로 위기에 직면한 인간과 자연을 살리기 위해 생명평화운동을 펼치는 단체와 대안학교 등 전국의 많은 단체들이 보은취회 120돌 기념현장을 찾았다.

첫날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동학공원과 주행사장이었던 속리초등학교에는 걸개그림과 글씨가 나붙어 행사분위기를 조성했다.

27일 장안풍물단이 터를 누른 기념식장 속리초등학교에는 정상혁 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그리고 전국에서 참가한 단체 및 대안학교 학생들이 척왜양창의, 보국안민 등 당시 사회변혁의 이념을 담은 깃발을 높이 들고 모여들었다.

동학계승사업회 김종규 상임대표는 “120년전 3월 장안은 수만은 동학농민과 선각자들이 외세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혼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반상의 차별, 빈부의 차별, 남녀의 차별이 없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연히 항거한 함성이 서린 곳"이라며 “120년 전의 뜨거운 기운을 받아 새 장안을 만들고 동학의 성지로 가꿔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종 청주 생명교육연구소 터 소장이 동학 보은취회 120돌을 기리는 행사 취지문을 낭독하는 등 기념식후에는 각종 퍼포먼스와 공연이 진행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장안면사무소에서는 보은취회 120년 후의 방향 모색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생명운동 대화마당으로 2013 보은민회 전환 새로운 삶과 사회를 향해 라는 주제로 민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보은에서 삶의 전환, 사회의 전환, 문명의 전환으로 생명평화의 깃발을 내걸어야 한다는 토론을 펼쳤다.

장안 주민들은 장안면 주민들이 윷놀이와 투호놀이를 하며 민속한마당 행사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8일 북실 동학기념공원에서는 동학농민군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정화수의례 의식이 있었다.

김홍래 북실청년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119년전 농학농민군의 장렬히 전사한 이곳을 동학성지를 꽃피우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라며 “전 군민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념식 후에는 아트코어 굿마을 주관으로 정화수의례 공연을 펼쳤는데, 어머니들이 새벽에 깨끗한 물을 받아 장독대나 부엌에 놓고 가족의 건강을 빌었듯이 동학정신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한 것은 어머니들의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그 정성 때문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120돌을 기념해 120개의 정화수가 담긴 그릇에 소원지를 태우며 가족과 이웃,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살기힘든 세상을 잘 살고 있는 자기자신, 그리고 개인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 빌어볼 것을 권했다.

한편 27일과 28일 기념식후에는 장안면과 북실청년회와 성족리 부녀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대접, 넉넉한 보은의 인심을 보여줬다.

◆지역주민, 청소년 참여 아쉬워

120돌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민과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외지에서 먼 길을 달려와 일부는 야영을 하며 동학 취회 행사에 참여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들을 환영하는 것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기념식후 공연 및 위령제 후 무대는 모두 외지공연단이 차지했다. 지역에서도 무대에 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소리꾼, 풍물단들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야 해야 한다.

왜 보은을 동학성지로 격상시켜야 하는지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참여시키는 수밖에 없다.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 등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교육적 효과로 역사인식을 갖게 된다.

북실 공원에서 펼쳐진 청소년 락 한마당은 전적으로 대안학교 학생을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이들이 보온동학 행사에 참여한 후 어떤 역사적 인식을 갖고 또 보은동학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우리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연을 펼쳤다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청소년들이 120돌을 기념하는 역사의 현장에 없었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필요에 따라 주최 측이 교육당국에 참여요청을 해야 한다. 반대로 학교에서도 행

사내용을 파악해 참여요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강제적이긴 하지만 동학 현장은 충분한 체험 학습의 현장이 되고도 남는다. 더욱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우리지역과 관련된 과목을 별도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공부하는 학년만이라도 참여한다면 좋은 현장학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학이 더 이상 주민들의 외면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되고 또 경품이나 선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세심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충북동학기념관 유치로 보은이 동학중심지 돼야

김양식 소장, 보은취회 120주년 세미나서 주장

[195호] 2013년 05월 02일 (목) 박상범 기자 psb@boeunpeople.com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유치함으로써 보은이 동학의 성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월 26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보은동학집회 1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김양식 충북학연구소장은 '충북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보존과 활용방안(보은유적지 중심으로)'의 주제발표에서 "2007년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충청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유치함으로써, 보은이 명실상부한 동학의 성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식 소장은 "충북지역은 1870년대부터 꺼져가던 동학의 불씨가 되살아나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제공했으며, 1893년 3월 장내리에서 있었던 보은집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인 전사를 이뤘다"며 "이런 과정에서 충북지역에는 15곳의 동학관련 주요 유적지가 남게 됐고, 특히 보은에는 김소천가, 북실전적지, 취회와 대도소터 등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보유함으로서 그 중심에 서있다"고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유치의 타당성을 밝혔다.

또한 김 소장은 보은 동학유적지의 활성화 방안으로 장내리 동학집회 및 대도소터를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한 뒤 국가 사적지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속리산과 법주사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문화 및 교육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장내리에 동학광장과 북실에 기림공원을 조성한 후, 도보답사 등 산교육장으로서의 상호유기적인 동선과 프로그램을 확보한다면, 정체성도 없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까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는 김양식 소장 외에도 충북대 신영우 교수, 경희대 임형진 교수, 연세대 왕현종 교수, 독립기념관 홍일교 학예사가 보은동학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중국 남경대 최지청 교수가 동학사상과 태평천국사상을 비교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내년 동학행사 주도권 누가 쥘까

보은취회 120돌 평가회에서 문화원과 동학계승사업회간 신경전(?)

[199호] 2013년 05월 30일 (목) 송진선 기자 sun@boeunpeople.com

보은군,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사업에 반영할 계획 밝혀

올해 동학 보은취회 120돌 행사에 대한 평가회에서 보은문화원과 동학계승사업회간 미묘한 신경전이 읽혀져 내년에는 어느 단체가 행사를 주도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8일 군 문화관광과(과장 안광윤)는 올해 동학행사를 주최, 주관한 보은동학계승사업회와 지난해까지 11년간 동학제를 주최해왔던 보은문화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0돌 동학행사에 대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 중 전국에 있는 많은 동학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은동학행사를 치룬 것과 과거 동학교도들이 취회지에서 숙영을 한 것처럼 들살이를 운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취회 행사 후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가 장안주민만 남았었는데, 올해는 식후에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민회가 이어져 지난해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과 지역 학생들의 참여가 없었던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혔다.

이에대해 동학을 보은의 정신으로 삼아야하는가 말아야하는가에 대한 주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보은정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동학에 대해 주민들은 조상 중 학살 피해가 없는 등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여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 마을별 접주선발대회를 갖거나 교주 선발대회를 갖는 등의 이벤트를 개최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동학제를 추진해 온 보은문화원측과 올해 첫 행사를 치른 동학계승사업회 간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읽혀졌다.

보은문화원 측은 장안이 주무대가 아닌 주민들의 쉽게 접근할수있는 뱃들공원이 주무대가 되고 장안은 선양사업 차원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뱃들공원에서의 행사가 없어 그나마 주민들에게 알릴 수있는 기회마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보은동학 행사에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라는 문구가 나온 것을 보면 사회운동차원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보은동학 그 자체를 기념해야지 사회운동차원으로 갈 경우 자칫 지역주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동학계승사업회 측은 10여년간 뱃들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가수를 불러 공연을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수를 보러왔지 동학에 관심이 있어 참여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10여 년간 동학제를 추진해왔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꼭 올해 행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까지도 주민 참여는 저조했다며 오히려 장안취회 행사에는 장안면민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참여율이 높았음을 강조하는 등 상호 입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평가회를 주관한 안광윤 문화관광과장은 "평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북실 기념공원 기념탑을 위령탑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위령제는 광장이 아닌 위령탑 아래서, 유교식이 아닌 천도교 식으로 지내는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서 26~28일 동학군 취회 120돌 기념행사

| 기사입력 2013-04-21 09:00 광고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지역을 무대로 펼쳐진 동학운동사를 재조명하는 '동학 보은취회 120돌 기념행사'가 오는 26~28일 보은 동학공원 일원서 펼쳐진다.

21일 보은군과 보은동학계승사업회에 따르면 '사람이 하늘이니 - 다시 하늘 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 행사는 위령제와 걸개 그림전, 동학군의 발자취를 좇아 장안면 장안리(취회지)~보은읍 북실마을(최후 격전지)을 걷는 동학순례 등이 마련된다.

이 지역 동학운동사를 되짚어보는 학술 세미나와 원광대 박맹수 교수 초청 강연이 열리고, 솟대 만들기와 민속놀이 등 관광객 체험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달한 '삶결두레 아사달' 대표는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일어선 동학군의 보은 취회 의미를 되새겨 전라도 중심의 동학운동사를 바로잡고, 청소년에게 소박하고 나누는 삶의 여유를 가르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1998년 일부 문화단체가 동학군의 넋을 기리는 솟대·장승굿을 연 이후 해마다 취회를 기념하는 위령·학술행사가 열리고 있다.

bgipark@yna.co.kr

보은서 26~28일 동학군 취회 120돌 기념행사

기사 | 댓글(0)

엄재천 jc0027@naver.com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등록일: 2013-04-21 오후 4:05:29

보은지역을 무대로 펼쳐진 동학운동사를 재조명하는 '동학 보은취회 120돌 기념행사'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은 동학공원 일원서 열린다.

21일 보은군과 보은동학계승사업회에 따르면 '사람이 하늘이니 - 다시 하늘 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 행사는 위령제와 걸개 그림전, 동학군의 발자취를 좇아 장안면 장안리(취회지)~보은읍 북실마을(최후 격전지)을 걷는 동학순례 등이 마련된다.

이 지역 동학운동사를 되짚어보는 학술 세미나와 원광대 박맹수 교수 초청 강연이 열리고, 솟대 만들기와 민속놀이 등 관광객 체험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박달한 집행위원장은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일어선 동학군의 보은 취회 의미를 되새겨 전라도 중심의 동학운동사를 바로잡고, 청소년에게 소박하고 나누는 삶의 여유를 가르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한다"고 했다.

이 지역에서는 1998년 일부 문화단체가 동학군의 넋을 기리는 솟대·장승굿을 연 이후 해마다 취회를 기념하는 위령·학술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주현기자

보은 동학농민운동 재조명

26일부터 동학취회 행사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외세를 배격하고 신분제도 철폐 등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동학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한 '120돌 동학취회'행사가 보은지역 일원에서 풍성하게 개최된다.

동학취회 기념 행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은읍 동학기념공원과 장안면 장내리 동학취회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보은동학계승사업회(상임대표 김종규)과 주최하고,120돌 동학보은취회 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박달한)이 주관해 열린다.

먼저 26일에는 문화원 시청각실에서'보은 장내리 동학취회의 종합연구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생명평화 야단법석 좌담회가 서원권역 도농교류센터에서 열린다.

27일에는 보은취회 120돌 기념식, 생명살림 풍류마당, 120돌 동학취회 기념강연, 동학민속한마당, 보은민회, 청소년 락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28일에는 동학기념공원 체험활동으로 솟대만들기, 위령제, 120돌 동학취회 기념강연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도 5월 4일까지 동학기념공원 걸개글씨 그림전과 들살이(120년전 보은취회 야영 체험)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동학집회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학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3/04/23 [16:36] ㅣ 주현주

보은서 120돌 동학취회 열려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취회를 열었던 보은에서 '120돌 동학취회' 행사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보은동학계승사업회(상임대표 김종규)가 주최하고 120돌 동학보은취회 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박달한)가 주관해 열린다.

26일에는 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보은 장내리 동학취회의 종합연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생명평화 야단법석 좌담회가 서원권역 도농교류센터에서 열린다.

27일에는 보은취회 120돌 기념식, 생명살림 풍류마당, 120돌 동학취회 기념강연, 동학민속한마당, 보은민회, 청소년 록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8일에는 동학기념공원 체험활동으로 솟대만들기가 열리고, 위령제, 120돌 동학취회 기념강연이 마련돼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120년 전 동학군 최후 전투지에 핀 '철쭉꽃'

NEWSis( ) | 기사입력 2013-05-15 10:05

【보은=뉴시스】김기준 기자 = 동학혁명 최후 전투지로 알려진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북실마을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15일 마치 120년 전 동학혁명군의 핏방울이 녹아든 듯 보이는 철쭉꽃이 고즈넉이 피어 있다.

동학혁명군은 1894년 12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이곳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다 모두 참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동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조명한 김석중의 '토비대략'은 북실마을에서 벌어진 야간전투에서 393명이 숨지고, 관군과 일본군에게 마구잡이로 참살당한 농민군이 2200명이나 된다고 서술해 놓았다.

불과 8시간 만에 2600여 명의 생명을 빼앗은 '북실전투'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평가받는 동학혁명은 추운 겨울에 벌어진 북실전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정부와 군은 2007년 12월 북실전투를 벌인 곳으로 추정되는 이곳 9만2298㎡ 터에 86억원을 들여 돌성과 기념탑 등을 쌓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조성했다.

보은동학계승사업회와 북실마을청년회 등이 2004년부터 매년 5월 이곳에서 '위령제'를 열어 동학혁명군의 영혼을 달래고 있다.

kkj@newsis.com